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3월 2일(음력1월 22일) 수요일 (주간) 제515 호

불 교 성 지 순 례 전 문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5일
4월5일, 19일, 29일 5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 yahotour21@hanmail.net

재난구호활동 체계화 된다

조계종 '자비의 나눔운동본부' 5월경 창립 추진

의료·자원 봉사 주축… 첫 사업 스리랑카 복지타운

전종단차원에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조계종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설구호단체를 설립한다.

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은 2월 24일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국내외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자비의 나눔운동 본부'(이하 운동본부)를 창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던 불교계의 재난구호 사업을 체계화함과 동시에 '자비 운동'을 일상화한다는 측면에서 불교계 안팎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정토회나 지구촌공생회 등이 활동을 벌여오고 있지만 종단차원에서 구호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어서 불교계의 대사회활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에 따르면 운동본부는 총무원, 포교원 등의 중앙종무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재단, 동국대 등이 참여하는 기구로 산하에 상설 의료봉사단과 자원봉사조직을 둘 예정이다.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현지에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금명간 조직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수립해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구체적인 창립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계종은 이를 위해 각종법회 등을 통해 '자비나눔 기금'을 조성한다. 2003년의 스리랑카 대홍수나 지난해 발생한 북한 룡천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기금을 운동본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금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은 또 불우이웃과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재활을 돕는 용도로도 쓰인다.

조계종 사회부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상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개신교의 월드비젼이나 굿네이버스와 같은 구호단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운동본부의 실질적인 첫 사업으로 4월 초 이전에 남아시아 지진해일 희생자들에 대한 천도재를 봉행하고 스리랑카 복지타운 건설을 시작한다. 복지타운 건설이 운동본부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셈이다.

2006년 완공되는 복지타운에는 고아원과 양로원을 비롯해 컴퓨터와 한국어 강좌를 진행할 수 있는 교육시설, 빨리어 불교 경전연구센터, 보건소, 사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복지타운은 스리랑카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콜롬보 인근의 5만여 평 부지에 건립된다.

한편, 조계종은 2월 24일까지 총 17억4천2백5만2052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지율 스님 조사참여

정책협상 담당 할듯

지율 스님이 천성산 환경영향 조사에 직접 참여한다.

천성산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공동조사단 7명중 정책협상을 담당하는 2명에 지율 스님을 포함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건강 상태를 봐가며 향후 활동 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성산 환경조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3월 3일경 최종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율 스님측 간사를 맡고 있는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과 정부측 한국철도시설공단 배용득 건설본부장은 최근 여러 차례 협의를 갖고 이와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재철 국장은 "3월 3일경 지율 스님과 정부 대표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전문가 섭외가 마무리 되는대로 정부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배용득 건설본부장도 "3월 초에는 공동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철주 기자

'新독립선언문' 발표

종교·사회 지도자

불교, 천도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대한민국광복회 등 사회단체들은 3·1운동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3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했다.

3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는 2월 28일 종로에서 가진 전야제를 시작으로 3월 1일 광화문 특설무대에서 만세운동 재현및 추모행사와 기념 전시회 등이 병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립선언서 정신을 계승하면서 현시대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신독립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종교사회단체 대표들은 2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3·1운동 정신대로 "대화합 정신을 되찾는 것만이 우리민족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철주 기자

연등축제 5월 8일

봉축위, 연등법회 등 봉축일정 발표



254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포스터.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 주요 행사가 5월 6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리는 '전통등 전시회'를 시작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연등축제 전야제인 '연등놀이'는 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조계사, 우정국로, 인사동 등지에 열린다.

연등 만들기, 서각과 탁본, 선무도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불교문화마당'은 8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우정국로에서 진행되며, 같은 날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동대문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어울림 마당'에서는 3만여 제등행진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여 '연등법회' 등을 봉행한다.

어울림마당 참가자들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동대문에서 우정국로까지 연희단의 신명나는 음악과 율동 속에 화려한 장엄등과 10여 작은 등불을 들고 '제등행진'을 한다. 우정국로에 도착한 제등행진단과 시민들은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분홍의 꽃비를 맞으며 우정국로에서 '대동한마당'을 펼친다. 참가자들은 서원을 태워 희망의 불씨를 만드는 '서원문 소지' 등을 통해 연등축제가 '화합과 희망의 축제'임을 느낄 수 있다.

봉축법요식은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계사 및 전국사찰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봉축위원회 박상희 과장은 "불자들의 보다 신명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제천 신륵사 극락전 외벽에서 발견된 '사명대사행일본지도'.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전후 교섭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모습. 가마를 탄 사명대사를 100여명이 앞뒤로 호위하고 있다. 19세기 초 작품으로 추정된다.

사명대사 일본行 묘사한 벽화 발견

충청대박물관, 신륵사 극락전서… 19세기作 추정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당시 강화정사로 일본을 방문하는 장면을 묘사한 벽화가 한 사찰에서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청대 박물관(관장 장준식)은 충북 제천시 덕산면 신륵사 극락전(충북 지방유형문화재 제132호) 외벽에서 가로 17.4m, 세로 8m인 '사명대사행일본지도(四溟大師行日本之圖)'를 확인했다고 2월 24일 밝혔다.

이 벽화에는 임진왜란 승병장인 사명대사가 가마를 타고 있고, 일본인들이 호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박물관측은 그림의 필법 등을 감안 19세기 초반 홍안 스님이나 신겸 스님의 작품으로 추정했다.

사명대사의 일본행과 관련된 그림이 벽화로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신륵사는 이 벽화 외에도 136점의 벽화와 우수한 기법의 단청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준식 관장은 "이 사찰에는 사명대사 일행의 벽화뿐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많은 벽화와 단청이 있는 만큼 훼손을 막기 위한 현황모사 등의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륵사는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의 말사로 신라 진흥황 4년(582년)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3월 5일 오후 2시 범어사에서 입제
광복60주년의 해 3·1절 특집 13면

'할'



그림·조태호

혜경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근래 들어 선 수행에 대한 관심이 동 서양을 막론하고 비등한 가운데 특히 한국불교계에는 간화선풍을 바로 계승하고자하는 열의가 뜨겁습니다. 이에 때맞춰 선찰대본산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說禪)대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성월, 용성, 동산, 전강, 고암 대 선사 등 근 현대 대선지식들의 수행가풍이 올곧게 살아 있는 범어사에서 이 같은 법회가 열리는 것은 한국불교의 수행전통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참가 대중에게도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인연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처럼 열리는 설선대법회에 참석하시어 구름에 가려진 마음의 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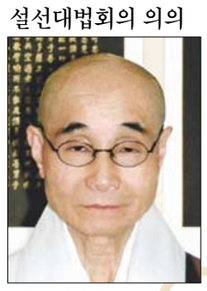
주제 : 문 없는 문을 열다

• 기간 : 3월 5일 입재 ~ 5월 7일 회향. 매주 토 / 총 10회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법회 – 보제루 / 부대행사(참선 등) – 설법전
• 주최 : 대한불교 조계종 제 14교구본사 범어사, 현대불교신문사
•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산시 불교연합회,
범어사 신도회,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부산시 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실업인회,
부산불교거사림회, 불교방송, 불교TV, 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

• 부대행사
– 희망자에 한해 진행되는 프로그램
– 주말 참선 체험 (토요일 법회 종료 후, 19시 입선 ~ 23시 방선)
– 전체 법회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전체 정진 참가자에게는 안거증을 나누어 드립니다.

• 법회 동영상 중계는 beomeosa.co.kr과 buddhanews.com에서,
법문 요약은 매주 '현대불교' 24~25면에 소개됩니다.
• 법회 비디오·카세트 테이프·오디오CD는 현장에서 구입할수 있습니다.

동참문의 : 범어사 원주실 ☎ 051)508-3636

3월 5일 입재법어
설선대법회의 의의

지유 대선사(범어사 조실)
• 질의 법사 : 구주 스님 (수좌)
• 재가 질의자 : 곽만연(동아대학교 교수)

5월 7일 회향법어
무차선(無遮禪)법회

진제 대선사(동화사 조실)

3월 12일
21세기 대안, 왜 선인가?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
• 질의 법사 : 설우 스님(법인정사 선원장)
• 재가 질의자 : 김건웅(조계종 국제포교사)

3월 19일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참선수행

고우 스님(각화사 선덕)
• 질의 법사 : 화랑 스님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 재가 질의자 : 강동균(동아대학교 교수)

3월 26일
선과 삶

인각 스님(범어사 금어선원 유나)
• 질의 법사 : 효암 스님 (수좌)
• 재가 질의자 : 지호경
(부산불교실업인회 감사, 범어사 신도회 부회장)

4월 2일
자비와 지혜를 조화롭게 닦는 선수행

현산 스님(화엄사 선등선원장)
• 질의 법사 : 중대 스님 (전 태안사 선원장)
• 재가 질의자 : 박근호
(전 부산영남교정인불자회장)

4월 9일
선 수행의 바른길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
• 질의 법사 : 강설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사무처장)
• 재가 질의자 : 최익두(부산시법우회장)

4월 16일
생사 문제와 선수행

무여 스님(축서사 선원장)
• 질의 법사 : 영일 스님 (수좌)
• 재가 질의자 : 이대원성(연꽃모임 명예회장)
류상영(대불청 부산지구회장)

4월 23일
화두는 조사공안이다

원융 스님(해인총림 수좌)
• 질의 법사 : 홍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 비구니 선감)
• 재가 질의자 :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장·영광도서 사장)

4월 30일
선 수행의 단계

정광 스님(봉암사 태고선원장)
• 질의 법사 : 지현 스님 (송광사 율원장)
• 재가 질의자 : 설동근(부산시 교육감)

참여정부 2년 '대 불교계 공약' 얼마나 지켰나?

10대 공약 3건 이행, 6건은 '아직'

남북불교교류·문화재관련사업 등 지원 약속 지켜

북한산·천성산 관련 공약 '파기'…"남은기간에 기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지 2월 25일로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노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불교계에 제시했던 공약을 어느 정도 지켰을까.

노대통령은 당시 '불교계 10대 공약'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행된 공약은 3건에 불과하며, 1건은 이행되고는 있으나 공약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나머지 6건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아예 파기됐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노대통령의 공약이행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공약사항 7개항 중 1개항만 이행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개항 중 2개항만 이행했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측은 "예산지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현 가능한 공약은 남은 임기동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약 이행 정도를 살펴본다.

남북불교 교류사업 활성화→이행

공약 사항 가운데 가장 충실히 이행된 부분이다. 신계사 복원에 필요한 50%의 재원을 지원키로 했고, 사찰단청기술자도 파견했다.

비지정불교문화재 전면조사→이행

문화재발굴조사 예산을 2004년 5억에서 올해 8억으로 늘려 지원했다.

불교문화 정보화사업 추진→이행

2002년 10억원이었던 템플스테이 예산이 2004년 18억에서 올해 25억으로 늘었다. 또 불교전통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예산으로 120억이 편성돼 있다.

불교문화재 보존예산 확대→어느 정도 이행

전통사찰보존지원예산이 2003년 30여억 원에서 2004년 56억, 올해 62억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불교문화재 보존예산을 약속한 만큼 확대되지는 않았다.

인사행정 형평성 유지→불이행

정부산하기구 또는 주요 국정 자문기구에 불교계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이었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교계 인사를 참여시키지도 않았다. 물론 불교계에서 인사를 추천한 적도 없다.

미륵사 황룡사 복원→불이행

대선이후 어떤 언급도 없었다. 당시 공약을 받아든 불교계에조차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불이행

경찰청과 검찰청에 전문적이고 상설화된 문화재사범 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 시범실시→불이행

법률적인 지원근거를 만들어 불교청소년 육성을 돕겠다는 공약이었지만 진행된 것은 없다.

조계사 문화지구 지정→불이행

공약을 위한 공약이었다. 이 공약은 불교계의 요구사항도 아니었고, 정부도 무관심한 상태다.

북한산 관통도로 및 천성산(경부고속철) 관통터널 백지화 또는 대안노선 검토→공약 파기

불교계 최대 현안이었던 북한산 및 천성산 문제는 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공사강행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방적으로 공약을 파기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인도네시아 대사에게 '쓰나미' 성금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2월 25일 자콥 토빙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에게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돕기 성금중 5천만원을 전달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금강산에 불자수련원 건립 추진

현대아산, 조계종에 협력요청

현대아산이 금강산 신계사 인근에 불자관광객들을 위한 '불자수련원' 건립을 추진한다.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은 2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올 5월을 '불교의 달'로 정해 신계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신계사 불자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불자수련원은 8000여평 규모로 조성되며, 컨테이너로 만든 숙사 1동(600~800여명 수용 가능), 기도원 1동, 기념품점 1동, 사무실 1동, 식당 1동, 기타 부속동 1동 등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야태측과도 이야기가 됐다"며 "조계종에서 조선불교도연맹에 협조를 구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26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회의 때 친서를 써 주겠다"며 지원할 뜻을 밝혔다. 또한 법장 스님은 "신계사 인근인 만큼 전통적인 분위기로 건립하며, 故 정주영 명예회장을 추모하는 기념관과 비석을 조성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김 사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불교가 앞장섰다"며 "신계사 복원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지난 신계사 대웅전 낙성식 때 총무원장 스님이 '모든 고통은 나에게 달라'고 말씀해줘 큰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현대아산은 내금강 관광확대를 통해 금강산 4대 사찰인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등의 사찰복원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각종 봉축사업 공모 봉축위, 11일 마감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위원회가 지원사업과 경연대회를 공모한다.

'단체 봉축행사 및 자비의 손길 지원사업'은 신행단체 및 불교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전시-불교문화 소재 미술 · 공예 · 사진 · 기타 유물 ▲학술-불교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공연-포교 목적의 불교 주제 연극 · 음악 · 무용 · 영화 ▲경연-개인 및 단체의 창작의욕을 증진시키는 각종 경연 및 공모전 ▲어려운 이웃돕기 분야에서 공모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3월 11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 등을 첨부해 봉축기획단(02-2011-1744, kang@buddhism.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제6회 등 경연대회' 경연부문은 ▲단체 행진등(가로 세로 높이 각 50cm 이내) ▲개인 창작등(가로 세로 높이 각 100cm 이내)이다.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봉축위원회(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4월 18일 연등축제 사이트(http://www.llf.or.kr)에 게재 및 개별 통보되며, 부문별 최우수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 1명에게는 50만원, 특선 2명에게는 각 30만원, 입선 약간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남동우 기자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3월부터 시범운영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 포교연구실이 추진해온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이 3월 3일부터 10주간 매주 목 · 금 오후 7~10시 서울 개포동 금강선원에서 시범운영된다.

2월 23일 열린 제1차 포교 · 신도단체 지도자 회의에서 발표된 간화선 시범운영안은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등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10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2박 3일, 3박4일 등 단기 프로그램위주이다. 단기 프로그램의 경우 각종 수련회, 템플스테이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지연 기자

기획실장 법안 재무부장 동진 복지재단 이사 지현스님

조계종 총무원 등 인사

조계종 총무원 새 기획실장에 법안, 재무부장에 동진,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에 지현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투철한 종단관으로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은 1980년 사미계, 82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총무국장, 11 · 12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과 서울 금선사 주지를 맡고 있다.

1972년 사미계, 79년 구족계를 수지한 동진 스님은 88~2002년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백련차문화원장과 뉴질랜드 남국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동진 스님



지현 스님

지현 스님은 1971년 사미계, 75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사서차장 · 총무국장, 12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13대 중앙종회의원과 봉화 청량사 주지를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인터뷰 조계종 새 기획실장 법안 스님

"변화따른 시스템 마련에 역점"



▲취임 소감은?

-1994년 종단 개혁 후 올해 11년이 됐다. 종단 개혁 때 총무원 소임을 맡다가 10년 만에 돌아왔다. 당시의 원력과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실천할 길을 열고자 한다. 우선 총무원 내 종무구조 혁신이 필요한 것 같다. 결제라인과 각 기관들 구조의 건강성을 회복하며, 핵심적인 사안들을 분류해 완급을 조정하겠다. 총무원 구성원 및 중진 스님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종책을 양산하는 풍토를 만들겠다.

▲종무구조 혁신을 언급했는데?

-예를 들어 원스톱 결제 시스템이나 민원상담센터, 승려노후복지문제 등을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다비문제, 인사구조 시스템 마련, 적절한 인사 등용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것들은 수직적 구조보다 팀을 구성해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국장스님이나 담당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줘 업무효율을 기하겠다.

▲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사안별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외부인사도 자문역할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각종 위원회 등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 자주 연찬회를 열어 발전적인 종책을 이끌어 내겠다.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조적인 시스템 마련에 무게를 둬 올 상반기에 실태를 파악한 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향후 계획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종헌종법개정을 위해 팀 구성도 생각하고 있다. 총무원장스님 공약사항도 챙길 것이다. 총무원이 행사에 매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한 걸음에 멀리 나가기보다 더디 가더라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종무행정에 임하겠다. 남동우 기자

21일 임시종회 소집 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종 제166회 임시중앙종회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월 24일 열린 제2차 의장단 · 각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임시종회에서는 ▲불기2548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 · 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 ▲불기2548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종헌종법 제개정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55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등
· 작 법 반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5년 4월 7일까지
◆ 개강일시 : 2005년 4월 8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海東佛院 慈悲會

베트남 아가씨와 농어촌 짝지어 주기 운동(초혼, 재혼)

삼보에 귀의 하옵고
본 불원자비회에서는 현 시점에 國家復興에 일익을 담당하여 農魚村 발전과 총각들의 애환을 풀어주기위한 運動으로 실 경비로서 봉사코저 하오니 각 사암 주지스님들께서는 신도님들의 한을 풀어 주시는 뜻에서 本運動에 적극 동참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은 佛教國家로서 本院과 자매결연된 사찰에서 추천하여 엄선된 처녀들로서 짝지어 주기 運動을 전개 하오니 이 期會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海東佛院 慈悲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탑골공원 뒤편)
전화 : 02)741-4031~3 팩스 : 02)765-3169
직통상담전화 H · P. 011-494-9595 담당스님 : 만해스님

청년불자 1만인 전법단 결성된다

부산지역 청년단체 '청년불교연대' 창립
장기적인 포교 프로젝트 공동 추진키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청년불자 1만인 전법단'이 결성된다.

부산 범어사와 범어사 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 부산 지구, 대불련 부산지부, 범어사 금강암 청년회 등 부산 지역 10여 개 청년단체 관계자들은 2월 24일 범어사 문화원에서 모임을 갖고 '청년불자 1만인 전법단 결성'을 위한 '청년불교연대'를 창립했다.

이날 창립된 청년불교연대는 매월 한차례씩 모임을 갖고 1만 청년 전법단 결성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청년불교연대를 이끌고 있는 대불청 부산지구와 범어사는 우선 청년불자 1만인 결성을 위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20대 청년불자 포교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청년회에서 활동 중인 중장년층의 경우 오랜 신행경력을 청년포교 활성화에 쏟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포교 활성화를 위한 '선지식초청 즉문즉설' '신입생 환영법회' '인터넷 포교' '희망의 집 지어주기' '도심의 작은 학교' 등 적극적인 봉사와 수행, 포교 프로그램이 곁들여진 장기 사업안도 구상중이다.

이와 함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수행하는 불교청년회, 발전하는 불교청년회의 모습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1만 청년 전법단 결성은 얼어붙은 청년불교 조직에 불을 지피고 활로를 찾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범어사와 대한불교청년회 부산 지구는 지난 1월 일차로 온·오프라인 청년불교모임의 임원들이 모임을 갖고 연대와 교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후 홍법사 청년회, 청년불자산악회, 불교볼링클럽, 대불련 부산지부, 대불련 부산동문회, 자등명청년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한 1차 준비모임을 통해 '1만 청년전법단 결성을 위한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1월 29일, 30일 양일간 진행된 합동수계법회는 참담한 실패였다. 참여한 인원이 준비모임 참여 인원보다 적어지면서 청년불교 연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대두됐다. 하지만 먹구름도 잠시, 청년불자들은 다시 의기투합했고, 청년불교연대 창립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범어사 포교국장 무관 스님은 "시작은 비록 초라하게 보이지만 1만 청년불자들이 결성되는 그날까지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나누고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051)467-5241 부산=천미희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0주년 성과·과제
인프라 구축 성공…내실화 할때
복지관 2개서 94개로…전문성 확보 요구 높아

'자비'를 대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2월 26일로 법인 허가 10주년을 맞았다.

80년대부터 대두된 불교복지단체 설립 필요성에 의해 구성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그동안 정부시설 위탁과 봉사자 양성으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불교복지의 터전을 마련해왔다.

현재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양적 성장은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95년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등 2곳이던 복지재단 산하시설이 2005년 현재 94개소에 이르며 불교계 위탁시설은 450여 곳이다. 이는 종교 복지의 성공적 모델로 꼽히는 천주교와도 규모면에서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자원봉사자 양성 규모도 현재 복지재단 산하시설에만 1500여명이 투입돼 있고 매년 300명씩 새로운 봉사자가 생겨난다는 것에서 복지 인적자원 확충에도 신경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지재단 설립 10주년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양적 팽창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복지예산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됐고 오는 7월까지는 정부 시책에 따라 모든 미인가시설을 법인화해야 하는 등 복지환경 자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복지재단도 이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당면 과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은 "교구본사와 중앙, 시설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 전문가들은 종단에 불교복지전문연구소 설립과 복지재단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복지원' 설립이 관건이라고 조언한다. 현재 복지재단에는 연구위원회만 구성됐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연구소는 전무한 상태다. 연구소가 마련되기 위한 선행조건은 운영자금 마련과 철저한 연구 사업 구상이기에 현재 복지재단에서보다는 '복지원' 정도의 규모가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조석영 사무국장은 "100여개나 되는 재단 산하 기관들을 현재 복지재단에서 챙기기는 것은 무리"라며 "복지원이 설립돼야 불교복지의 대사회적 활동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강진 기자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진원 스님



불교환경연대 신임 집행위원장에 부안 내소사 주지 진원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2월 24일 열린 2005년 정기총회에서 현 집행위원장 세영 스님의 후임으로 진원 스님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이와 함께 정성운 연구실장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진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 주변에서 벌이는 작은 실천 활동에서부터 대형 사업에 대한 대안 제시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욕 총영사 성경강의 헌법 위반"
재가연대, 외교부에 공개질의

문봉주 뉴욕 총영사가 교민을 상대로 성경 강좌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연구원)이 외교부에 '헌법 위반'이라며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연구원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문총영사는 정교분리원칙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직무전념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고, △문 총영사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외교부의 판단 등 7개 조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유철주 기자



10년 동안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불교TV의 최장수 프로그램 'TV법회' 사진제공=불교TV

개국 10주년 맞은 불교TV
明 영상포교의 선구자
暗 재정난·변화에 둔감

영상포교 시대의 지평을 연 불교TV(회장 성우 스님)가 3월 1일 개국 10주년을 맞았다. 불교TV는 95년 케이블TV 방송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는 위성방송까지 병행하고 있어 '영상을 통한 법을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상포교의 선구적 역할 이면에는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미약한 재정 확충 및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개발 미흡 등이 그것이다.

■ 얼마나 성장했나

불교TV는 그간 많은 시청자수와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의 개발 측면에서 괄목한 성장을 일궈냈다. 2005년 현재 방송위원회 시청률 조사에 따르면, 불교TV의 시청자는 30만 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년간 제작된 프로그램만 해도 약 1000여 편에 다다르며 방송시간은 종일 방송에 가까운 하루 21시간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특히 미디어법회, 군포교, 웰빙, 교양 등의 전방위적 포교 콘텐츠도 불교TV의 질적 향상을 돕는데 큰 몫을 했다. 이중 200여 스님들의 법문을 방송하는 'TV법회(95~현재)'는 불교TV의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병영위문 프로그램 '충성! 성불하십시오(2002~2004)', 사찰음식을 만들어 보는 '선재스님의 푸른 맛 푸른 요리(1996)' 등은 군불교와 불교문화를 영상을 통해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풀어야할 과제

올해를 '혁신적 영상포교 프로그램 개발 원년의 해'로 천명하고 전력투구한다는 것. 이러한 취지에 맞춰 불교TV는 '달라이라마의 입보리행론(3월 3일, 10일 12:00)', '불향가득한 보석의 섬, 스리랑카(3월 4일 19:30)', '큰스님 초청 특별법회(3월 6일~5월 8일 매주 일요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경영의 효율성확보다. 2004년도 기준으로 한달 평균 약 5천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지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IMF이전에 비해 광고수익이 3분의 1 정도로 감소해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둔감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바깥에서는 '손 안의 TV'라고 불리는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지만 불교TV는 이러한 영상매체 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긴축경영에 치중한 나머지 과감한 제작비를 투입해 알찬 영상포교 콘텐츠의 제작이 아닌 현장법회 촬영 위주의 프로그램 제작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병철 기자

대불련 총동문회 정기총회
성기태 회장 연임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성기태·사진)는 2월 19~20일 대전 경하호텔에서 2004 정기총회 및 동문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현 성기태 회장의 연임을 결의했다. 또한 2005년에는 봉축행사와 자비의 밤, 사회복지법인 등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8개 대학 동문 74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대불련 동문 윤리 강령제정에 관하여-윤세원 부회장(총동문회) △대불련인의 사회참여와 자비실천방안-법현 스님(태고종 교무부장) △대불련 활성화와 회관건립 방안-정용학 재정부위원장(총동문회) 등이 발표됐다.

강지연 기자

'불자마라톤동호회' 창립
3월 5일 만해교육관서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이하 동호회)가 3월 5일 오후 4시 만해교육관에서 정회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고불식 및 회장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확정짓는다. 동호회 준비위 이용권 위원장(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국장)은 "마라톤을 좋아하는 불자들이 모여 마라톤을 통해 포교활동을 하고 싶다"고 결성취지를 밝혔다.

한편 동호회 준비위원 15명은 2월 13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마라톤 타임즈가 주최하는 '아! 고구려 역사 지키기'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등에서 완주하는 기염을 토했다.

www.kbmc.org 강지연 기자

철도 무사고 기원법회
철불협 회원 300여명 참가

철도불자들이 철도 무사고 기원과 한국철도공사 창립을 축하하는 법회를 열었다.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회장 김해수)는 2월 19일 김천 직지사에서 '한국철도공사 창립기념 및 철도발전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철불협 소속 22개 법우회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1부 철도공사 창립 및 철도발전 기원법회, 2부 철도희생자 천도법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박봉영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영 축 총 림 율 원 학 인 모 집 공 고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율행을 지켜 부처님의 혜명을 계승하고 수행자의 청정지계 가풍을 확립시키고자 율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영축총림율원을 개원하고 율원 학인을 모집코자 하오니 방부 신청을 바랍니다.



불기 2549년 2월

입방지원자격
·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한 비구 및 2005년도 비구계 수계 예정자

모 집 일 정
· 접 수 : 2005년 3월 11일까지(음 2월 2일)
· 전 형 : 2005년 3월 12일 오후 1시(음 2월 3일)
· 발 표 : 2005년 3월 14일(음 2월 5일)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 (본원 소정 양식) 2) 승적사본 3) 졸업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은사 및 강주스님 추천서 6) 건강진단서
7) 자기소개서 및 서약서 8) 사진(4×5) 5매 9) 본인 도장

문 의 처 055)382-7182 (종무소 교무국)

정 정 공 고
현대불교(514호)에 게재된 통도사 율원학인 모집공고의 내용중 하단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영축총림 율원 전계사 및 율주 중산 혜남"을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이산 현문"으로 정정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5 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이산 현문

갑신년 동안거 해제 현장 – 하동 쌍계사 금당선원

길 없는 길 … 무엇을 얻었는가

길을 떠난다. 길 없는 길. 바랑 하나 등에 짊어지고 산문(山門)을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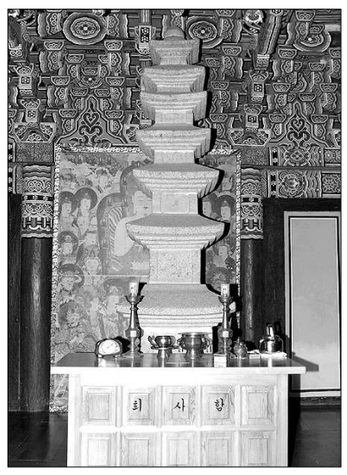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자 지난 한철 일대사(一大事)를 해결하기 위해 뜨겁게 궁구(窮究)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얻었는가. 언제까지 빈손으로 산문을 드나들어야 하는가. 발걸음이 무겁다. 갑신년 동안거 해제일인 2월 23일 하동 쌍계사 금당선원의 수좌들은 석 달 동안의 안거를 마치고 만행을 떠났다.

동방장에서 6명, 서방장에서 10명 등 모두 16명의 수좌들이 정진한 쌍계사 금당선원은 육조 스님의 정상(頂相:머리)을 모신 터전에 창건된 절이다. 그만큼 쌍계사에서 발원하는 선의 역사는 깊고도 그윽하다.



갑신년 동안거를 하동 쌍계사 금당선원에서 보낸 수좌들이 해제일인 2월 23일 산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쌍계사 금당에는 육조 스님의 머리가 모셔져 있는 육조정상탑이 있다.

석달 안거 마치고 만행길로

신라의 대비 · 삼법 스님은 육조 스님에게 법을 깨우치겠다는 구법의 일념으로 당나라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미 육조 스님이 입적하고 난 뒤였다. 두 스님은 대신 육조 스님의 정상을 모시고 고국에 돌아가고자 간절히 기도 정진하던 중, 꿈에 "육조 스님의 정상을 삼신산(지리산의 또 다른 이름) 눈 쌓인 계곡 위 칡꽃이 피는 곳을 찾아 모시면 불법이 흥왕하리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이에 현재 쌍계사 자리에서 절을 세우게 됐는데, 그 자리가 오늘날 금당선원이다.

그 뒤 진감 선사는 당나라에서 육조의 남종선을 잇고 지관법(止觀法)을 닦은 뒤 귀국했다. 838년을 전후해 쌍계사를 본격적인 선도량으로 다져나갔다. 육조영당(六祖影堂)을 현재 금당이 서 있는 자리에 세워, 그곳이 육조혜능 정상이 해동에 전래됐다는 '육조정상 봉안설'의 근원지가 됐다. 이를 근거로 1864년 쌍계사 스님들이 육조정상탑을 세웠으며, 그것을 봉안한 전각이 현재의 금당인 탑전이다.

금당선원은 육조정상탑을 모신 탑전인 금당이 정중앙에, 좌우로 동방장과 서방장이 상선원을, 대중방인 영주각(선당)이 하선원을 이루고 있다. 그 밖에 청학루 · 팔상전 · 영모전 · 주지실이 선원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갑신년 동안거를 쌍계사 금당선원에서 보낸 능원 스님은 "금당선원에서 정진을 하면 편안하면서도 힘이 생깁니다. 특히 서방장의 경우 24시간 개방을 하면서 용맹정진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금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내부에 육조정상탑이 모셔져 있는데, 정면 좌우에 육조정상탑과 '세계일화 조종육엽(世界一華 祖宗六葉)'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다. 이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당시 이곳에 살고 있던 만허 스님의 은덕에 보답코자 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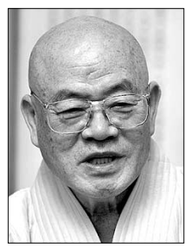
"물 가운데 불, 불가운데 물이"

"선원이 동방장과 서방장으로 나눠있기 때문에 정진 중 공식적인 포행은 하지 않는다"는 능원 스님은, 조실 고산 스님이 음력 보름마다 선원 수좌들에게 법문을 했다고 전했다.

고산 스님은 대웅전에서 열린 동안거 해제법회에서 "한 바퀴의 밝은 달이 항상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한되/대지의 준동함령(蠢動含靈)이 본래스스로 여여하도다/물 가운데 불이 있고 불 가운데 물이 있다/진(眞) 가운데 망(妄)이 있고 망 가운데 진이 있다"고 법문했다.

고산 스님은 또 "시방 중생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전체가 움직이되 오직 움직이지 않는 한 물건이 있다. 금일 대중은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아는가? 만약 알았다면 응당히 갈 곳을 알 것이며, 안광이 땅에 떨어질 때 어느 곳을 향해 갈 것인가? 만약 갈 곳을 알진데 곧 안심입명처(安心立命處)를 알리니 어느 곳이 안심입명처인가? 속히 한 마디 일러라"며 할로 마무리했다.

쌍계사=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탐진치 버리고 화두 정진해야"

하동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잠자는 병통, 망상을 일으키는 병통을 없애려면 우선 참선에 들 때 '빨리 견성해야 겠다'는 탐(貪)심을 버리고,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진(瞋)심을 버리며, '나는 이정도면 잘한다'는 치(痴)심, 즉 탐진치 삼독(三毒)을 버리고 화두를 들어 정진해야 합니다."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사진)은 "걸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앉으면서 늘 '이뭣고' 화두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참선 아닌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처님 당시부터 관법(觀法)이 있었습니다. 옛날 쌍계사 노스님이 화관(火觀)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쌍계사 아래 마을에서 불이 났다며 올라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이 서방장에서 참선에 든 후 스님 주위로 불꽃이 올라온 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수관(水觀)도 했습니다. 한 스님이 참선을 하니 방 전체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를 본 제자가 기왓장을 던지자 그 스님이 '배에 돌이 들어와 아프다'며 빼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어요."

스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스님들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세월을 떠나 자기 근기에 맞게 공부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특히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이듯, 자신의 공부에 따라 다른 이의 모습도 투영된다고 설명했다.

1961년 고봉 스님에게 전법게를 받은 뒤 61년부터 69년까지 청암사 · 범어사 등에서 강사를 한 스님은 "시종 여일하게 공부하는 것이 견성할 수 있는 첩경"이라며 "너무 빠르게도 느리게도, 너무 앞서거나 뒤처지지 말고 중도를 걷다보면 시절인연이 도래해 견성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각 총림 갑신년 동안거 해제 법어(요약)

구하지 않고 이미 얻음이로다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맺으려야 맺을 것이 없고 풀래야 풀 것이 없노라. 없고 없는 것을 모두 버리니 구름 열리고 안개 개인 곳에 달빛이 새롭다.

이도전각 무근수(利刀剪却 無根樹) 날쌘 칼로 뿌리 없는 나무를 베니

만첩빙설 백잡쇄(萬疊氷雪 百雜碎) 만겁의 빙설이 산산이 부서지네

교목한연 야징징(喬木寒煙 夜澄澄) 찬 연기 앙상한 가지에 밤기운 냉냉한데

설립매화 신촉비(雪立梅花 新觸鼻) 눈 가운데 매화향기 코에 새롭네

모든 대지인(大地人)이 구하지 않고 이미 스스로 얻음이로다. 가히 한 물건도 지을 수가 없되 가히 또한 다른 물건도 지을 수가 없다. 나 또한 이와 같고 저 또한 이와 같다. 소리를 들어 도를 깨닫고 성품을 보고 마음을 밝히는 일이 다른 집의 일이 아니니라.

과거의 부처도 다만 이 마음을 밝힌 이 이며

현재의 성현들도 이 마음을 밝힌 이 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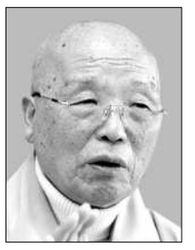
미래의 학인들도 반드시 이 법에 의지해야 한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하여 몸을 뒤칠 곳이 있는가? 뒤칠 수 만 있다면 눈앞에 불(佛)과 조사(祖師)도 없겠지만 만일 몸을 뒤치지 못한다면 부질없는 학식 따위를 가지고 조사의 마음에 묻히게 하지 말라.(후략)

해제 잊고 정진 또 정진하길 …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방거사가 말했습니다.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이가 누구냐?-불여만법위요자수(不與萬法圍繞者誰)

방거사는 두세번 자기의 전 재산을 남들에게 모두 나누어주는 보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보시 때는 남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재산을 동정호 물 속에다 처넣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보시행이 탐욕 많은 사람에게 또 다른 업을 짓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삼동에 훌륭하게 정진하신 스님네들은 방거사 못지않은 기틀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해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정진을 계속하면 생사를 요달하는 경계에 이를 것입니다.

효봉 스님은 가야총림을 이끄실 때 해제철을 알뜰히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선지식을 만나면 법문을 청하고 회상을 열었습니다. 철없이 정진 또 정진하다가 일대사 마치는 그 순간이 바로 해제다라고 늘 말씀했습니다. 만공 스님은 집을 많이 지으셨는데 결제 중 스님들이 운력을 하면서 불평을 많이 했더랍니다. 그러나 정작 집이 완성되어 정진하기 좋게 되자 스님들이 게으름을 피우더랍니다. 운력 중에는 정진을 들먹이고 정진 때가 되자 졸고 앉아있는 대중을 보고 만공 스님이 손해 많이 봤다, 집이나 더 짓자 했다고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공부가 더 게을러지기 쉬운 게 사람 일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시고 다시 얼른 들어와서 우리 즐겁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만법으로 에우지 않는 자 누구리요?-불여만법위요자수(不與萬法圍繞者誰)

● '해제법어' 전문은 www.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모집 공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에서는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서 시대를 이끌어 갈 학인 스님을 배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방부바랍니다.

모집학과
치문과 ○○명, 사집과 ○명

준 비 물
가사(오조 대가사), 장삼, 발우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2. 승적사본(총무원발급)
3. 주민등록초본
4. 건강진단서(종합병원발급)
5. 은사스님 추천서(각 2부)
6. 사진4매(사미의제, 대가사 복장)
7. 입학금 : 20만원

전형방법
· 서류접수기간 :
1차 - 2005년 3월 29일 ~ 4월 5일 (음력 2월 20일 ~ 2월 27일)
2차 - 2005년 4월 13일 ~ 4월 18일 (음력 3월 5일 ~ 3월 10일)
· 서류심사 및 면접 : 서류접수 당일날

문 의 처
055)384-2035(지객스님, 원통방) · 055)383-2363(강원, 감로당)
055)382-7182(종무소 교무국)

불기 2549년 3월 일

영축총림 통도사 住持 怡山 玄門 · 講主 慧嚴 友眞

천년고찰 노고산 흥국사

불교교양대학 제4기 신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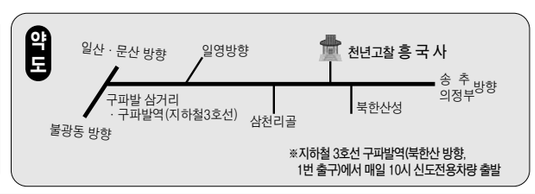
천년고찰 약사도량 흥국사에서는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 근본교리, 불자예절, 기도, 참선에 이르기까지 불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기본 내용을 4개월간 배우는 불교대학 제4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에 처음 입문한 불자님이나 오랫동안 절에 다녔더라도 교리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불교대학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모집대상 :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분
▶개강일시 : **2005년 3월 8일(화) 오전 11시 40분**
▶교육기간 : **2005년 3월 8일(화) ~ 6월 28일(화) 4개월 과정**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40분 ~ 오후 1시**
▶강 사 : 흥국사 주지(대오)
▶교 재 : 불교입문
▶특 강 : 매월 1회 - 여연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 차문화연구원 이사장), 한산스님(흥국사 상임대법사), 박완일 법사, 차차석 교수
▶수 강 료 : 4만원(교재비 포함)
▶문의 및 접수 : **02-381-7970 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약사기도도량 천년고찰 흥 국 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http://www.heungguksa.or.kr

주말 템플스테이 안내
흥국사에서는 매월 첫째 · 셋째주 토요일 오후4시부터 주말템플스테이를 개최합니다.(가족단위 동참 가능함)
· 일시 : 매월 첫째 · 셋째 토요일 오후 4시 ~ 일요일 오전 10시(1박2일)

약도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북한산 방향, 1번 출구)에서 매일 10시 신도전용차량 출발

'자비복지타운'에 보시금 기탁 이어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 장애인 시설 소쩍새마을(원장 성묵) 이 옮겨갈 '자비복지타운' 불사에 각 사찰과 불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제 귀신사 주지 무여 스님은 2월 17일 삼제기도 보시금 중 100만원을 기탁했다. 서울 은평구청 환경미화원 이명자(60)씨도 2월 12일 지난해 말에 받은 퇴직금 중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씨는 정기후원금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 자신의 교통사고 보상금 500만원을 보시한 적도 있을 만큼 소쩍새마을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온 불자다. (02)928-0750

김강진 기자

조계종에 지진 · 해일 구호성금 보내주신분(2월 17일~2월 24일)

연경스님외 510만원 안성청룡사 45만5000원 동전교환 38만790원 동화사 4126만원 보라매법당 100만원 반야사서은숙 23만원 대전북고교 15만6천원 탄허불교문화재단자광사 40만원 이상신 2만원 극락사 이종길 10만원 송미헌 20만원 무진법장사문순회 76만2700원 도선사 2000만원 (故)권오남 300만원 조희대 5만원 이승배 10만원 박미자 10만원 서울옥천암신도일동 156만6000원 봉선사 1101만원 다음카페백일스님따라잡기회원일동 60만원 청량사 150만원 망경암 20만원 불교텔레비전 1157만9500원

총 94,769,990원

조계종 재난구호 성금 총액(2004년 12월 28일~2005년 2월 24일): 1,742,052,052원(ARS 1,100건 5,500,000원 합산)

2005년 나눔 캠페인 '동참하세요'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노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통합을 위해 마련된 서울노인복지센터 '제4회 탑골인 겨울자원봉사학교' 참가자들이 2월 23일 경기도 화성 자제정사에 들러 앞마당 흙을 고르고 있는 모습.

세대차이? 봉사하며 극복하세요

'탑골인' 노인 · 청소년 45명 자제정사서 봉사

"할아버지, 추운데 장갑 끼고 일 하세요."

추운 날씨 속에서 경기도 화성 자제정사(이사장 묘희) 앞마당의 흙을 고르느라 열심히 삽을 놀리던 최형하(80) 할아버지에게 지혜(수도여고 2)가 목장갑을 껴준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락없이 가족관계로 보이는 이들은 사실 2월 22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끈끈한 정으로 뭉쳐 의지할 곳 없는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자제정사를 찾은 사람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과 청소년 세대의 통합을 위해 마련한 '제4회 탑골인(Top Goal 人) 겨울자원봉사학교' 참가자들이다.

22일 간단한 봉사 교육을 받은 노인과 청소년 45명에게 23일 하루, 적적하게 지내는 자제정사 할머니들과 함께보내라는 '임무'가 떨어졌다.

참가자들은 각각 조를 짜서 앞마당의 흙을 퍼다 공터에 내다버리는 울력을 하는 것은 물론 할머니들과 함께 노래자랑을 하고 말벗 상대가 되어 드리는 등 각자 맡은 바를 충실히 실행해냈다. 행사 중간중간 청소년들은 할머니들에게 안마를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봉사 노인들은 할머니 고향이 어딘지, 자식은 어떻게 지내는지 등을 이야기하며 손을 마주 잡기도 했다.

자제정사 할머니들로부터 "날마다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웬걸, 너무 기특하고 싹싹하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봉사'라는 공동과제를 부여받으니 어르신들과 말도 잘 통하게 되더라구요."

학생들과 함께 하니 어떠냐는 질문에 그냥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유종근(72) 할아버지와 정효진(관악고 1) 양의 만족스런 표정에서 탑골인 활동이 봉사는 물론 세대를 넘어선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증명됐다.

글 · 사진/화성=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시흥장애인복지관, 안산1대학과 산학협력

경기도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상호)은 2월 21일 인근 안산1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거행했다(사진).

이상호 관장은 "산학협력이 체결돼 복지관에서는 인력 수급 향상 효과를, 학교측에서는 복지 전문인 양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2월 22일 성북노인복지관 '할머니 삼총사'와 밀각심인당 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복지관 급식 준비대 앞에 섰다. 사진 오른쪽 3명이 '할머니 삼총사'(왼쪽부터 김봉례 · 김남희 · 김석봉 할머니).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 '할머니 삼총사'

"'삼총사' 없는 복지관 상상못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와요. 여기서 일하는 게 내 생활이니까요."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욱)에는 유명한 '할머니 삼총사'가 있다. 그 중 맏언니는 김석봉(75) 할머니. 밀각 · 탑조 심인당에서 자원봉사자가 10여명 몰려온 2월 22일에도 할머니의 식당 바닥 청소는 계속됐다.

자원봉사자 이끌며 8년째 급식 도맡아

또 한 쪽에서는 둘째 김봉례(72) 할머니가 길게 줄을 선 노인들에게 국을 퍼 주고 있고 주방에서는 막내 김남희(68) 할머니가 부엌 바닥을 물로 훔쳐내느라 분주하다.

이른바 '삼총사'라 불리는 이들 할머니들은 성북노인복지관이 건립된 98년, 회원으로 인연을 맺어 자원봉사를 해온 열혈 봉사자들이다. 복지관 회원이면서 회원 서비스 이용에 그치지 않고 다른 노인들을 위해 애쓰면서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복지관에서 매일 아침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하는 도시락 준비를 시작으로 이들 할머니들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서 이뤄지는 급식 봉사란 없다.

성북노인복지관 직원 유재월(49)씨는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관 식당 살림을 다 꾸려간다"며 김남희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식당 이용 노인들도 "늘 할머니들을 보게 되서 이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할 정도다.

"이러니 별 수 있나, 내일 또 나와야지."

'삼총사' 할머니들은 그저 밝게 웃으며 한마디 툭 던지고는 다시 쓸고 닦는 손길에 힘을 준다. 김강진 기자

▮후원해 주세요 - 성북구 '노인의 집'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성북구 지역 내 무의탁 저소득 노인 생활공간인 '노인의 집'을 2001년부터 성북구청으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성북노인복지관은 현재 안암동, 장위동, 정릉동 3곳에서 독거노인 19명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김봉례 할머니는 "가장 필요한 것은 약품이지만 무의탁 노인들에게는 생필품, 식료품 어느 것 하나 풍족한 것이 없어 무엇이든 불자들이 마음을 내 기탁해줬으면 한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후원문의 (02)929-7950~2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매 순 간 기 도 하 라

생활실천 기도도량 / 효행불교 · 선행불교

경기 화정 광 명 사



부처님을 따르고, 마음의 고통을 덜고, 자비행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광명사로 오십시오!

원하는 바 꼭 이룰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주지 대덕

광명사에서는 5시 새벽 예불 종을 울려 경기 화정 일대의 모든 이들을 위한 화평과 행복을 만들어가며 정성으로 중생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광명사는 초심자라도 편하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우리말 기도로 보현법사님이 직접 대면하여 문답을 통해 정성 기도로 이끌어 갑니다.

마음의 고통을 덜고 祈禱 - 行 - 報施가 하나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각자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부처님 곁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며 진솔한 예불을 통해 지혜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법사 보현

초심 불자라도
근기에 맞게 / 쉬운 한글 경전으로 / 발원 기도
원만 소원성취를 약속합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보현 기도법사님이 쓰신 「명상의 세계」 책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광명사 기도 법회 안내

광명사 기도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놓치지 않고 이어집니다.

- 회주 활안 큰스님 법문 / 매월 1.3주 일요일 오전 11시
- 자비참법기도 (5년 정진 중) 매주 화요일 광명사 동참
- 나한기도 (2년 정진 중) / 매주 금요일 광명사 동참

광명사 500나한 봉안 불사



◇ 지난 10개월간 130나한 봉안 (목아 박찬수님 작품) ◇

천작(天作)일까? 조인간상의 세계적인 위인상이요, 보살상이라. 화정 광명사에 나투신 5백나한 - 도심속의 나한도량으로 거듭나 근기와 정성에 따라 현세의 소원을 이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발원에 따라 엄청난 신통력을 보여 주십니다. 광명사 법당을 다녀간 불자들이 줄지어 신비한 꿈을 꾸고 기도 성취하며 많은 분들의 소구소망 이루는 것은 모두가 광명사 나한님의 원력이십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방문하셔서 세계제일의 나한님을 친견하시고 가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 명 사 회주 활안 · 주지 대덕 합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9-2 백양빌딩 7층 (화정역 근접) 전화 031-978-9782 / 011-493-1121

동명대학 사회복지과 참여불교캠퍼스 개강

전문성에 자격증까지 갖춘다

부산불교계 '일등' 봉사자들 24명 수강

2월 22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열린 동명대학(학장 박용수) 사회복지학과 참여불교캠퍼스(이하 참여불교캠퍼스)신입생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 현장.

3월 개강을 앞두고 열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비구, 비구니 스님들과 40~50대를 훌쩍 넘긴 우바새, 우바이 24명이 신입생으로 참석했다. 신입생들 대부분이 부산불교계의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활동가라는 점도 관심을 끌었다.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무아 스님,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불교봉사회를 이끌고 있는 박추자 회장, 부산시남구장애인협회 류경상 사무국장 등이 눈에 띄었다.

부산 교계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신입생으로 등록한 참여불교 캠퍼스는 참여불교운동본부(상임대표 혜총)가 불교계 최초로 문광부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불자 대상 무시험 전형 산업체 위탁교육기관이다. 올 3월 3일 개강하는 참여불교캠퍼스의 2년 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는 물론,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케어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다.

참여불교캠퍼스는 급성장한 불교 복지 분야에 투입될 불자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에서 복지활동을 펴는 불자들에게 전문성과 자격증까지 갖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단 이틀 만에 접수가 마감됐을 정도.

정규 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참여불교캠퍼스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이들에겐 이론적 기반과 자격증을, 전문 복지 기법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겐 실습을 통한 현장 감각을 익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기대감을 반영하듯 자원봉사단체 운영자, 병원, 군법당 자원봉사자 등 실무자와 청량사, 문수사, 낙은사 등 복지관 운영에 뜻을 두고 있는 사찰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2004년 8월 조인식을 갖고 첫 신입생을 모집한 참여불교캠퍼스의 탄생은 동명대학과 불교와의 각별한 인연에서 비롯됐다. 부산불교신도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동명불원을 설립한 강석진 거사의 깊은 신심이 불교 인재 양성의 초석이 된 것이다.

불자가 세운 학교에서 불교 복지 전문인력 양성의 길이 열리자 조계종도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복지학과에서 배출되는 인력으로는 500여 개가 넘는 불교계 복지기관에 충당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참여불교운동본부 상임대표 혜총 스님(부산 감로사 주지)은 "동명대학 사회복지학과 참여불교캠퍼스가 한국불교 어린이 · 노인복지 인재 양성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322-7902

부산=천미희 기자

광주·전남 평불연 거리모금 성황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상임대표 행법, 이하 불교연대)가 펼치고 있는 '북한 어린이 돕기' 거리모금이 매서운 겨울 한파 속에도 계속되고 있어 이달 중으로 3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03년 5월부터 시작된 북한어린이 돕기 모금은 2월 25일 현재 총 2930여만 원으로 순수하게 회원들이 거리모금을 통해 적립된 기금이어서 주위를 놀라게 했다.

불교연대의 거리모금은 무등산 문빈정사 앞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며 등산객을 대상으로 하루 30~70만원 모금하고 있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열리고 있는 무등산 거리모금은 2월 20일 89차 모금에도 겨울눈이 내리는 가운데 행법 스님을 비롯해 12명의 회원이 나와 모금활동을 펼쳤다.

이준엽 기자

광주 생명나눔 '사랑의 휠체어' 전달

사랑의 휠체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 지역본부(본부장 현장)는 2월 22일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2차 전달식을 가졌다.

휠체어는 아름다운 나눔의 집 5호점 들국화(대표 김유성)의 후원으로 골육종으로 투병중인 정찬호(8)군에게 지원된다.

정군은 현재 항암 치료 중이며 뼈를 잘라내고 암세포를 제거해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해야하는 등 2년이 넘는 힘든 치료를 해야 한다.

이준엽 기자

크리스토퍼 힐 주한 美대사 범어사서 발우공양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가 2월 23일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를 찾아 대웅전에 참배하고 발우공양 등 전통불교문화 체험을 했다. 크리스토퍼 힐 주한 대사는 불교체험 중에서도 스님들과 함께 한 전통적인 발우공양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인상적인 식사였다. 매우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행한 페트리사 힐 대사 부인 역시 "발우공양이 깨어있는, 마음을 챙기며 하는 매우 아름다운 식사법"이라고 감탄했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문화 답사 학과 개설 (3년과정)

1. 교 과 목
- 한국불교문화 I (불교미술중심)
- 한국불교문화 I (지역별전통문화)
- 한국불교문화II (인물, 사상, 신앙)
- 한국유교문화 I (궁궐, 서원, 종묘)
- 해외불교유적 I (중국, 티벳, 일본)
- 해외불교유적II (인도, 파기스탄, 동남아시아)

2. 교 수 진
- 김상현교수(동국대) · 김상영교수(승가대)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김방용(원광대교수)
- 남성훈교수(전 전남대)

3. 개 강
2005년 3월 9일(수) 오후7시(매주수요일)

4. 불교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대한 전문 교육과 매월 현장답사교육으로 불교 및 전통문화 해설사 양성을 목표함.

티베트 문법, 강독개설 (1년과정)

1. 동산불교부설어학원에서는 부처님의 경전에 대한 보다 깊은 학습을 위해 새로이 인도 • 티벳어 원전 강독반을 개설합니다.



최종남교수(승가대)

2. 교 과 목

티벳트어강독 (2005년)	티벳트어 : 티벳트어문법 • 티벳트어 강독
산스크리어강독 (2006년)	산스크리트어 : 산스크리트문법 • 산스크리트어 강독
팔리어 강독 (2007년)	팔리어 : 팔리어문법 • 아함경 강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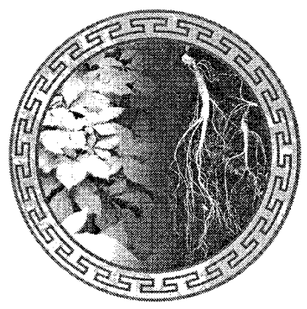
3. 개 강
2005년 3월 14일(월) 오후7시 (매주월요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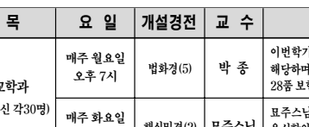
광주대학교 식물과학연구소 ·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연풍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직영 농장인 포천, 영월, 홍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묘목재배, 수확에 이르는 원료 생산과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원톱시스템을 갖춘 믿을수 있는 제품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오가피

나무 산삼으로 일궐어지는 국내산 토종오가피와 하늘이 준 선물 천종 산삼원근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으로 제조한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 LTD.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 3년과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불교학과 2년과정 : 2005년 현재접수중

과 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정규반 (토요일 오후 6시) · 주간반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불교 한문학과 3년과정: 2005년 3월 10일(목) 오후7시개강

과 목	· 한문설문해자(1), 한문설문해자(2) · 한문법(1), 한문법(2) · 육조단경(1), 육조단경(2) · 금강경(1), 금강경(2) · 역경(1), 역경(2) · 장자(1), 장자(2)	정규반
교수진	· 황안웅교수(원광대) · 김형중 (동대부고 교법사) · 심재동교수(동국대), 활안스님 · 송찬우교수(승가대)	통신반

불교 다도학과 3년과정 : 2005년 3월 8일(화) 오후2시개강

교과목	· 차문화사(한국, 중국, 일본, 유럽) · 제다학(1),(2),(3) · 심평 · 한국의헌다례 · 사찰다도법 · 다도선 · 차수행법 I · 차수행법II
지도교수	· 이귀례 교장선생님 / 선혜스님 / 박희준교수 / 박전열교수 적경스님 / 지운스님

불교 미술학과 3년과정 : 2005년 3월 9일(수) 오후2시개강

이론 실기	· 단청이론, 실기 · 기초 선긋기 · 불화이론, 실기 · 사왕초, 보살초, 여래초그리기 · 사불이론, 실기
지도교수	· 윤열수교수(문화재전문위원) · 법인스님(한국사불수행연구회 원장) · 김익홍교수(전 동국대)

불교 장례문화학과 2년과정 : 2005년 3월 8일(화) 오후7시개강

교과목	· 장례학개론 · 상장례민속학 · 종교의례 · 장례역사 · 불교의례실습 · 보건법규 · 불교환경론 · 장묘제도론 · 사회복지개론 · 장례경영론 · 임종론 · 불교상,장례문화이해 · 실습 · 견학 등
지도교수	· 김일무 교수 외

불교 문화답사학과 3년과정 : 2005년 3월 9일(수) 오후7시개강

이론 실기	· 한국불교문화 I (불교미술중심) · 한국전통문화 I (지역별전통문화) · 한국불교문화II (인물,사상,신앙) · 해외불교유적 I (중국,티벳,일본) · 한국유교문화 I (궁궐,서원,종묘) · 해외불교유적II (인도,파키스탄,동남아시아)
지도교수	· 김상현교수(동국대) · 김상영교수(승가대)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김방용(원광대교수)

● 본 대학 사무국 :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2005년도 불교지도자고정 (3년과정)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과 목	요 일	개설경전	교 수	내 용
불교학과 (정규, 통신 각30명)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법화경(5)	박 종	이번학기 강좌는 법화경 5학기에 해당하며, 제21품 여래신력품에서 28품 보현보살 권발품까지 강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해심밀경(2)	묘주스님	묘주스님이 강의하는 해심밀경은 유식학의 소의 경전으로 우리 마음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능업경학과 (주간, 통신 각20명)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능업경 보경소(7)	송찬우	대승수행경의 꽃인 능업경은 이제 7권째 강의중이며 관세음 이근원통의 수행원리와 능업주의 묘용을 강의한다.
근본불교학과 (주간, 통신 각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근본불교 (아라한과 열반)	최봉수	근본불교의 수행사제인 9차 제정의 마지막 단계인 아라한과와 열반에 대해 공부한다.

지원자격	제출서류	강의일시 및 장소
•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불교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능업경)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근본불교)

3. 개강일시 불 교 학 과 2005년 3월 7일(월) 오후 7시
능 업 경 학 과 2005년 3월 8일(화) 오후 2시
근본불교학과 2005년 3월 10일(목) 오후 4시

4. 졸업자격 3년과정의 부처님 법음가득찬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을 수여함.

5. 원서 문의 교부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2005년도 (2년과정) 도시생활 포교를 위한

불교한글의식교육원

● 정규과정(2년)

실습편: 문종순법사	이론편: 심만춘스님
전통과 한글 의식 작법 실습과 이론 • 천도의식	

● 주,야간과정(2년)

지도법사 : 양성도(야간), 문종순(주간)
예경의식 • 헌공의식 • 법회의식 • 시다림

● 바라과정(2년)

지도법사 : 인각스님
요잡바라 • 천수바라 • 나비춤 교육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30명(2년) • 바라반 20명(2년) • 주 • 야간반20명(2년)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 매주 토요일(정규반)오후 1:00 ~ 5:00 • 매주 금요일(바라반)오후 3:00 • 매주 목요일(주간반)오후 12:30 • 매주 수요일(야간반)오후 7:00

3. 개강일시 · 토 요 반 : 3월 12일(토) 오후 1시
· 수요야간반 : 3월 9일(수) 오후 7시
· 목요주간반 : 3월 10일(목) 오후 12시30분
· 바 라 반 : 3월 11일(금) 오후 3시

4.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5. 특 전 교육원 과정 수료자는 동산불교의식법사 수여

법사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경전대학원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경북 청도·고령·성주

감·딸기·참외 닮은 불심 '풍년'

청도, 고령, 성주는 경북 남서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지만 청도가 감으로 유명하고, 고령은 딸기, 성주는 참외로 짭짤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듯 모두 특색있는 불교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불교현황을 보면 맑은 물과 푸른 산을 자랑하는 청도는 골골이 수많은 사찰이 들어서 있는 반면 성주와 고령은 그 수가 많지 않다. 특히 고령은 인구가 적고 정법을 홍포하는 사찰수도 적다. 사암연합회 활동은 청도, 성주가 모두 조계종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고령은 사암연합회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도

경북의 최남단, 물이 맑고 산이 푸른 청도에는 100여개가 넘는 사암이 들어서 있고, 인구 5만 중에 약 70~80%가 불자라고 할 만큼 불교세가 강하다. 그러나 지역인구의 5분의 1이상이 65세 이상의 노년층인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보니 정법보다는 샤머니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설사암이 많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26개의 조계종 사찰을 중심으로 한 청도사암연합회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정법홍포에 앞장서고 종단 종파를 초월한 연합활동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 청도 불교의 미래는 밝다.

특히 청도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비구니 강원인 운문사를 비롯한 많은 비구니 사암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운문사 산내암자인 북대암(주지 법춘)은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에, 용산사(주지 도명)는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그 외 적천사(주지 덕현), 신둔사(주지 묵암), 대운암(주지 지자), 덕사(주지 연암), 대응사(주지 석호)의 젊은 비구스님들이 청도불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기대감이 넘쳐나고 있다.

적천사는 전통사찰 가람복원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사생대회, 청도역 앞에서의 동지팥죽만발공양, 은행나무 별빛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이면서 지역민들 깊이 파고들고 있고, 대응사도 주부 불교대학, 어린이법회를 통해 지역불교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 지난해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새로 개설한 불교대학은 지역불자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있고, 향토 지역 연예인과 판소리 명창 등을 초청해 펼친 대규모 초파일 기념 문화행사는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사암연합회는 이제 지역복지사업을 통해 더욱 지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청도에는 사암연합회와 별개로 지역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는 곳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지난해 8월 청도군청 앞에 들어선 불교회관(관장 김형수)이다. 도솔사 원타 스님의 지도아래 개관한 불교회관은 기초교리, 요가, 어린이 시조, 등 다양한 생활불교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고, 지역에서 유일한 소년소녀 불교 합창단을 창단했다.

그 외 청도에는 사암연합회 차원의 반야합창단이 5년째 활동하고 있고, 군청공무원 불자회가 2003년에 대응사에서 산사음악회 주최하고, 초파일 연합행사, 적천사 음악회, 청도역앞 팥죽만발공양 후원 등의 행사가 이어지는 등 활발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그 외 경찰청불자회인 청불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자비회의 활동도 활발하다.

고령

대가야의 옛 도읍지 고령은 우리나라에서 울릉도 다음으로 작은 지역으로 인구 4만에 사찰 수도 적은 편이다. 그나마 대부분이 기복적인 성격이 짙은 사설사암이고, 고령을 대표하는 사찰로는 전통사찰인 반룡사와 고령읍내 관음사가 고작이다.

반룡사는 최근 10년 사이 시민선방 등 수행공간으로 활용할 모든 도량정비를 마쳤으나 산간 농촌지역이다 보니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래도 신도회, 심우회(남 불자모임) 지장회(여 불자모임)의 활동은 큰 힘이 된다. 지난달에는 일일찻집을 운영해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 돕기에 나서기도 했다.

고령읍내에 위치한 관음사는 선재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합창단, 청년회, 자모회까지 구성해 대외적 활동을 도맡아 하면서 지역불교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활동이 무척 외롭고 힘겹다. 99년, 지역 28개 사암을 연합하는 사암연합회 결성을 시도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해 힘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다, IMF 이후 최악을 치닫고 있는 지역 경제는 사설사암들을 연이어 쓰러뜨렸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지역에서는 제일 크고 운영상태가 양호한 선재유치원이 체면을 유지하고 있고, 매년 열리는 초파일 행사도 지역읍내 초등학교를 빌리고 지역 기관장을 초청해 여법히 진행해 왔다. 또, 성탄절 부활절에 타 종교단체 방문도 잊지 않는다.

성주

고령이 사암연합회 결성조차 힘든 반면 성산가야의 옛터전인 성주는 이미 20년 전부터 종단을 초월한 20여개의 사암이 모여 사암연합회를 결성하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2003년 종단 간의 유대가 약해지면서 사실상 와해됐고, 이에 12개의 조계종사찰들이 2003년 11월 조계종사원주지연합회를 새로 결성했다. 현재 타 종단 사설사암들은 대외적 활동 여력이 미약한 상태. 반면 조계종사원주지연합회는 틀을 잡은 후 종단을 불문하고 연합회 가입을 원하는 사찰은 받아들여 함께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원주지연합회는 감응사 선봉, 관운사 지산, 대흥사 선철 스님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선석사 선문 스님을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역할을 분담해 지역불교발전에 나서고 있다.

사찰별로는 읍내 관운사가 청소년 어린이 포교활성화를 담당하고 대흥사는 지역 노인복지시설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세종대왕 태실을 수호하는 전통사찰인 선석사는 새로운 장묘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관운사는 현재 사찰 앞에 700평 대지를 준비하고 조만간 어린이회관을 지을 예정이고, 대흥사는 이미 5년 전부터 경내 30여명의 불우노인을 보살피고 있다.

그러나 선석사는 전통사찰로 당장 새로운 장묘문화 홍보가 어려운 상태. 선석사는 대신 사원주지연합회 차원에서 읍내 35평의 노인복지센터를 마련하고 화 수요일 노인경노식당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지역 36명의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밑반찬 배달에 나섰다.

노인 복지센터 운영에는 2003년 개설한 선석사 기초교리교양대학을 나온 지역불자들이 주축이 되서 결성된 이웃과하나 봉사단이 바쁜 농촌일도 미루고 나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청도 · 고령 · 성주=배지선 기자


청도 적천사 신도들이 지난 동짓날 청도역 앞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팥죽 포교'를 벌였다.

청도 운문사·시내 불교회관 중심 신행활동 왕성

고령 반룡사 시민선방·관음사 신행활동 모범

성주 사원주지연합회 역할분담 포교효과 커


성주 조계종사원주지연합회가 운영하는 '이웃과하나 노인복지센터'는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등 지역복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밑반찬을 준비하는 모습.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생산·호국불교 기틀 다져

일우 스님 (청도 보현사 주지 · 태고종 원로회의장)



1952년 폐허가 된 일본인 절을 중창하고 오늘의 보현사로 만든 일우 스님은 청도 지역불교의 산 역사다. 전쟁이 끝나고 가난했던 시절, 생산 불교를 하겠다고 과수나무를 심었던 이야기며, 전쟁으로 죽은 수많은 영가를 위해 극장을 빌려 호국 천불탑을 조성한 이야기까지 끝이 없다.

스님은 또 85년부터는 2000여 평의 부지에 납골당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최초 납골시설을 운영하기도 했다. 보현사는 올해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보현사도량을 공원화하여 지역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어린이불교회관 건립 계획

지산 스님 (성주 관운사 주지 · 성주 조계종사원주지연합회 고문)



지산 스님은 포교 원력을 세우고 성주에 온지 40여년이 넘은 성주터줏대감이다. 향토예비군 향승 법사, 민방위정신교육강사 여름겨울 한문 교실 등을 통해 지역민을 찾아다니며 포교 기반을 넓혔다.

20년 전 사암연합회를 결성하고 지역불교 발전에 매진해 왔다.

스님은 최근 신라 애장왕 3년 해인사와 쌍벽을 이룰 만큼 컸던 법수사 터의 내력을 밝히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스님은 관련자료를 모으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느라 분주하다. 또 IMF 이전 개최했던 가야문화제를 성주문화행사로 복원하고, 어린이불교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20년간 46가지 불사 이뤄

명성 스님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장 ·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운문사의 3대 역점 사업이 도제양성, 포교, 역경사업입니다. 포교와 역경을 위해 도제양성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환경이 또 중요하지요."

우리나라 최대 비구니강원 학장이면서 조계종 전 비구니를 대표하는 큰 어른 명성 스님은 1977년부터 1998년까지 운문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46가지에 달하는 불사를 통해 오늘의 운문사를 만들었다. 또 화원교도소, 경북대학교 강의 등 지역포교에도 앞장을 섰다. 이제 명성 스님의 뒤를 이어 주지 흥륜 스님이 가람수호에 나섰고, 어린이 포교를 위한 수련원과 학인들을 위한 체육관 건립을 발원하고 있다.

불자위해 수행공간 개방

진담 스님 (고령 반룡사 주지)



잘 정돈된 도량과 파일 하나 서류 하나 있을 곳에 놓여있는 정갈함에 스님의 수행력이 돋보인다. 반룡사에 온지 4년 된 진담 스님은 홈페이지 개설, 기본교육과 시민선원 개원 등을 통해 수행도량으로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워낙 인구수가 적은 산골농촌지역인데다 바로 인근에 해인사가 있기 때문에 성과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는다. 한달에 한번 열리는 교리강좌와 둘째 주말 철야정진법회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불교방송이 불교문화체험 장소로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스님은 반룡사가 많은 불자들의 수행에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랐다.

산사음악회로 지역민 화합

선문 스님 (고령 선석사 주지 · 성주 조계종사원주지연합회장)



선문 스님은 선석사에 온지 2년 남짓. 조계종 사원주지 연합회 회장을 맡아 노인복지센터를 여는데 앞장서면서 성주불교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초교리교양대학을 개설하는 가하면 축대를 쌓고 계단을 새로 놓는 등 옛 전통사찰 모습을 복원하는데도 열심이다. 지난 10월 산사음악회에 이어 올 봄에 2회 음악회를 구상중인 스님은 "사회에서 찌든 마음을 풀고 갈 수 있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끝없는 새싹포교 원력

도명 스님 (청도 용산사 주지 · 연꽃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 포교를 위해 운문사강원에서 포교부 활동을 했던 도명 스님은 대구산업전문대학에서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99년에는 대구산업정보대학 유아교육과를 전공했다. 스님이 운영하는 연꽃어린이집은 청도에서 인기가 높다. 스님은 어린이들에게 종교적인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도와 사물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것을 습득하도록 유도할 뿐. 스님은 청소년 포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도량정비하며 지역 '지킴이'

지선 스님 (고령 관음사 주지)

선임 주지 스님들이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가버린 데 반해 지선 스님은 부임한지 7년째 관음사를 지키며 고령 불교의 중심을 세우고 있다.



특히 초파일 행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고령불교의 대외적 행사는 단독으로 준비하느라 힘겹다. 게다가 비가 새고 낙후된 도량 정비도 시급한 상황. 담장과 문 법당 보수를 마친 스님은 일주문 옆에 어색하게 자리하고 있는 요사채를 정리하고 누각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폐직전 사찰 일신

대륜 스님 (청도 대비사 주지 · 청도사암연합회 재무)



신라 진흥왕대에 세워진 오갑사 중 하나인 대비사가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 것이 안타까워 5년 전에 들어 온 대륜 스님은 가람 정비와 복원에 많은 정성을 쏟았다. 또 사암연합회 재무소임을 보면서 청도불교의 보물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도로를 정비하고 가로수를 심어 도량입구를 가꾸고 부도전을 옮겨 지역민들의 작은 공원으로 개방할 계획인 스님은 "대비사의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민들이 왔다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진리에 순화되어 돌아갈 수 있는 도량으로 꾸미고 싶다"고 말했다.

삶과 자연의 조화 강조

법만 스님 (청도 불령사 주지 · 청도사암연합회장)

불국사 승가대학 학인시절부터 포교사로 활동했던 스님은 평생을 포교 원력으로 살았다. 원력이 있는 곳에 길이 따른다는 말로 불령사의 생활을 대변한 법만 스님은 2001년 7월 불령사에 들어와 포교역량을 발휘해 2002년과 2003년 청도 봉축위원장과 사암연합회회장을 맡게 됐다. 사람과 자연, 사물과 자연의 이치와 조화를 강조하는 스님은 "청도지역 신도층의 노령화로 제대로 포교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문화행사 다양하게 기획

덕현 스님 (청도 적천사 주지 · 청도 사암연합회 총무)



"2003년 6월 적천사로 부임해 올 때 수행자로서의 모든 상을 버렸습니다."

대중 수행정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람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 덕현 스님은 가람수호와 각종 불교문화행사를 통한 포교활동에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불교가 융성했던 옛 가람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도량배치설계도를 준비하고 있는 스님은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꼽았다.

믿음·정진 앞장선 '이끔이'

최성문 거사 (청도군청 공무원불자회장)



청도군청 공무원불자회 최성문 회장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회원들의 정진이 불자회 최고 과제라고 말했다. 2001년 9월 8명의 불자들이 모여 시작한 공무원불자회는 이제 6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한다. 군청홈페이지내 동호회 방에는 오늘도 "자각하는 삶, 마음챙김 템플스테이"등 서로의 마음을 챙기고 격려하는 도반들의 글이 올라와 있다.

원효사 불교교리 무 료 강 좌

◎ 불교에 관심 있으신 분 누구나 참여가능

◎ 기초교리, 경전 및 중 · 고등 천자문,
신앙상담(무료)수지침, 사열침(3 ~ 6개월 과정)

◎ **강 사 진** : 원각 큰스님, 고산 법사, 초청강사

◎ **개강일시** : 을유년 첫 개강일 3월 18일 (금)
매일 오전 11시부터

◎ **특 전** : 본 강좌 수료 후 포교사 응시자격 부여

초청특별강의 : 박 완 일
(동국대 교수, 전 불교신도회장)

대한불교 조계종 원효불교대학. 원효사

주지 · 학장 **석 원 각** 합장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4동 248의 6
(대구호텔 옆 삼원신협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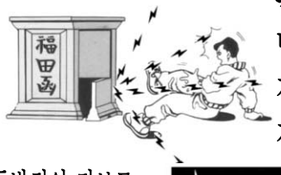
따르릉 053)563-9154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퇴마승

영 험 도 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짓은 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등등이 마음에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 합니다.

영 가	빙 의 현 상 (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유산,자연)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오랜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시고 찾아오십시요. 빙의현상, 가정우환, 기타 깨끗이 치료됩니다.

야후검색창에 **해원사** 라고 치세요

해 원 사
초하루, 18일 지장재일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신비의 침술 대공개

만성두통, 견항통, 어깨결림, 구안와사, 이명, 해수천식, 아토피피부병, 요통, 좌골신경통(디스크), 척추측만증, 다리저림, 무릅관절통, 치질, 만성체증 등 비결침술로 단 3회 시술 완치시키는 비방(한국, 중국, 일본, 몽고 등 대침술가에게 30여년 동안 공부한) 비법을 공개함.

※ **중풍, 소아마비, 간경화, 각종 암 등은 별도 상담.**

비 법 강 좌

※ 선착순 10명, 숙식제공

- 일 시 : 3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 3월 6일 일요일까지 교육
- 보시금 : 50만원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천제 불국사 의성스님

- 오시는 길 : 공주시에서 청양가는 길 13km 오셔서 공수원 3거리 하차

초보자 누구라도 7시간만 배우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전화 016-663-2159, 041-855-7114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쪼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쪼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쪼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쪼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T,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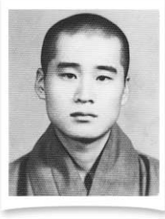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빕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나,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절재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의 지중한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효한 치료법**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아알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의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없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꼭 한번 래원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
TEL. 031)376-2748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을유년 새해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지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과일의 왕 **두리안**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관상학. 기문둔갑

사찰, 법당, 앰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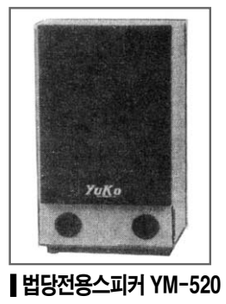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생방 세계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훨훨 날아라 자유 세계로…

조계사 대중, 직지사에서 생태방생하던 날

밀렵에서 구조된 부엉이, 독수리 등 30수 방사
'죽게 된것 구제' 통해 생명존중 배우는 계기 돼



'왜 쏘았을까? 내가 무엇을 그들에게 잘못한 것일까?

'탕' 소리에 아득한 정신으로 꼬꾸라진 채 정신을 잃었던 모양이다. 눈을 뜨고 보니 낯선 인간이 이리저리 내 몸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몇 주가 지났을까? 나는 이름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산사 한 가운데 놓였다. 지난해 옆산 수리부엉이가 말하던 인간들의 '방생'이라는 의식에 내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내게 총부리를 겨눈 그들도 내생에 나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을까?'

(수리부엉이 생각)

대형 버스 35대를 나눠 탄 조계사 신도가 음력 정월보름 다음날인 2월 24일, 동안거 해제 방생을 위해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 도착했다. 대웅전 앞을 가득 메운 신도들은 헌공시작을 알리는 기도스님의 음성에 따라 "정구업진언~"으로 시작되는 '염불장엄'을 시작했다. 1500여 대중이 한 입으로 부르는 장엄한 염불소리는 잔설에 뒤덮여 하얀 속살을 그대로 드러낸 황악산을 감돌아 오른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전북지회 남형우 지회장의 익숙한 진행에 따라 이날 방생될 날짐승들이 대웅전 마당에 가지런히 놓여졌다. 긴장한 탓인지, 움추린 몸뚱이 위로 깃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올해로 벌서 5년째인 조계사의 생태방생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의 전주, 대구, 안동, 경주 등 각지부에서 구조된 조류를 한데 모아 방사하는 것. 방생될 새들은 주로 밀렵꾼들에 의해 관통상이나 골절상을 입은 놈들이 대부분이다. 밀렵꾼들의 총에 부상당한 새들은 1~3개월 가량 치료기간을 거친 뒤 일년에 두 번, 조계사 신도들에 의해 본래 살던 숲으로 되돌아간다. 생태방생은 '산 것을 놓아주고 죽게 된 것을 구제한다'는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생과는 차별화 된 점이 특징이다. 이날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 5마리와 독수리(243호) 1마리, 말똥가리 2마리, 큰소쩍새(324호) 1마리, 야생 꿩 20마리 등 총 30수의 날짐승들이 방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단공양과 축원을 마친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한 대중들은 본격적인 방생을 위해 대웅전 앞에서 한 줄로 늘어서기 시작했다. 한쪽에 비켜선 박혜명심 보살은 생각보다 큰 몸집의 수리부엉이를 보자 짐짓 놀라는 눈치다.

"난 조그만 걸로 줘요." 박 보살의 볼멘 소리에 모두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비록, 잠시 다친 몸을 인간에게 의지하긴 했지만 야생의 본능을 가진 맹금류라는 사실에 조금은 겁이 났던 모양이다. 원담 스님은 수리부엉이를 놓칠세라 양 날개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옆에 서있던 신도회장 이대각심 보살은 끔벅거리는 수리부엉이의 큰 눈을 들여다보며 연신 뭐라고 중얼 거렸다. 나중에 이 보살은 "수리부엉이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하고 인사를 하기에, 괜찮다, 괜찮다, 두 번 다시는 다치지 않고 잘살라고 얘기 해주었다"고 말해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방생에 앞서 포교국장 재경 스님이 새들을 위해 축원해 주었다.

"이제 바야흐로 너희들을 풀어주노니 오늘 맺은 불종자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다시는 질곡에 걸리지 말고, 이 목숨 마친 뒤에 극락세계 아미타불 곁에 상품상생하여라!"

이어, 일제히 법회를 진행하던 스님과 신도들이 "불! 법! 승!" 삼보를 외쳤다.

"와~"하는 함성과 함께 날짐승들은 커다란 나래를 쭉 펼치고 힘차게 공중을 향해 날아올랐다. 개중에 몇몇은 아직 날아갈 준비가 덜됐는지 금세 마당에 내려앉기도 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날아올랐다. 마지막으로 방생한 독수리는 역시 새의 왕이라 할 만큼 크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날아올라 지켜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남형우 지회장은 "총상과 약물중독 신고로 들여오는 날짐승은 전주지회에서만 연간 600여수에 달한다. 밀렵꾼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방아쇠를 당기지만, 이들에게는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다.

자신의 목숨이 귀하듯 말 못하는 짐승들의 목숨 역시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며 안타까워했다.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불자들 모두가 모든 죄업 가운데 살생의 죄업이 가장 중하고, 모든 공덕 중에 방생이 제일이라는 <대지도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것"을 당부했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도 "방생은 살생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려주는 적극적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방생의 참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조계사 방생법회는 동안거 동안 천도된 '시방법계유주무주영가'들과 '남아시아강진해일희생영가'들을 위로하는 제사, 소전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방생은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이 반영된 안거의 마지막 날, 가장 적극적인 생명살림의 현장이었다.

직지사=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 달라지는 방생문화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이면 많은 사찰이 방생을 떠난다. 방생은 죽음에 직면한 살아있는 생명을 놓아주는 본래 의미와는 달리, 한동안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을 무분별하게 놓아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얼마 전까지도 방생철만 되면 각 언론과 환경단체들은 방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사찰을 중심으로 방생이 원래 취지를 살리는 행사로 바뀌어가는 추세다. 특히 '인간방생'이 부각되고 있는 근간의 흐름은 눈여겨볼만하다. 이를 통해 많은 사찰과 단체들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북한동포, 해외난민 등 어려운 이웃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생태계 교란 비난 속 자제
야생동물·인간방생 등 호평

야생동물협회로부터 협조를 받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야생동물 방생도 새롭게 등장했다. 보은 법주사와 서울 조계사 등이 각각 사슴과 조류를 방생해 호평을 받으면서 달라진 방생문화를 실감케 한다. 강 등에서 벌이던 물고기방생이 고작이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방생 형태의 변화는 정월대보름에 맞춰 실시하던 전통도 변모시키고 있다. '인간방생'의 경우 포교와 맞물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인 후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는 방생이 단지 죽어가는 목숨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과 굶주림에 고통 받는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모든 행위로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봉영 기자



조계사는 2월24일 한국 야생동물보호협회와 공동으로 밀렵꾼들에 의해 상처입은 수리부엉이 등 야생조류 30여수를 직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방생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산사 순례 및 대련 관광/정주로 이동
2 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철탑, 포공사 관광
3 일	전용버스	소림사, 탑림, 백마사 순례
4 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5 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응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천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 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 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 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 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행자교육원 설립 · 교구 활성화 추진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 스님 신년 인터뷰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지난해 말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종정에 무구 스님이 추대되면서 흐트러졌던 종단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종단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국 500여 사찰에 408명 스님과 100여 법사들이 활동 중인 본원종은 현재 스님들의 기초교육을 담당할 행자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종단운영은 어떠했는지요.

-본원종은 1989년 창종 이래로 화합을 중시하는 종단입니다. 지난 한해 본원종은 종도 모두가 화합된 가운데 종단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종회에서 만장일치로 무구 스님을 종정에 추대했으며 총무원 청사 앞 사리탑 건립, 수륙대재 등 각종 활동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은?

-행자교육 담당기관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간 재정과 강사 확보가 어려워 이를 미뤄두었습니다. 종정에 추대된 무구 스님이 무엇보다 이일을 성취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종도들도 이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교육과 스님교육을 담당한 기관을 건립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종단 환경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차근차근 추진하다보면 좋은 인연을 만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4대 명절 기념법회, 천도법회, 종도연수교육, 삼동안거 결제 등도 신년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4대 명절 기념 법회 · 종도연수교육 추진

▲종단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은?

-안정적 종단운영을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매해 음력 3월 삼짓날(4월 11일) 충주댐에서 남북평화 통일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방생 및 수륙고혼천도법회를 치르는 것 외에는 뚜렷한 사업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올해에는 종단 운영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활성화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도마다 교구가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인 포교활동을 하는 곳이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비교적 활발히 움직이는 부산교구와 종무원장 지유 스님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해 종단 포교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할 생각입니다.

▲신도회 활성화도 시급한데요.

-본원종 총신도회는 신장호 회장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1년 1차례 이상의 신도교육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신도회를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신도회장도 종단과 신도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올해에는 사찰 신도회 단위로 다양한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총무원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신도 모두가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종단 발전에 관심을 갖다보면 신도회의 결속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최고의 강백들 … 최고의 강의 기대"

2기 불교서울전문강당 개강하는 청화 스님



"최고급 교학전문과정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종단의 존경받는 강백 스님들을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월 7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리는 제2기 불교서울전문강당(이하 전문강당) 개강을 앞두고 있는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전문강당 운영위원장 · 사진).

스님은 올해 지관 · 무비 · 종범 · 우룡 스님 등 종단 최고 강백스님을 교수사로 초빙하는 등 강당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은 "단순히 경을 해석하는 수준의 강의가 아니라 2기 교수사 스님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륜과 교학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바탕으로 정수를 전해줄 것"이라며 "120염의 2기 수강생들도 교학의 큰 줄기와 흐름을 새롭게 이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화 스님은 "그동안 불교서울전문강당은 기존의 전통강원의 교과목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서, 고급 승가재교육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어 위상이 혼란스러웠다"며 "전문강당을 승가교육체계 속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금의 명성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높은 강의 수준과 학사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2월 20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열린 신규 포교사 품수식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포교사에게 품수하고 있다.

조계종 새 포교사 384명 품수식

조계종 제10회 포교사 연수 및 품수식이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포교부장 일관, 포교국장 선응,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 등을 비롯한 습의사 스님 , 양성홍 포교사단장, 연수진행 포교사 30명과 신규포교사 연수생 38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8~20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봉행됐다.

3일간 진행된 신규포교사 연수는 △포교사의 자세와 역할(일관 스님) △포교사의 올바른 포교활동(선응 스님) △종단의 이해(원철 스님) △포교 종책의 이해(포교연구실) △포교사단의 이해(양성홍 단장) △찬불가와 요가(포교사단) △예불대참회문(습의사) 등의 강의와 철야정진으로 이뤄졌다. 포교사 품수에 앞서 포교사로서의 마음가짐과 자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20일 열린 품수식에서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뜻과 문장이 훌륭한 법을 설하라는 부처님의 전도선언(傳道宣言)처럼 부루나존자의 후예로서 항상 계(戒)를 스승으로 삼아 포교사들은 전법의 길 위에 당당히 서라"고 법문했다.

384명의 신규포교사 대표로 나선 정목희 포교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구도자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교단을 외호하며 이웃의 안심과 행복을 위해 불법을 홍포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스리랑카서 지진해일 희생영가 천도재

태고종, 재해발생 100일인 4월 12일 열기로

태고종이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지역인 스리랑카에서 재해발생 100일째인 4월 12일경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국가 위문 및 희생자 천도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이번 희생자 천도 영산대재는 대재앙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국가의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 남방불교국가와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태고종은 법회를 앞두고 2900여 사찰을 대상으로 식량, 의약품, 의류, 신발, 학용품 등 구호물품과 성금을 접수하고 있다.

태고종 사회부장 백운 스님은 "대재앙 발생 100일을 전후로 하여 스님과 신도들이 스리랑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로하고 희생자의 영령을 천도하기 때문에 더 없이 수승한 법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 382-7361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회당학원 올예산 420억원

학교법인 회당학원 새해 예산이 419억9천3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진각종립 학교법인 회당학원(이사장 휴명)은 2월 17일 법인 회의실에서 제 333회 정기 이사회를 갖고 2005년도 법인사무처 및 산하 대학교, 중 · 고등학교 등에 대한 올해 예산안을 심의, 지난해보다 20억200만 원이 줄어든 419억9천300만 원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또 불교문화학부에 무외 정사와 수각 시무, 외식산업학부에 한경필씨를 전임강사로 임용했다.

김원우 기자

관음종 3월 승려 분한신고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3월 1~31일 승려 분한신고를 접수받는다. 분한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서약서, 수행경력이력서, 여권용 사진 3매, 법당 내외 전경사진이며, 신고비는 5만원이다. 서약서와 수행경력이력서는 관음종 홈페이지(www.kwanum.or.kr)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에 남기면 서약서 등 양식을 받을 수도 있다. 접수는 우편을 통하거나 총무원에 직접 하면 된다. (02) 763-0054

강유신 기자

종단 발전염원 총지종 49일 기도

종단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이 2월 19일 서울 총지사 전사원에서 49일 기도에 들어갔다. 4월 8일까지 열리는 49일 기도 기간에 총지종 교도들은 종단의 발전과 개인의 해탈, 나라의 번영 및 안녕을 서원한다. 사진제공= 총지종

전승관 건립 방생법회

태고종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이하 전승관) 건립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선상방생대법회 및 중국불교순례행사를 개최한다.

선상법회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2만7000톤급 여객선 위에 마련된 법석에서 거행되며, 부대행사로 각 사찰별 노래자랑대회와 찬불가 강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중국불교성지순례는 문수도량 오대산 탐방과 석가장, 석장경 친견 법회로 진행된다.(02) 382-7363 김원우 기자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

정 토 불 교 대 학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정토불교대학이 2005년 3월 8일(화)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 개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지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불자님들의 삶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정토불교대학에서 법륜스님의 살아있는 영상법문을 만나보십시오.

▶ 3월 8일 – 12월 13일 매주 화요일 1년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지 역 법 당	연 락 처	교 육 시 간	교 육 내 용
서울 정토불교대학 (주/야)	02)587-8993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 실천적불교사상 –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되는 길 • 부처님의일생 –인간붓다 그 위대한삶 • 근본불교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하는길 • 불교변천사 –불교사 ,사회 역사 변화와 불교변천
부산동래 정토불교대학 (주/야)	051)557-2746		
부산해운대 정토불교대학 (주/야)	051)747-9997		
대구 정토불교대학 (주/야)	053)744-3025		
마산 정토불교대학 (주/야)	055)247-8991		
울산 정토불교대학 (주/야)	052)245-8995		
대전 정토불교대학 (주간)	042)253-8990	오전 11시	
청주 정토불교대학 (주간)	043)284-5951		
광주 정토불교대학 (주간)	062)511-8990		
정읍 정토불교대학 (주간)	019-308-2731		
김천 정토불교대학 (야간)	017-530-4311	오후 8시	
제천 정토불교대학 (야간)	016-9226-0083	오후 6시 30분	

● 정토불교대학 특전
◇ 초심자 입문교육 ◇ 야외법회 실시 – 사찰순례
◇ 특강수련 실시 ◇ 졸업수련실시
◇ 기도정진 및 나누기 ◇ 수행점검 및 법사님 상담
◇ 봉사활동 및 환경 · 통일 · 복지특강

● 모집안내
◇ 접수기간 : 2005. 3. 15일 까지
◇ 대 상 : 바른불교를 찾고자하는 모든 사람
◇ 구비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2매
◇ 동 참 비 : 12만원(1년제) ◇ 문 의 : 각 지역법당 www.jungto.org

● 출가 · 열반절 용맹정진이 3월 17일(목) ~ 3월 24일(목)까지 총 8일간
법륜스님의 법문으로 정토회 전국법당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위의 연락처를 참조하세요.

정토회 JungTo Society 정토불교대학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인도에 사는 용 종족들이 숭배하는 신화의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배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용이 탄생하였습니다.

◆ 이곳방생지 – 칠포해수욕장. 보경사는 15분거리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중국에 가서야면 탈 수 있는 용, 한국에서도 탈 수 있다!」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전망은 푸른바다와 들판, 뒤로 수렴한 명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곳.
이곳이 바로 성지순례의 공덕, 길지라 하옵니다.... (용꿈 꾸세요)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141호 한불총02-44호 등재

대한불교 (禪)선종 총림 칠포 대 원 사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중국중의침구학강좌

중국자격증 학위취득을 위한 연수 세미나

소정의 연수 과정을 마치면 침구계(3년) 중의계(5년) 결업과 침구사, 중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WTO개방에 대비하고 영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서비스와 해외이민시 병, 의원 설립하여 창업을 위한 연수강좌

• 개강 : 2월 22일(화) 11시
• 직장인 의료인반 개강 : 2월 27일(일) 오후2시
• 중국 침구학연수 : 3.1~3.5(4박5일)

과목 : 체침(전통침), 뜸, 부황, 이침, 양도락기, 특종침, 활법,피부관리, 비만침법, 미용침법, 식이요법

■수업시간 : 16주 매주 1회 오전 11시~오후 5시

중국 연수 유학 전문중국문화원 02)456-4248 / 016-221-4516

영남범음범패

천도재, 49재, 수륙재
바라 · 나비무, 회심곡, 호적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학인스님 모집. 부산범음범패연수원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공양주보살님모심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 천도재 49재 | 정안식 | 용왕산신재 | 바라나비춤 | 상가염불 | 천도시식전문 |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역학으로 영가 보는법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육임역학 비법 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1)245-8575
053)551-1356(011-1763-356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출퇴근, 보시 80만원
강남구청역 4거리. 대흥사
02)458-1108
010-5541-656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지리산)
011-483-563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영주시
보시금 60만원
대한불교 본원종 고경사
054)638-8887

도심 포교당 비구니 부전스님 모심

미 타 사
02)2645-9595
016-222-2471

기도도량안내

유구한 두매산골에
위치한 청정기도도량을
인연 되시는 분에게
빌려드리겠습니다.
011-570-1317

기도스님 구함

종파를 떠나 참된
수행인의 길을 가시고자
하시는 분이면 가능함
052)298-9911

남,여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모심

▷법비오는곳 기도영험도량
동해사 강원도 양양
033)672-2900
011-402-1669

신묘한 구성학

사주팔자 없이도 간단히 숫자만으로 초보자들도 쉽게 운명을 감정할 수있는 구성학을 지도함
(스님분들께 아주 유용함)
02)6232-4755
019-446-47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11-9723-0967

가난하고 소박한 스님입니다.

영남권내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를 저렴하게 주실
인연을 찾습니다.
(50대 비구)
011-9512-5118

비구,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승가대학 졸업자에 한함
▷위치 : 서울
010-6283-1090

비구스님 두분 부전자리 구합니다

▷ 서울경기지역 희망
010-2307-664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033)661-5878
016-350-1193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남 아산 보문사
041)545-6531

스님 잘 지내시지요? 제가 잘 지내니 다른 분들도 그냥 잘 지내 시겠거니...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선원에 다니다가 화엄학림을 오게 된것이 저로서는 큰 사건입니다만
따지고 보면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무슨 사건 일수는 없겠습니다.
그동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깨달음의 마음을 놓고 사니 사는게 좀 편안 해졌다는 것입니다.
왔으니 가는것! 이라는 명백한 생로병사의 길위에 그냥 서 있으렵니다.
이제 이번 동안거 해제하면 실살사 화엄 학림을 졸업하고 다시 무엇을 할까?
고민 하다가 인도 뿌네로 가서 빠알리어를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학림에서 대승경전을 배우게 되니 자연스럽게 초기경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초기경전인 니까야 언어인 빠알리어를 배워 보기로 하였습니다.
주위 분들이 공부 기간은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합니다만 이제 까지 그렇게 살아 왔듯이 무작정
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하고 싶은일을 하는 것 말고 달리 할일이 무에 있겠습니까?라는
마음에서 ... 하고 싶은일을 하며 사는 저를 축하해 주시고... 아울러 유학 생활에 도움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3월 7일에 인도로 출발합니다. (농협 749-12-258261 정규황)
스님 건강하시고요. 또한 행복하세요. 西林 011-9947-0812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립니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옻샘약수를 보내드립니다

(위장병, 피부질환 효험)
저희 약수사에서는 멀리 계시고 바쁜 신도님들의 편의를 위해 특히 위장병과 피부염에 효험이 있는 옻샘뿌리를 거쳐 나오는 용출수 옻샘약수를 보내드립니다.
주문전화 031-835-5986 / 017-210-5986
미산면 아미리 옻샘약수사 서운 합장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확인모집 · 분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주회(포교단) 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가맹점 캠퍼스 설치
▶ 봉직자과정 – 원사, 원무, 사감, 신주 작격
▶ 포교사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연주포교사, 장묘관리포교사
▶ 법 사 과 정 – 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내지도법사, 국악지도법사
▶ 대법사과정 – 종사, 선사, 대사, 율사
만대교학대학원 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시스템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유치원, 식당
오피스텔, 기숙사, 가든, 고시원 상가
이런점이 좋습니다
① 간편한 시공 ② 경제적 시공
③ 쾌적한 난방 ④ 건강한 난방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미국칼로규사 직수입품입니다.

웰빙난방 기존 난방비의 70% 절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을 시공한 사찰전문 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를 권합니다

소승은 전남 보성 회천에서 직접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기미, 당뇨, 기관지, 변비, 만성위염 .....
꿀벌이 만들어낸 천연건강식품, 강력한 항생, 항균작용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016-779-2237 일림사 성구 스님 합장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금정시장
● 평수 : 35평, 3층 건물 2층
● 법당, 방2개, 주방, 화장실, 옥상, 창고1개
● 가액 : 전세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시설비(삼존불, 탱화, 인등, 연등, 집기류 일체 포함) 2천만원.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51)529-3302 / 010-6236-284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일반주택 사찰)
● 대지: 160평 ● 건물(시설): 36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답사 후 가격 절충 可)
019-503-795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보리암
● 법당,주방,방2개,실내화장실, 총 40평 에어컨, 집기일체 완비
● 가액 : 총 1,950천만원, 월 23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십시오
011-9850-2946

포교당(급)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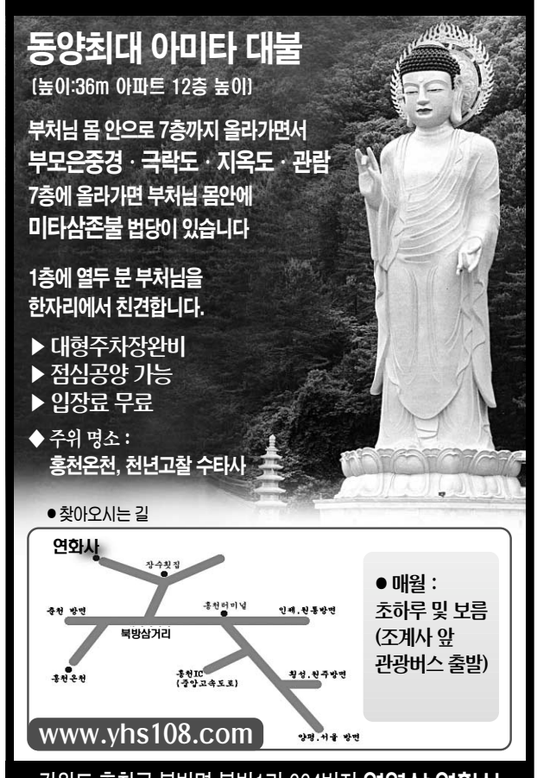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동 (구 늘봄공원 앞)
● 총평수 : 약35평(5층 중 4층)
● 삼존불, 각단탱화, 호불, 연등 포교 최적지(간선 도로변)
●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스님 병환으로 급양도. 즉시법회가능
011-871-000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남산동 예비군 훈련장 입구 대로변 신축 건물
● 넓은 법당, 친견실, 대기실, 방2개, 공양간 1개
● 총평수 : 60평 정도
보증금 : 2,000만원 / 월 70만원
시설비 : 약간
016-354-1230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김철회 박사의 주문식

설법 개인지도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가치관의 체계확립 및 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이론 및 실제
6. 원고적성법(문장구성 및 내용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적 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주문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사주통달책임지도 (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 22일(화), 24일(목) 개강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 체계적인 교육
▶ 주 · 야간반 선착순

- 3월 22일(화)-주간반, 24일(목)
- 주 · 야간반 각 요일 선택. 주 1회
- 불교 TV 금강경강의,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큰스님들의 특별 법문
- 인터넷방송국,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문의 – 대구큰절 : 053)474-8228
경산도량 : 053)811-0337
칠곡도량 : 053)312-8221

출가 학교 및 행자 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인터넷 홈페이지 : www.TVbuddha.co.kr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법당 : 20평
- 명부전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1500평
- 가액 : 5억 5천

- 위치 : 충남
- 법당 : 26평
- 요사 : 90평
- 부지 : 1600평
- 가액 : 7억

- 위치 : 강원도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부지 : 1350평
- 가액 : 2500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미래공인중개사(구청송)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 서울 ① 8억(대250/건138) ② 5억5천(대175/건90)
- 경기 ③ 9억(840/건383) ④ 9억(700/건180) ⑤ 2억5천
- 원주 ⑥ 토굴8천 ⑦고찰2억2천(1000/63) ⑧ 납골당25억(대4만평/건210평)
- ⑨ 납골당부지3억(대24000평) ⑩ 절터관악산계곡20억(2085평)
- 안양보 3천원80 (70평) 수원보 2천원100 (65평옥상130)

※ 사찰, 사찰터 다양보유, 공양주 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 중랑구 면목 3동 사가정 전철역 5분거리
- 건물1층 15~20평정도
- 법당 : 방2개,주방,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월70만원 시설비 : 300만원 (절충가)

016-9511-0840

사찰(터)안내

- 산세수려한곳 사찰터 최적지
- 대지 2천평 (총 6천평)

0505)794-5252

포교원안내

- 위치 : 목동4거리에서 80m
- 평수 25평, 2층
- 즉시법회가능
- 시설비 포함, 3천만원 월50만원 (절충가능)

02)2648-4401
017-760-6279

사 찰 안 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요사 : 23평, 산신각
-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즉시법회,몸만들어오면 됨

019-571-1732

사찰 안내

- 위치: 밀양시 얼음골
- 총평수 : 전답 임 포함 약 3천7백평
- 가액 : 15억. 현주위시세 평당 30만원

※ 명산,계곡절경,등산객 피서객 항상 많음

010-4876-5535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 평수 : 단독 40평
- 가액 : 보증금 6000만원 월 35만원(시설비포함)
- 기도도량으로 최적 주변 환경 좋음,교통편리

02)352-9810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청 옆
- 대지 : 310평
- 건물 : 3층건물 1동 100평, 슬라브 기와 1동 45평, 부속 건물 1동 10평 (소나무 조경 및 그림같은 포교당)
- 가액 : 8억 5천만원

010-4876-5535
011-584-4418

사찰(급)안내

경관 수려한 사찰을 원하십니까?

- 위치 : 경산 와촌면 음양리
- 대지 : 총부지 813평 (대지 200평, 주차장 613평, 공터 200평) ● 건물 : 건축물 45평
- 전체부지를 자연속으로 조성됨
- 특징 : 본존불, 탱화 (고려시대 고불과 똑같이 조성)
- 가액 : 3억2천만원 가능 (융자 6500만원 포함)
- 부동산 중계업자 전화사절

011-9378-563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 부지 : 1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15억
- 산세좋으며 대구최고의 도량임

- 위치 : 서울시내 명산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양도가 : 5억5천
- 산세 계곡절경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상도동 장승백이
- 대지 : 66평, 건평 56평 1층– 요사채 2층 – 법당
- 가액 : 4억 8500만원

02)815-0302

사찰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옆(도로 2분거리)
- 면적 : 950평 중 허가 대지 150평
- 건물 : 양옥 20평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전망이 매우 좋음
- 가액 : 평당 30만원 답사 후 가액절충 可

011-804-1748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서면에서 도보로 10분거리
- 평수 : 60평 5층건물 5층
- 전세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2245-353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 법당 : 40평
- 특징 : 옥상시설 사용 13평, 판넬
- 보증금 : 1천만원,월 40만원 시설비 : (삼존불)2천5백만원

053)957-9551
011-398-9807

16억 사찰 절반에

- 산좋고, 물좋은 산속에, 서울에서 50분 거리에 위치한 1,000평의 땅에 550평을 사찰부지로 허가를 득하고(국유지 약 2,000평 포함)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3m(앞으로 5m로 확장계획)
- 법당 30평(목조 삼포) 금단청 완공, 요사채 30평(콘크리트) 완공. 삼성각 30평(목조3포), 종각 6평(목조 3포) 80% 완료, 나한전 30평 (콘크리트), 요사채 2층 100평(철골조) 70%완료
- 전기 40kw, 일반 전화2대, 컴퓨터(인터넷 설치), TV 위성안테나 설치.

꼭 인수 받으실 스님만 연락주시고,부동산 및 브로커는 일체 사절합니다.

011-9773-5701

* 공동운영할 스님도 환영합니다 *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소재
- 부지 : 약 110평
- 법당 : 40평(2층)
- 요사채 : 40평(1층)
- 가액 : 3억
- 특징 : 도심에 신축한 사찰로 건축비만 3억이 소요됨

- 위치 : 대구광역시 소재
- 부지 : 약 70평
- 법당 : 35평(2층)
- 요사채 : 35평(1층)
- 기타 : 산신각, 용왕당 10평(3층)
- 가액 : 1억9천
- 특징 : 신시가지에 위치한 도심사찰로 포교지로 아주 좋음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상남면
- 대지 50평, 건평20평
- 가액 : 2천 7백만원

055)391-3799
011-9207-2488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100만원

011-9238-996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 부천역 8분거리
- 2층, 3층 각 35평 2층 : 큰방,주방,사무실,스님방 3층 : 법당(지장전,산신각, 각단탱화,지장탱화,산신탱화)
- 모든시설 완벽
- 가액 : 3천 5백만원 (시설비 포함), 월 60만원

010-3167-177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 법당(목조) 12평
- 요사(벽돌) 25평
- 가액 : 9천만원

016-652-7547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1. 경북 상주시 대 423평 굴법당 9평 요사 35평 주차장 500평 텃밭 심야보일러 백두대간 문경 쌍용계곡 (비구니스님 가능) 전세 5500만 (비구니 수행자 구함)
2. 충북 옥천 대200평중 100평 등기 법당 25평 요사 29평 산신5평 옥천 IC 5분거리 신축건물 (비구니 스님 적합) 1억3천5백
3. 경북 예천 대300평중 100평등기 법당18평 요사28평(단청) 미륵대불 5자 산신각 용궁각 (약수물) 뒷산 국유지 사용가 1억4천
4. 공주시 KBS앞 (철학관 임법당) 130평 (건물만) 2000만
5. 칠갑산 자락 (시골집) 212평 (광포함) 2800만 *시골집 독채 관리하며 공부하실분 (여)

(大田) 해동불사 017-409-9599

사찰안내

- 위치 : 부산근교 (시내버스 다니는 신도시)
- 대지 60평, 평당 200~250만원대
- 건물 64평 신축건물 1층 32평 요사채 2층 29평 법당 3층 4평 칠성, 산신, 나반
- 실 수요스님 일절 중계인 사절

011-868-599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삼천포
- 대지 : 570평
- 건평 : 70평
- 가액 : 1억 9천만원 (절충가능)

016-332-1265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여향면
- 전체 320평,
- 법당 12평, 요사채 20평, 저렴한 가격.
- 가액 : 5천만원

※ 교환도 가능

016-655-2783
051)853-5506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 종교부지 300평 건물(목조)35평, 8평
- 가액 : 2억

031)683-0338
011-346-8001

사찰안내(천연동굴)

- 위치 : 강원도 홍천, 횡성 새말근교 (각 20분거리)
- 임야 3만평, 답 1천평(군유지사용), 산신각(천연동굴) 15평, 대웅전, 차평 방2, 주방1, 지장전 15평, 요사채 55평, 방 7개, 부대시설 25평
- 가액 : 7억 5천만원
- 실수요 스님일절(중계인사절)

011-369-4154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시내
- 평수 : 600평
- 건물 : 대웅전(목조단청)20평 그 외 요사채, 지하수 있음
- 법당 앞 주차 가능

가액 : 2억

011-563-0108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조금한 야산 및 원주역에서 5분거리 터미널에서 10분거리
- 대웅전, 지장전, 산신각 각전 단청 되었음.요사채2동, 스님방별도, 시설물 집기일체
- 가액 : 2억 5천만원 전세가능 3천만원(답사후절충)

011-327-5863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 600평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3존불) 삼성각 10평, 칠층석탑, 요사 66평
- 경치 전망 좋고,산세 수려함.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가액 : 7억

011-9411-5302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평수 : 100여평
- 시설 : 오존불, 108부처, 방4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8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2330-7784

포교원안내

- 위치 : 용인시 시내
- 평수 : 42평. 4층 건물 중 4층
- 구조 : 법당, 산신각, 주지실 방1, 넓은거실, 주방, 욕실 및 화장실
- 가액 : 전세 4천만원. 월10만원 시설비 : 상담후 절충

017-372-8968

사찰 안내

- 위치 : 팔공산 계곡물이 졸졸
- 임야 830평(2천만원)
- 대지 102평,토굴방4개 (5천만원)

011-9554-6900

포교당(급)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 부근 역세권
- 3층건물 중 2층 약 50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고급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0만원 또는 300만원에 월 40만원
- 시설비, 스님의 사정상 싸게 양도함
- 즉시 입주 법회 가능함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016-261-2068

사찰(급)안내

- 위치 : 강릉시 옥계면 신축사찰
- 법당 30평, 대지 150평 전 430평
- 융자 4천만원

가액 : 총 8500만원

055)362-0199
010-7167-3499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현곡면 상구 1리
- 2층 법당, 1층 요사채,
- 산신각, 스님독방 1
- 대지 120평. 집기 부분 협의 가능. 평수 : 120평
- 가액 : 9천5백만원

011-544-9777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평수 : 120평
- 가액 : 4천 8백만원
- 임법당1, 방2개, 주방1 집기일체

011-462-5275

절터안내

- 위치: 지리산 기슭에 계곡, 도로접한 다용도 가능.
- 부지 : 1,680평
- 명당 자리를 찾는 분, 연락바람.
- 가격은 내사 절충

011-570-1317

www.hinexus.com (주)넥서스 환원수

FDA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DA 물인증 획득은 국내최초로 넥서스가 해냈습니다.

FDA
BIO SCIENCE RESEARCH
물인증 획득


Bedesda AK-6000

FDA시험 성적서


FDA Registration No : 2022038

세계발명특허 •치명적인 미네랄 도금현상 완전 해결
MBC특집 [생명수의 진실],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임상실험에 적용된 제품임.

상담문의 ☎ 080-080-178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2-7 밀화밀라트 1010호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창 남덕유산자락 아늑한 남향집
- 대지 : 130평, 건평 : 27평
- 교통편리, 대전 1시간 거창 ↔ 대구 1시간 청정계곡 등산로 포행코스 일품
- 가액 : 4800만원

055)945-3330
011-693-400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신모라 사거리
- 평수 : 약40평
- 전세금 : 보증금 3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 절충 후 결정
- 교통편리,아파트 단지 인근 포교 최적지로 즉시 임주가

051)317-0011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 건물 1동 60평(인법당, 방7개, 넓은 입식주방, 욕실, 화장실3개), 밭 3,000평 사용
- 창고, 하우스, 심야전기 보일러, 최고 지하 암반수
- 답사 후 가격(7천만원)절충

011-6611-7749
(꼭 하실 스님 만 연락주세요)

사찰(전원주택)급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경산시 운문사에서 25분)
- 대지 900평, 밭 550평
- 건평 : 법당+요사채40평, 공양간+큰방40평
- 가액 : 1억 8천만원
- 상태 : 양호

017-552-1617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5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찰겸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 부천역사 2분거리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2층 30평
- 법당1개,방2개,거실욕실,도시가스 살림해결.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13자목조각 완벽함.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5만원. 시설비 1천3백만원
- 주차 80% 주인직거래

011-650-8481
032-667-8485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20분거리
- 대지 임야 포함 611평. 법당 약27평, 산신각2.7평, 요사채 17.9평, 창고3동
- 특징 : 기도 영험도량, 특히 아기임신. 3~4년생 유실수. 매실, 감나무, 오가피, 산초 등 100주 이상. 절 마당까지 차량진입.
- 타 지역 이사관계로 처분.
- 가액 : 6,500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포교하실 스님을 구합니다

스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포교원을 운영하실 원력 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서울 신림동으로 2층중 2층 석가모니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원불 297분 법당 외 방1,주방1,화장실(30평) 보증금 시설비 5000만원에 월 50만원 12년 포교하였고 신도 300가구가 넘으며 꼭 맡아서 포교하실 조계종 스님만 연락 주세요

010-6611-7749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 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일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신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광복 60주년의 해 3·1절…특별 진단

일제 관련 역사 연구 '무풍지대'

각종 '특별법안' 발효 외면, 항일·친일 재조명 필요… '다솔사 성역화' 등 여론

불교계는 '역사바로세우기'의 무풍지대인가.

지난해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데 이어, 최근 친일파 후손의 땅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는 등 광복 60주년을 맞아 어느 해보다도 역사바로세우기 바람이 거세다.

하지만 웬일인지 불교계는 조용하기만 하다. 일제치하 교단 지도부 스님들 가운데 상다수가 적극적인 친일행위자라는 의혹에 대해서조차 진상의 실마리를 내놓지 못한 채 외면만 하고 있다. 이에 불교계의 역사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조차도 제대로 발굴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불교계의 현실이고 보면 역사인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것이 지나친 것만은 아니다. 3·1운동 당시 전국 사찰에서 거국적으로 참여했지만 이 사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 단적인 예.

스님들 항일활동 더이상 묻어둬선 안돼

김법린·김상헌·유석규 스님 등 범어사 스님들이 주도한 동래장터 시위, 이장옥·이찰수·오학성 스님 등 통도사와 표충사 스님들이 주축이 됐던 단장 장터 시위, 김봉신·홍태연 스님등 해인사 스님들이 주도한 합천 읍내 시위 등 전국 곳곳에서 스님들의 주도로 시위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깊은 연구가 뒤따르지도 않았고, 3·1운동과 이들 사찰과의 관련성 또한 강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3·1절' 하면 교회가 먼저 떠오르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1930년대 남부지방 항일운동의 거점이었던 사천 다솔사(주지 혜일)도 마찬가지 경우다. 현대 다도(茶道)의 중흥조로 불리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출가 본사로 더 유명한 다솔사는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만해 스님과 애국지사들의 정신이 차향만큼이나 깊게 서린 곳이다.

다솔사는 만해 스님을 중심으로 결성됐던 청년운동 조직인 만당(卍黨)의 은신처이자, 독립운동 자금 조달 기구였던 백산상회의 연락소였다. 1933년 효당 스님이 주지로 있던 다솔사로 만해 스님이 숨어들면서 시작된 다솔사와 독립운동과의 인연은 뒷날 다솔사가 남부지방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백산 안희제, 백산상회 대주주인 문영빈, 김동리의 친형이자 당시 동양사상의 1인자 김범부, 만해 스님의 제자로 불교혁신운동의 주역이었던 김법린 등 한국근대사를 일군 거목들이 다솔사를 드나들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위해 태화관에 모여든 민족대표들. 정면 오른쪽이 만해 스님, 왼쪽이 손병희 선생이다. 독립선언식 기록화(1976 · 최대섭 작)



1930년대 남부지방 항일운동 거점이었던 다솔사의 황금편백 나무. 만해스님이 심었다고 한다.

이런 다솔사는 만해 스님이 당수였던 만당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만해 스님 회갑연 후 직접 심었다는 황금 편백만이 남아 뿌리를 내리며 역사 속에 묻힌 그 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다솔사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는 별로 남아있지 않고, 연구 또한 미흡하다. 사천시청 문화관광계 조영규 계장은 "다솔사가 독립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새롭게 조명하고 연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예산이나 자료 부족 등으로 묻어두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부끄러운 역사'라도 연구해야 할 과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가 이처럼 파묻혀 있으니 '부끄러운 친일의 역사'가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 종단들의 근대적 기틀이 일제시대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친일사는 현 종단들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 만큼 불교계가 전력을 기울여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종욱 스님의 예를 보면 친일사 연구의 필요성이 분명해진다. 이종욱 스님은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했고, 1930년대 중반에는 총본산 건설운동을 주도하여 조계사(당시 태고사) 창건을 성사시켰으며 1941년 근대 최초의 합법적인 교단인 조선불교 조계종을 창립하는 공을 세웠다. 하지만 일제 말 친일 행각을 벌여 독립운동가와 친일승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는 인물이다. 이종욱 스님 연구가 박희승 씨는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 친일승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이종욱 스님의 일제 협력은 종단을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물' 재조명 작업에 종단·학계 나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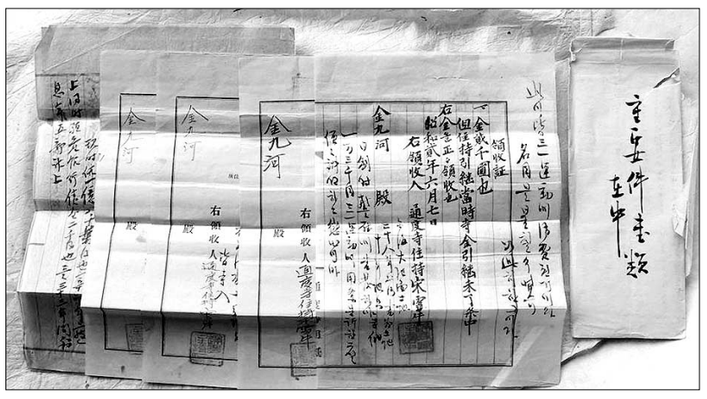
이처럼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연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행적을 올바르게 조명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김광식 교수(부천대)는 "근현대불교사는 오늘의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자료수집·분석조차 이뤄지지 않아 연구의 황무지로 남아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근현대조선불교사가인 김순석 박사(한국국학진흥원)는 "종단이 중심이 돼 한시적인 조사·연구 기구라도 구성해서 불교계의 친일행각을 제대로 규명하는 한편, 독립운동사도 함께 발굴해야 불교사가 바로 선다"고 지적하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불교계가 참회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박익순 기자

"구하 스님 독립운동 비밀 지원"

통도사, 입적 40주기 맞아 증명자료 공개



구하 스님의 독립운동 자금 지원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구하 스님은 1919년 11월 상해에서 발표된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에도 참여한 것으로도 추정되는 인물이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통도사 주지를 역임한 구하 스님이 일제 시대에 비밀리 독립운동자금 지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구하 스님 입적 40주기를 맞아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24일 공개한 이 자료들은 통도사 주지였던 설우 스님이 주지직에서 은퇴한 구하(1872~1965) 스님에게 써준 독립자금 관련 영수증 5장과 안창호 선생 등 10명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나타내는 '사변시(事變時·3.1운동을 지칭) 출금증' 등이다.

'중요문건(重要文件)'이라고 쓰인 종이에 조심스럽게 싸여진 이 문서는 구하 스님이 독립운동 기밀비로 총 1만3천환을 내놓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설우 스님이 구하 스님에게 1927년 써준 영수증들은 구하 스님의 재산을 모두 통도사에 내놓은 것처럼 꾸며 자신의 재산을 모두 독립운동자금으로 지원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사변시 출금증' 문건에는 △안창호 선생 임시정부 국무총리 재직시 5천원 △초월 스님 경성 혁신공보 사장 시절 2천원 △이종욱 당시 종무원장 군자금 수집 때 3천원 △온천서 독립운동가 장인섭에게 1천원 △범어사 공동으로 상해서 500원 △동래서 독립운동가 장래륜에게 500원 △통도사서 독립운동가 신정흔에게 500원 △김포광에게 500원 △정탁의 독립운동 참여에 100원 등의 독립자금 지원내역이 기록돼 있다.

현문 스님은 "구하 스님이 자신의 제사에 쓰고자 남겨놓은 김해·양산의 토지 6천 500평의 제우답을 모두 처분해 독립자금으로 내놓았다"며 "이 자료들은 2003년 11월경 월하 스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3.1절을 맞아 구하 스님의 독립운동 지원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80년 만에 공개된 이 자료들은 1911년부터 14년간 통도사 주지를 연임하며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에게 시가 150환(쌀 10가마 값)에 해당하는 은제컵을 선물해 친일 시비에 휘말려온 구하 스님의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는 근거자료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통도사=천미희 기자

혜봉 스님 '친일승려 108인' 펴내… "재평가 이뤄져야"



"이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황송하며 얼마나 장쾌하냐. 전승(戰勝)을 위하야 교주의 성상(聖像)까지 내어 바친다는 것은 불교가 아니면 없을 것이요, 일본이 아니면 없을 것이다. (…)불상까지 헌납이라니 보기에 얼마나 황송하며 국가를 위해 불상까지 응소(應召)하다니 참으로 비할 데 없이 장쾌한 바이다" (권상로 스님, '불상의 장행(壯行)')

<친일불교론>를 출간해 불교계의 친일문제를 본격 거론했던 혜봉 스님(이천 지족암 주지)이 <친일승려 108인>을 새로 펴냈다. <친일불교론>이 총론이었다면 <친일승려 108인>은 인물 중심의 저술이다.

이 책에는 대표적인 친일 승려로 꼽히는 이회광·강대련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초대 총장이었던 권상로 스님, 국회의원과 동국대 이사장을 지냈던 이종욱 스님, 그리고 불교학자 김동화·김영수 스님 등 108평의 친일행적이 적나라하게 소개됐다. '친일'의 정의와 기준은 혜봉 스님이 편찬위원으로 활동 중인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의 안을 따랐다.

1993년 <친일 불교론>을 출간한 이래 줄곧 있는 불교계 친일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혜봉 스님은 "당시 친일승들은 다 죽었고 어떤 처벌도 불가능하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사람들로 하여금 인과를 받아들이게 하고, 바른 업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혜봉 스님은 앞으로 불교계의 친일문제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친일논설을 따로 묶어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청년사 발행, 값 3만 8천원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제16기 전생·빙의/영 치유법 특별강좌!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면-전생·빙의/ 영치유법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 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빙의 치유법	◉ 빙의 진단법 ➡ 빙의령확인 ➡ 영가와의 대화 ➡ 영가천도 ➡ 천도확인 ➡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 악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를 통한 원격제령 천도법 ◉ 신도가 자기 몸 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도 있다.
전생요법	◉ 전생과 현생은 천륜보다 질긴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고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통 사주 명리학	◉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심리치료, 자율훈련, 최면 명상법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 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 치유력 활성법 등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 영가의 생전시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원인 모를 불임시에도 낙태 영가를 의심해봐야 한다.

본 강좌 개강 3월 16일(매주 수요일) 오전10시~18시까지 7회 과정
▶신청요령 : 전화접수 및 방문신청
▶교 육 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 한국의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지원

통신(VIDEO) 교육과정
통신교육 방식
▶전생·빙의/영치유 전체교육내용을 실황 녹화한 비디오테잎을 매주 1회(2시간용 3개씩)우송 (7회과정 비디오 테잎 총 20개)
▶실습능력 점검 및 질의응답 등 보충교육을 위해 1회 본원에 출석수업
▶특전:수료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한국전생빙의연구회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교육비 : 200만원



원장 상담학 박사 임 재 형

주최 : 한국 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 과학원 WWW.HYPNOS114.COM

• 전 화 : (042) 255-0734~5
• 장 소 : 대전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무료공개강좌 3월 9일 오후1시~3시까지

※ 본 교육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거나 1만원을 송금하시면 공개강좌 비디오 및 안내 자료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치유목회 대학원 겸임교수
SBS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KBS, iTV,CMB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일 주 문



송산노인복지관 운영위원 위촉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일면 스님은 2월 25일 운영위원 위촉식을 여는 한편 같은 날 남양주 불암사에서 직원 불교연수 및 수계식을 실시했다.



8교구 본말사 신년교례회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2월 27일 설법전에서 조계종 8교구 본말사 주지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갖고 임원을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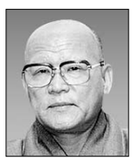
혜국 스님 초청 천도법회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3월 7일 오전 9시 대적광전에서 제주 남국선원장 혜국 스님을 법사로 1029일 천도재 10번째 법회를 봉행한다.



생명살림 위한 즉문즉설법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3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생명살림불사를 위한 즉문즉설법회를 봉행한다.(02)733-1884



'바르게 사는 길'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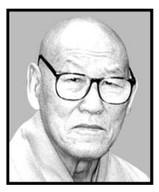
동국대 경주 정각원장 도업 스님은 3월 9일 오후 4시 정각원 법당에서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바르게 사는 길' 주제로 법회를 봉행한다. (054)770-2016



우리나라 상징 엽서 무료배포

사단법인 법시사 김기옥 이사장은 3·1절 86주년을 맞아 태극기와 무궁화, 독도를 담은 그림엽서 11만부를 인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02)859-8999

횡성 봉복사 회주 태허 스님 입적



강원도 횡성 봉복사 회주인 태허당 종영 스님(사진)이 2월 22일 새벽 5시 열반했다. 영결식은 24일 원주불교장으로 거행됐다. 태허 스님은 1916년 공주에서 태어나 36년 공주 갑사에서 호응 스님을 은사로 출가, 공주 마곡사 전문 강원 대교과와 일본 오사카 관서 고등부기학교를 졸업했다. 부여 무량사 주지, 원주 구룡사 주지를 역임, 95년부터 봉복사에서 주석해왔다.

화엄종 정희수 법사 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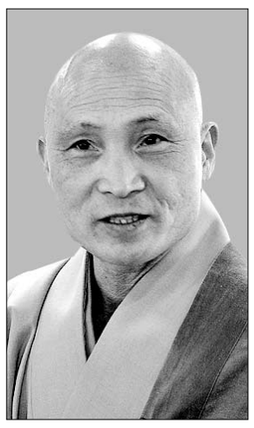


화엄종 종회의장과 화엄승가장학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정희수 법사(사진)가 2월20일 타계했다. 85세. 영결식은 22일 봉행됐다.

정 법사는 1978년 승려 및 군법사, 불교학자 양성을 위한 화엄종 승가장학재단을 설립해 1천3백여 명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선수행으로 행복 찾는 길 제시할 것"

'간화선 대중화 위한 설선대법회' 여는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한국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인 범어사에서 선 수행 진작을 위해 용맹정진해 오신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값진 기회이자 한국선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시 없는 법석이 될 것입니다."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법회인 '범어사 설선대법회'를 준비 중인 부산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사진)은 설선대법회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형상이 없는 선(禪)을 선답게 설명(說)하는 법회라는 의미의 설선대법회는 '문없는 문을 열다'는 주제로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범어사 보제루에서 열린다.

스님은 "한국 불교 말살 시도가 극심하던 시절, 당시 주지였던 성월 스님의 올곧은 수행력에 탄복한 일본 사이토 총통이 1913년 선찰대본산으로 지정할 만큼 한국 선을 대표하는 곳이 범어사"라며 "선찰대본산의 위상과 역할을 되찾겠다는 각오로 이번 법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선은 어느 특정 종교나 스님들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21세기 정신문화를 이끌어갈 종교를 초월한 수행법"이라며 "내면의 여유와 지혜를 갖춘 성숙된 인간을 만들어가는 수행법인 선의 대중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선대법회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

선의 대중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많은 동참을

특히 스님은 "선사상은 이심전심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선승들이 입을 열어 사자후를 하는 것은 보다 많은 대중들이 수행의 문에 들어서고 그 수행을 통해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를 맛보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가장 큰 특징은 스님들의 법문에 이어지는 질의시간을 통한 의문점 해결과 선 수행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참선 실수 시간.

"선이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야 선의 세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는 대성 스님은 "이번에 법문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범어사에서 수행했던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 그 인연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대중법문에 임하는 스님이 많은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귀한 법석"이라고 단언했다.

스님은 "평생을 선방에서 수행한 스님들이 열어 보이는 선의 세계 초대한다"며 "지혜의 문이 열리고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이번 법회를 통해 수행을 통한 행복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성 스님은 "경허 스님, 용성 스님, 한용운 스님, 동산 스님, 탄허 스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선승들이 수행했던 한국제일의 선 도량에서 선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며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정우 스님 첫 석사, 현관 스님 수석

중앙승가대 24일 졸업식



정우 스님



현관 스님

중앙승가대는 2월 24일 열린 200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속가 나이 환갑의 정우 스님이 이 대학 첫 석사로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승랍 20년차의 비구니 선객 현관 스님이 67명 졸업생 가운데 전체수석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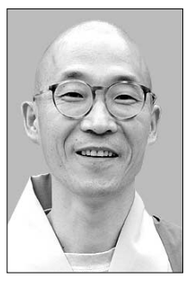
'<무문관>의 주석적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한 대학원 역경 전공의 정우 스님은 지칠 줄 모르는 만학열로 젊은 학인들과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우 스님은 13살인 1958년 수덕사에서 광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 인천 영산정사를 창건하는 등 청소년 포교에 매진했다. 80년대 중반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정우 스님은 "한문학에 대한 자신감으로 역경을 전공하긴 했지만, 논문준비를 위해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늦은 공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스님의 논문은 무문관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번역본의 대조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고문 번역을 논문으로 제출한 것은 불교계에서 드문 일이다. 올 2학기에는 새로 개설되는 중앙승가대 박사과정에 도전한다.

전체수석을 차지한 현관 스님은 86년 동민 스님을 은사로 통도사에서 출가했다. 흥륜사에서 3년 결사, 제방 선원에서 10여 년간 안거했다. 어느 날 '좌복 위에 앉아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는 생각에 2001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학문을 하면서도 이것이 수행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떨치지 않았다"는 현관 스님은 "중생을 위한 '실천불교'를 화두삼아 평생 정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학기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공부에 매진한다.

조용수 기자

금강산 신계사 도감 100일 맞은 제정 스님

"하루 천명이상 관람… 역사 설명때 보람"



"하루하루 수천여명의 관광객을 상대로 신계사를 소개하고 복원불사의 의미를 알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2004년 11월 11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현장에 발을 내디딘 이후 숨 돌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100일(2월 20일)에 대한 신계사 불사 도감 제정 스님의 회고다.

제정 스님(사진)은 지난해 11월 2일 신계사 도감(都監)에 임명되자마자 신계사로 건너가 대웅전 낙성식을 치렀다. 곧이어 시작된 겨울 방학. 육로관광이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루에만 1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관광객들을 맞았다.

"신계사 탐방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참배객들과 긴 시간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는 스님은 "그렇지만 역사의 현장인 신계사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다"고 한다.

숙소인 온정각에서 신계사까지의 거리는 약 10km. 아침 8시에 신계사로 출발해 대웅전 문을 열면 아침 예불을 하기 무섭게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일과는 오후 4시 전후로 마무리된다. 스님은 "특히 올해에는 만세루와 요사채, 산신각 등의 불사가 진행된다"며 "불사가 마무리되는 2007년까지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금과 같이 국내외의 정치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남북한 불자들이 더 마음을 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발원해줬으면 한다"며 2월 23일 금강산으로 발길을 돌렸다.

유철주 기자

동대 경주병원 영가천도재



동국대 경주병원(원장 이규춘)은 2월 18일 병원 약사전에서 경주 함월사 조실 우룡 스님을 초청법사로 2004년 병원에 시신을 기증한 355명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우룡 스님은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족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초불교사암련 신년하례법회 및 경로잔치



서울 서초불교사암연합회(회장 춘광, 관문사 주지)는 2월 21일 서초 구민회관에서 1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 및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서 춘광 스님은 "서초구민 가정에 희망과 발전을 기원한다"며 "불우이웃에게 보살도를 실천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언론사불자연합회장 취임식



제3대 언론사불자연합회장이·취임식이 여의도포교원 원장 현진 스님과 박준영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4일 서울 여의도포교원에서 열렸다.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이연재 MBC 보도전략팀장은 "언불련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포교에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 대한불교 수미산문(須彌山門) 조동정종(曹洞正宗) 재중창(再重創) 선포문 고

재 중창의 중대선언!

1. 고려 태조께서 창건한 광조사에서 이엄선사께서 조동종 묵조선풍을 진작, 수미산문을 참수한 바 1989년 본 법통 계승, 대한불교조동종 중창 이래
2. 1994년 중국 소림사, 소희선사의 조동정종 법맥을 사법, 약진 번창한 바, 범해스님의 능숙한 행정능력의 업적이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3. 그후 행정 무능력과 사리사욕의 집단이 집권하게 되자 종정의 독선이 시작되었으니 총무원장이 종회에서 선출되어야 함에도 종정이 마음대로 먼저 지명 후 종회에서는 사후 동의하는 불법이 감행됨에 따라 4대와 5대는 총무원장과 이에 적극 동조자 등 3인을 재입종 불가의 최고 중징계를 내린 바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설상가상격으로
4. 2004년 5월 3일자로 총무원장 기획실장 종정등이 극비속에 체탈자 1명을 재입종 시킨 중대비리가 적발된 바 문책에 위기를 느낀 그들은 적반하장격으로 불순한자들을 규합하여
5. 범해스님 제자 중에서 총무원 부원장, 감찰원장, 율원장, 3개 교구종무원장과 종회의원 등 다수가 위기에 처한 총무원 일선에서 사심없이 종단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총무원사 건립 조성금 6천만원 중 2천7백여만원이 범해문도 중앙간부들이 거출한 유공자들임에도
6. 부원장을 총무원장 잔여기간, 직무대행 임명한 종정은 부당한 사유로 트집잡으며 사무인수를 거부함으로 이 일을 강력 항의한바 급한 나머지 부당한 회의소집으로 3인에게 체탈이라는 불장난을 저지르는 불법자, 부패자들과는 결별하고 별첨, 탈종선언문과 같이 참신한 종도들이 수미산문 조동정종이라는 재중창을 선포하오니 정의의 불심을 가진 불자들은 적극 동참 바랍니다.

불기 2549년 2월 15일

大韓佛教 須彌山門 曹洞正宗 (대한불교 수미산문 조동정종)

강범해(덕천)·김일광(행균)·김정림(행정)·허지덕(덕송)

총무원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 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6-2960



불자 세상보기

방 귀 희
'솟대문학' 발행인

장애인도 '소비자'다

우리 모두는 최고를 좋아한다. 최고가 되지 않으면 도태할 것 같은 '최고증후군' 환자인지도 모른다. 최고가 되려면 발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발전보다는 단순한 자리다툼으로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이 치열한 경쟁을 버틸 수 없었던 장애인은 최고의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 소외라는 구렁에 빠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장애인을 경쟁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치부한다.

장애인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장애인은 소비자가 아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양만큼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너는 장애인이니까 이런 정도의 도움이나 필요할 테니 이걸로 잘 살아라 라는 식의 장애인복지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바로 이런 탁상공론식 제도 때문에 얼마 전 한 장애인이 생계비 인상을 요구하며 구청 현관 앞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론에서는 구청장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성 자살로 보도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그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얼마를 지급받았고, 장애수당으로는 얼마가 지원되고 있었다며 줄 만큼 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죽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다.

이 휠체어 장애인이 진정 원했던 것은 소비자로서의 삶이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장애인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이지, 돈 몇푼 지원한다고 장애인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순간도 알게 모르게 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장애인은 그 흔한 암 보험 하나 가입할 수 없는 현실이니 말이다.

자주 이런 전화를 받는다.

"고객님, 저희 카드회사에서 이번에 고객님에 대한 서비스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하면서 보험 상품을 열심히 소개하다가, "어쩌죠, 난 장애인인데" 라는 말에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는다.

그럴 때 끈질긴 보험 가입의 권유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함보다는 '아, 나는 위험에 닥쳤을 때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구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고, 우리 사회에서 도대체 장애인은 뭔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장애인은 우리 이웃이라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낸다. 장애인을 돕는 사람들,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어디 그뿐인가. 요즘 자폐증 청년의 마라톤 인생을 담은 영화 '말아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영화 한편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얼마만큼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지속적인 이해와 관심이다.

"저런 아이를 왜 밖에 내보내요. 정신병원이나 장애인시설에 보내지"라는 대사가 영화 '말아톤'에 나오는데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다.

장애인은 함께 살기보다는 따로 살면서 가끔 자선을 베푸는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장애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직도 장애인에게 닫혀 있는 창구가 많다.

겉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시각이 장애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공약이행 … 신뢰의 성적표

공약(公約)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공적(公的)인 약속이다. 공적인 약속은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함께한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으로 치부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타락한 정치 풍토, 공인의 말에 대해 철저히 이행을 촉구하는 국민의식이 아직 성숙치 못한 우리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불교계에 대한 공약의 이행도 점검에서도 드러난다.

노무현 대통령이 불교계에 제시한 공약 10개 가운데 크게 보아 4개 정도는 이행되었다 할 수 있고 4개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두개는 불교계로 보아서도 이행이 불가능한 공약이라 한다. 아직 공약의 40%도 이행하지 않은 노 대통령의 경우가 김영삼 ·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보다는 이행 지수가 높은 것이라 하니 과연 과거 대통령의 헛된 약속 지수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우선은 그나마 높은 이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현실성 있는 약속을 지켜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은 공약 이행률 달성을 촉구한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약 이행을 전적으로 약속한 사람에게만 맡기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며, 약속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의 정치는 이상적인 모습을 띄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진 쌍방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

결국 불교인들이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앞당기고 촉구하는 결집된 힘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또 약속이라고 해서 국가적 차원이나 불교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득실이 불분명한 사안들은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하여 보류할 수 있는 것은 보류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불교계를 위하면서도 또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 시급한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집약해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불자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상생 공조하는 이상적 모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데서부터 우리 불자들의 성숙해가는 정치의식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어느 부부의 '살신성인'

중생을 죽이지 말라. 보살은 항상 자비스런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해야한다. 〈범망경〉

지난 설날, 어느 교통사고현장에서 사고 운전자를 구해주다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 30대 부부가 숨진 것으로 밝혀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 구이면 전주-순창 도로 계곡터널 부근을 지나던 부부는 앞서가던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자 급정거를 하면서 멈춰섰다. 앞차의 운전자가 운전석과 찌그러진 차문 사이에 끼여 나오지 못하자 부인은 도로 가운데서 수신호로 뒤에 오는 차량을 서행시키고, 남편은 사고 운전자를 구하고자 했다.

그리고 사고 운전자를 막 구조했을 때 어두운 밤길에 사고현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달려온 승용차가 덮쳐 부부가 사망하고 세 살 난 아들은 승용차 밑으로 들어가 다행히 생명을 구했다. 이런 사연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고 운전자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불교의 계율 가운데 첫 번째이다. 여기에는 불살생(不殺生)을 넘어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야 한다'는 보살행(菩薩行)도 내포되어 있다. 미혹한 중생에게 생명은 하나이자 전부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가장 행하기 어려운 수행덕목이다. 두 부부의 종교여부를 떠나 그 행위는 보살행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보살행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 습관이 되고 생사를 건너뛰어 보살행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외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부친은 "언제나 남을 도와주려는 깊은 정을 가진 아들이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하나뿐인 목숨을 던져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부부의 명복을 빈다.

■ 이준엽(취재부장 · 호남주재)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불교 군종병 미달 아쉽다

지난 1월에 사상 최초로 실시된 군종병 공개모집 결과 불교군종병 분야에서는 지원자가 적어 미달이 빚어졌다고 한다.

14명을 모집하는 불교 군종병 분야는 11명만이 응시했을 뿐이었다는 것. 이에 비해 타종교의 경우 모두 초과 지원이라는 결과를 냈다. 개신교는 13명 모집에 108명이 지원해 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가톨릭도 35명이 지원해 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관심이 몰린 결과를 보여줬다.

어째서 불교는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참 씁쓸한 마음이 든다. 군종장교 숫자도 개신교가 불교의 두 배 정도 된다고 한다.

이번 군종병 모집과정에 나타난 결과는 젊은 층의 불교에 대한 무관심으로 젊은 불자가 줄어들고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불교계는 다같이 반성하자. 왜 젊은 층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단 13명을 뽑는 군종병 모집에서도 이같은 결과를 냈다면 불교계의 젊은 층 포교전략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같이 반성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현 불교의 모습이 젊은이들을 매료시킬 수 없다면 불교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정완영(경북 구미시 송정동)

대세 거스르는 출가연령 제한

조계종의 출가연령제한은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도 개혁과제를 선정해서 변호사 회계사 의사 변리사 등 진입장벽을 없앴다. 대신 경쟁이 심화돼 업계 내에서도 양극화된다.

출가 자격조건을 강화하려면 출가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법계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서 주지 등 선출직에 유능하고 자격 있는 인물이 등용되도록 걸러 내야할 것이다. 티베트의 주지직은 엄격한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스님이다.

우수한 사회 자원을 받아들이는데 출가연령제한은 오히려 걸림돌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오히려 나이어린 출가자들이 사회 경쟁력도 없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 법기가 아니라면 그 나이에 발심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인도에서도 인생을 4기로 나눠 노년기를 집을 떠나 수행으로 마감한다. 태고종 등에 사회명망가, 전문가 등이 몰리는 것 보고 조계종은 당황했을 것이다. 출가자 연령제한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연령제한(붓다뉴스)

진정한 '방생'은 무엇인가?

2월 23일은 대보름이어서 전국 여러 사찰에서 방생법회가 열렸다. 예전에는 물고기나 거북이를 강에 풀어주는 방생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방생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물에 풀어주는 것 같은 일차원적인 방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전에 불교계의 방생문화를 평했던 어느 스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상인에게 물고기를 사서 상류에 방생하면 하류에서 그 물고기를 다시 잡아 파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과연 방생인가 하는 것. 그 스님은 차라리 돈을 모아 고기잡이 배를 하루 쉬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진정한 방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산 생명을 놓아준다는 형식에만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결국은 큰 의미의 방생이 아닐까. 진정한 '생명 살림'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윤희태(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지하철 종합운동장역 '절'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지하1층에는 절이 있다. 지하철공사 법우회에서 만든 곳이라고 한다. 우연히 이곳에 법당이 꾸며진 것을 알고는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매월 둘째 · 넷째 화요일 오후 7시에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연다는 것도 너무 반가웠다.

이 근처에 사는 불자라면 멀리 있는 절을 찾지 말고, 지하철 법당을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강상헌(서울 서초구 반포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탈 종 공 고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귀하

관음사	범 해	강대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68-7	동해사	행 오	김재호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240	효충사	반야심	강성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4동 766-12
관음사	일 송	박기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68-7	봉덕사	행 준	신영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53-5	약사암	보 연	길경옥	충남 홍성군 장곡면 고암리 606
관음사	수 산	박형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68-7	선암사	승 신	강운용	전남 광주시 남구 월산4동 946-24	천광사	천 광	김근배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81-1
관음사	청 암	김인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68-7	법륜사	정 묵	이호욱	충남 공주시 신풍면 대룡리 713-1	백경정사	백 경	김용호	충남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277
관음사	행 산	강태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68-7	지장사	행 분	조용순	경북 영천시 매산동 154	견성암	도 인	남철우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26-1
관음사	행 공	백남출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8-6	천국사	행 공	이원호	경남 창원시 팔용동 175-7	길상사	영 보	윤명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29-29
관음사	행 범	정육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68-7	은적사	법 광	황인식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614	삼신정사	법련화	이경원	충남 홍성군 장곡면 지정2리
관음사	행 장	박종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68-7	대명사	행 련	허명자	경남 진주시 명석면 남석리 412	동자암	보현행	이연순	충남 홍성군 장곡면 고삼리 609
관음사	행 영	임영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68-7	범해사	행 은	강남순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2리 무덤치	약천사	행 선	이선호	충남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323
관음사	행 각	신선봉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68-7	익산사	행 효	권영준	전북 익산시 천마동 1028-95	법정사	천 인	이승연	충남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리 148
관음사	행 인	박태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68-7	영덕사	행 법	김종석	경북 영덕군 지품면 늘곡리 123-3	감로암	고 경	이현식	충남 공주시 사곡면 회학리 101
관음사	행 공	이창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68-7	천불사	행 순	조우순	경북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261	계룡사	행 소	정성만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309
일붕사	행 붕	김영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산12-3	광덕사	행 광	김종철	경북 경주시 조양동 526-6	청룡사	행 우	황정순	충남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408
장안사	행 산	신용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590-92	진광사	행 경	임영승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담리 38-2	용문사	법련화	이경원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3구
불광사	행 덕	엄복녀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40	청룡사	행 원	김영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5리 1352-1	보련사	지 암	유해종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산 17-4
대덕사	행 도	류기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1동 397-3	용암사	행 순	권기순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6리 328	관음사	범 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212-1
백운사	일 광	김영호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쌍동1리 산54	천불사	행 금	도을순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48	법장선원	법 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5동 165-5
영평사	정 림	김영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	행유사	행 유	정행유	서울특별시 중구 남학동 26-3	보광사	행 신	만 오	경기도 파주군 문산리
미륵정사	보 현	김춘강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연대리 797	보현정사	보현행	전영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4639	무량선원	혜 명	박성규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09-80
보리정사	행 선	진정순	경기도 안산시 선부2동 1037-19 3층	영천사	행 창	이행창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27-53 신안빌라 1동 105호	감로사	일 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38-3
만덕암	행 덕	최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83-1	봉덕사	덕 광	김명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1동 1053-5	연화사	지 덕	허 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245-2
봉덕사	행 담	조정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053-5	마니정사	행 월	송기호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1089 현대상가 2층 214	연화사	성 재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245-2
관음사	행 영	안정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산 68-7	덕천사	행 주	강주후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 25		수 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광명사	청 곡	정동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1동 48-317	봉불사	봉 불	최갑순	강원도 영원군 남면 연담리	대인사	정 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5동 149-41
광명사	영 석	박차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1동 48-317	운주사	해 량	문형렬	충남 청양군 대치면 형산리 319	석불사	법 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37-5
정각사포교원	행 숙	전영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4639	영천사	정 안	이희순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2구 53-3	총 79명			
정각사포교원	행 석	한기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4639								
묘심사	행 묘	김연자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위 빈도들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부득이 탈종을 공고합니다.

불기 2549년 2월 15일

“그곳에 가면 모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전남 강진 남미륵사, 1만평 대지 가득한 불·보살님과 탑
100만 포기 철쭉도 장관…불자들 기도 소리 그치지 않아

“서원은 반드시 성취된다”


불사를 시작하며 지은 옛 대웅전.

소망의 뿌리가 깊으면 성취도 크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많이 이루는 사람이 있고 적게 이뤄지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럴까?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차이가 관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을 얼마나 간절하게 품고 있으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의 차이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소망은 마음에 품기만 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에 위치한 남미륵사에 가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다. 전국 사찰을 떠돌며 기도를 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법흥스님이 23세의 나이에 품은 소망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 ‘여기에 경전에 나오는 모든 부처님을 조성해 모시고 인연 잇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부처님께 귀의해 성불의 인연을 밝혔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에 매진했다. 물만 먹으며 하루 20시간 이상을 기도에 몰입하기도 했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병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여 그들의 병이 낫기도 했다.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찾아와 스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묻기도 했다. 그렇게 인연이 무르익어 가면서 스님의 기도는 스스로 세운 서원을 이루는 힘으로 나타났다.

법당이 세워지고 부처님이 모셔지기 시작하면서 남미륵사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일궈가기 시작했다. 1만여 평의 대지에 대웅전 망경루 산신각 등 20여 건축물이 들어서고 해수관음, 미륵대불, 석가모니불입상 등 여러 불보살상이 조성되어 점안을 했으며 석조5백 나한도 도량에 가득 모셔졌다. 3층석탑과 13층 석탑 등 다양한 탑도 도량 여기저기에 솟아 있다. 100만 포기의 철쭉을 심어 봄이면 온통 꽃궁전을 이루어 극락세계를 연상케 한다.

무엇보다 남미륵사의 장관은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목탁소리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전각과 탑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의 조화다. <아미타경> 등에 묘사된 극락세계의 오묘한 소리인 듯한 묘음이 항상 연주되고 있는 것이다.

남미륵사의 25년 불사가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 바로 지극한 서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남미륵사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과 서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도 두텁다.

남미륵사는 이제 도량 가꾸기 불사의 정점에 서 있다. 높이 25미터의 청동좌불(석가모니불)을 모시는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는 불사지만 지역민들과 불자들은 이 역시 주지 법흥 스님의 원력과 서원으로 반듯하게 이뤄질 것을 것으로 믿고 있다.

양로원·납골당·장학회로 큰 회향 발원


청동좌불 불사현장.

그 다음 법흥 스님의 계획은 중생에게로 향한 회향이다. 양로원과 납골당을 지어 경로사상 고취와 영가들의 안락처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것이다. 또 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을 돕고 있지만 이를 더 확대하여 나라의 동량 기르기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것이 법흥 스님의 또 다른 서원이다.

남미륵사. 중생들의 소망이 끝이 없기에 연연 있는 중생들에게 극락이 되길 바라는 일념으로 일궈 온 도량 남미륵사는 이제 국토의 남단에서 반드시 한 번 들러보고 싶은 절로 이름을 높여 가고 있다.

남미륵사,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절입니다


▲일주문과 500나한상.


▲용왕전 정면.



▼해수관음상.



▶석굴법당.

▼반야심경이 새겨진 석교.



● 법회 안내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3일
지장재일: 매월 음력 18일
관음재일: 매월 음력 24일
(전화) 061-433-6460

● 남미륵사 가는길

서울고속버스 터미널→강진 터미널→군동면 풍동마을 시내버스 이용
장흥-해남간
18번 지방도로 이용 풍동마을 진입

● 남미륵사 주소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580번지
세계불교미륵대종 남미륵사
주지 법 흥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청소 대통령’ 하충식 한마음병원장





나이가 들어서도 나와 인연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하충식 원장.

몸 낮춰 줍고 쓸면 마음까지 깨끗해져요

직원들과 병원 인근 9년째 아침청소
‘한마음 나눔회’ 결성 매월 성금 전달
10년 된 소형차 … 근검절약 솔선수범

2월 19일 아침 7시 30분. 제법 이른 아침시간에 노란조끼를 입고 손에 집게, 빗자루, 검은 비닐봉지를 든 남자 30여 명이 창원시 상남동 한마음병원 앞에 모여들었다. 이 남자들은 눈인사를 나누는가 싶더니 이내 흩어져 병원 입구부터 인근 도로, 화단,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청소를 시작했다. 병원에서 200~300m 떨어진 무료주차장까지 그들의 영역(?)인 듯 연신 허리를 숙여 담배꽁초, 종이 조각 등을 주워 올렸다. 바람이 심해 이리 저리 뒹구는 쓰레기들을 돌아다니며 주워 올리는 폼이 제법 몸에 익어 보인다. 이 동네 청소를 전담하는 청소부들인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어김없이 만날 수 있는 이 남자들의 정체는 청소부가 아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매일 아침 30분만은 일류 청소부로 변신한다. 이 청소부들은 한마음병원 직원들이고 이들을 대표하는 이가 바로 자칭 ‘청소대통령’ 하충식(46 · 산부인과 전문의) 한마음병원장이다.

금쪽같은 아침 시간을 쪼개 행해지는 한마음병원 직원들의 청소부 대변신은 언제, 왜 시작된 것일까?

“이전엔 상가지역에 병원이 있었어요. 유동인구가 많다보니 자연 쓰레기도 많았죠. 어느 날 아침 병원으로 출근을 하는데 병원 주변이 너무 더러워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더군요. 가뜩이나 아파서 병원을 찾는 분들에게 도리가 아니다 싶어 청소를 결심했죠.”

9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계속되고 있는 아침 청소는 이렇게 시작됐다. 하원장과 직원들의 청소가 계속되자 동네가 변하기 시작했다. 유흥가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구토물, 가래침이 말끔히 사라졌고, 담배꽁초도 찾을 수 없게 됐다. 지금도 직원들의 손길이 닿은 인근 무료주차장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주차장이라는 얘길 듣는다.

“제일 힘든 게 구토물이나 가래죠. 그러나 자세를 낮춰 더러운 것을 치우면서 겸손과 하심을 배우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알게 돼요.”

불심이 깊었던 어머니 길상화(77세) 보살로부터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과 ‘사람이 그러면 안 돼’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자란 하원장에게 청소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실천이며 사람이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도리와 다르지 않았다.

“쓰레기가 보이면 줍고, 또 줍는 것, 그것이 제일가는 청소비법”이라는 하 원장과 병원 직원들의 줍고 쓸기 9년째. 그들이 치운 쓰레기의 양은 하루 비료자루 3~4자루로 지금까지 8톤 트럭 몇 십대 분량을 넘어섰다.

처음에는 ‘정치에 나가려고 생색낸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았다. 그러나 9년 동안의 변함없는 청소와 한국복지재단 경남지부 부회장, 무료급식소 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소외계층을 위해 행하는 하원장의 아낌없는 보시가 그 오해를 말끔히 씻어냈다.

“우리 병원은 참 착한 병원입니다. 매출 대비 불우이웃돕기 전국 1위, 협력업체에 결재를 가장 잘 해주는 병원입니다. 게다가 청소는 세계 제일이니까 착하다고 할만 하지요?”

하원장의 자랑엔 이유가 있다. 10년 전 병원을 개원하고 이듬해 바로 청소를 시작했고 또 한 같은 해 한마음 나눔회를 결성, 전 직원이 사랑의 한 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했다. 직원 250명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1천만 원이 넘는 성금을 전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매년 초파일마다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 200~300명과 함께 대구 우방랜드로 나들이를 가고 있다.

이렇게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겐 후한 하원장이지만 자신의 생활은 근검절약 한 것으로 유명하다. 10년이 넘은 소형 승용차를 지금도 타며 집의 가구는 15년이 더 됐다. 돈 안 드는 달리기, 등산, 족구 등은 즐기지만 골프는 사절이다. 비누 조각을 모아 떨어진 스타킹에 넣어 사용하고, 환경오염을 염려해 샴푸 대신 비누를 쓴다. 또한 하원장을 비롯 직원들들도 9층 건물인 병원에서도 급한 일이 아니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오르 내린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준 종합병원을 시작, 지금의 종합병원으로 키워낸 하원장의 꿈은 최신 설비와 실력 있는 의사를 갖춘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지금도 그 꿈을 향한 준비에 한 치의 빈틈이 없는 하 원장은 최고의 병원을 이룬 후에는 1000명 수용이 가능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양로원을 짓겠다고 했다. 노후를 그곳에서 보내며 직원들과 게이트볼도 치고 봉사도 하고 싶다며 웃어보였다.

법명도 없고, 절에도 이름만 올려놨지만 하충식원장 삶의 중심엔 부처님이 있다. 산부인과 의사인 하원장이 최고의 태교로 ‘팔정도(八正道)’를 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매주 일요일 등산길에 무곡사에 들러 전각마다 삼배를 하며 부처님께 ‘스스로에게 거짓 없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는다.

“절에 가서 아무리 기도하고 절을 많이 해도 나쁜 짓하고 마음 나쁘게 쓰면 소용없잖아요? 저는 청소하면서 기도해요. 쓰레기 하나 주울 때마다 우리 병원 오시는 분들이 웃으며 퇴원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하소서. 나를 믿고 따라주는 병원 직원들이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좋은 병원 만들게 하소서.”

청소가 마무리 되면 병원입구에 전 직원이 모여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병실을 일일이 돌며 환자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하원장은 “직원들은 마음을 나누는 형제요 뜻을 함께 하는 동지”라고 강조했다. 청소로 창원시 문화상을 수상했을 때도 상금으로 직원들 운동복을 선물하며 공로를 직원들에게 돌렸다. 그가 펴는 ‘친정어머니론’이 직원에 대한 그의 마음을 잘 대변한다. 성공해서 돌아온 딸도 좋지만 실패해서 오는 딸도 감싸 안아 주는 게 ‘친정어머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음병원과 한번 인연이 된 직원들은 웬만해선 떠나질 않는다. 출산, 이사 등의 이유로 떠났던 사람도 다시 오겠다고 하면 최우선으로 받아 줄 정도로 사람을 아끼는 곳이어서 장기근속자가 많다.

“나를 믿고 따라주는 병원 식구들이 고맙죠. 스스로 돌아보면서 더욱 노력할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인연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글=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인근지역의 청소를 마치고 나서 하충식 원장과 한마음병원 직원들은 병원입구에서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란 구호를 외치며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여시아문

참선인을 위한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의 육성법문

큰 깨침에 생사를 초월하라!



봉산법어선해
(蒙山法語禪解)



1Set(60분 Tape×8개)
값 18,000원

본참공안을 의심할지니, 큰 의심에 반드시 큰 깨침이 있다. 천만 가지 의심을 한 의심으로 뭉쳐서
본참공안에서 결판을 내도록 하라. 움직이거나 가만있거나 한결같고, 자나 깨나 또렷또렷하여
화두가 나타남이 물 속에 비친 달빛이 여울 속에서도 활발발하여 부딪혀도 흩어지지 않고
없애려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안으로는 고요하여 요동치 않고 밖으로는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 의심 덩어리가 부서지면 바른 눈이 열리는 것이다.

① 고원상인에게 보임(蒙山和尙示古原上人) ② 각원상인에게 보임(蒙山和尙示覺圓上人) ③ 유정상인에게 보임(蒙山和尙示惟正上人)
④ 총상인에게 보임(蒙山和尙示聰上人) 上 ⑤ 총상인에게 보임(蒙山和尙示聰上人) 下 ⑥ 무자십절목(無字十節目)
⑦ 휴휴암주좌선문(休休庵主坐禪文)/대중에게 보임(蒙山和尙示衆) ⊙ {부록} 불교TV 초청 무상사 특별 법회(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

총판 : 여시아문 Tel : 02)737-0695(www.yosiamun.com) / 주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책방 여시아문

나의 수행법

김종근 (하)

진정한 휴식을 맛보다



삶의 핵심부분인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 아마도 이 말들은 중요한 행복의 조건일 것이다.

동사섭 수행법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마음을 다스리는 수심법(修心法)'으로 대답하고 있다. 수심법에는 옴나 명상, 무아관, 독배(獨杯)명상, 지족(知足)명상 등이 있다. 우선 '옴나 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개념화를 하지 않고 의식자체만을 의식하며 깨어있기 위한 수행법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무한 의식 공간은 이미 개념이전이요, 허공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나는 옴나 명상법으로 고요하고 담담한 가운데 걸림 없이 자유로운 진정한 휴식을 체험하게 됐다.

생활속 심신의 흐름 느껴보고 쓰자
부정적 정서 일어날때도 감정 자유로워

무아관 역시 행복의 조건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 무아관은 의식오염의 근본 원인인 '내가 있다'는 실체사고에서 벗어나게 했다. 텅 빈 진공감과 모든 것이 하나 되는 듯한 일체감을 느끼자 나라는 집착이 사라졌다. 혼자 차를 마시면서 갖는 '독배명상'도 내 영혼의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욕구(탐심)들을 발견하고, 그 욕구로부터 벗어나 심리적으로 느긋하게 했다. '지족명상'도 마찬가지. 매사 긍정적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받았다. 지금 이 순간의 느낌수위가 행복수위이라는 것. 이런 느낌에 깨어 있으려는 수행을 꾸준히 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만히 앉아 있거나 걸으면서 심신에 흐르는 느낌을 느껴보기, 발가락에서 머리끝까지 몸을 하나하나 느껴보며 감사하기, 경계(상황)에 따른 느낌을 문장으로 적어보기(느낌노트 쓰기) 등에서도 행복감을 체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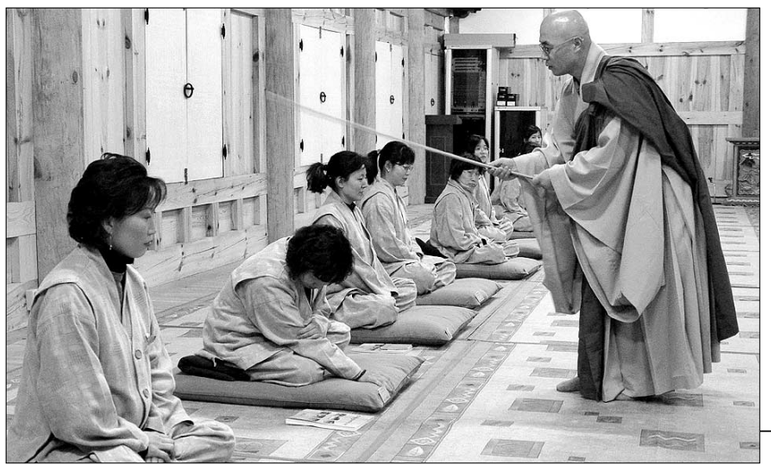
특히 동사섭의 수심법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생각과 느낌(정서, 감정)을 이원화해서 보는 힘이 길러져 부정적인 정서가 일어났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지 마음을 바라볼 수 있었다.

즐겁게 사는 법과 마음의 여유를 얻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는다. 더불어 산다. 혼자 아무리 마음을 잘 알고 관리해 간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 가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다.

우리 가족이 서로 믿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화목한 가족이 된 것, 이것은 동사섭을 통해 나의 '보는 눈'이 변하고, '보여 지는 모습'이 변해 그 에너지가 온 가족 모두에게 스며든 결과였다. 지족 구현의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함으로서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하고, 가족들의 긍정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고,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하니 온 가족이 화목한 분위기다. 가족들이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표현된 그 마음을 받아주니 생기 있는 분위기가 됐다.

자신이 수행하는 수행 방편이 '관념 놀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부터 행복해지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잘 화합하고 그분들이 행복해지도록 내가 먼저 노력해야 한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행복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끝) ■사천고 교사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이 미황사 세심당에서 열린 '특별정진 참사람의 향기' 집중 참선수행에서 잠시 졸고있는 참가자를 장군 죽비로 경책하고 있다.

묵직한 마음의 짐 땅끝에 놓고 가게

탐방 – 미황사 '특별정진 참사랑의 향기'

지난해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 선원장 초청법회'를 시작으로 일기 시작한 선풍(禪風)이 새해들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부산 범어사에서 3월 5일부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선사 초청 설선대법회'가 열리는가 하면 천년고찰 미황사(주지 금강, www.mihwangsa.com)에 재가자를 위한 상설 참선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그동안 참선수행은 출가한 스님들이 전통선원에서 정진하거나, 단기간 한시적으로 여름 휴가철을 이용한 일반인들의 참선수련회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해남 미황사가 펼치는 '특별정진 참사람의 향기'는 불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참선 인구가 크게 늘었고 제대로 된 수행처를 갈구하기 때문이다.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미황사에서 열린 '특별정진 참사람의 향기' 7박8일 참선수행에 동참했다.

서울서 호주서 해남 달마산으로

2월 19일, 우수절기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던 날. 땅끝 해남 달마산으로 일단의 무리가 모였다. 서울 경기뿐 아니라 멀리 호주에서 비행기로 날아온 이도 있었다. 고3이 되는 학생에서 정년퇴직에 이르기까지 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에 큼직한 보따리를 안고 있다.

그 보따리가 문제였다. 현대인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마음의 짐이 이곳 달마산 미황사까지 발걸음을 재촉하게 했던 것이다.

정진의 시작은 휴대폰, 지갑 등 잡다한 살림살이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면서 시작됐다. 황토색 수련복을 입고 나니 저마다 제각각이던 존재들이 외형상 평등해 보인다.

"여러분은 밖으로만 치닫는 몸을 고요히 놓아 두기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몸짓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최신시설 갖춘 수련전용 공간

지도법사 금강 스님의 첫 지도는 사찰예절 습의였다. 좌차(나이순으로 자리배치)에 이어 차수-합장-절에 이어 좌복 위에 앉는 자세가 소개됐다.

여기까지는 여느 수련회에서의 지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입제식도 하기 전에 구참자나 초보자나, 학력, 사회적 지위등이 높은 이나 낮은 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은 위치로 낮아지는 묘한 분위기였다. 이것은 오랫동안 수련회를 이끌어온 금강 스님만의 경륜에서 나온 것이다.

정진은 2년 전에 건립된 세심당에서 펼쳐졌다. 외형은 50여 평 규모로, 전통 사찰양식이지만 내부는 초대형 프로젝트와 최신 음향시설이 갖춰진 수련전용 공간이다. 특별정진에는 수행의 효과를 최대화 하기위해 참가인원을 20명으로 한정해 몇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저녁부터 본격적인 좌선이 시작됐다.

"참선은 삶의 예술이다"고 전제한 금강 스님은 수행에 있어 몇가지 조언을 했다.

첫째, 수행관 안에서 수행하라. 빛과 바람이 접하는 곳에서는 마음을 통찰하는 힘이 없어진다. 수행관에는 항상 좌복이 깔려있으니 언제든 수행관 좌복에 앉아라. 둘째, 끝까지 남아라.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도반의 공부까지 방해하게 된다.

셋째, 졸음에 굴복하지 말라. 넷째, 과식은 절대 금물. 수행기간 중 발우공양을 하고 아침은 죽, 오후불식 한다. 다섯째, 수행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라. 그동안 알고 있는 알음알이, 갖가지 수행법은 모두 버려라.

여섯째, 묵언 등의 수행청규를 지켜라.

알음알이 모두 놓고 묵언 정진

수행 기간 중 익혀야할 습의로 첫날이 지나가고 정진 이틀째를 맞았다. 수행에서 가장 힘든 하루다. 모든 것이 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2~3일만 잘 넘기면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수행이 수월해 지는 것이 수련회의 특성이다.

하루 일정은 좌선 8시간과 울력, 다도, 산행, 법문의 연속이다. 수행은 '40분 좌선, 20분 경행'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은 하루 종일 앉아서 호흡만 한다. 코로 숨을 아랫배까지 깊게 들여 마셨다가 몸 안에 있는 온갖 찌거기와 함께 내 뱉는다.

금강 스님은 "3일째에 수식관(數息觀)을 들고, 숫자를 세지 않고 마음과 호흡이 일치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화두에 들어간다"고 공부의 단계를 소개한다. 각각의 단계는 매일 진행되는 수행점검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참선 수행자의 필독서인 <신심명> 강의와 스님들의 참선법문이 덧붙여지면서 효과적으로 공부가 나아가게 된다.

20명 7박8일간 집중수행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템플스테이가 단순한 사찰체험이라면 '참사람의 향기'는 집중참선 수행이다. 금강 스님은 그동안 갖가지 수련회를 개최해 다양한 수행방법을 시도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명상센터를 찾아가 직접 체험해 보고 가장 한국적인 수행법을 정립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참사람의 향기'이다.

"짧지만 8일간의 수행을 마치면 모두가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익힌 수행은 일상생활에서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참사람입니다." (061)533-3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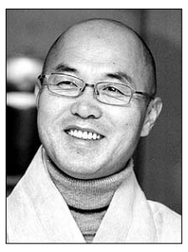
글 · 사진 / 해남=이준엽 기자

<2005년 참사람 향기 참선프로그램 일정>

2차 : 4월 16~23일 3차 : 6월 18~25일
4차 : 8월 20~27일 5차 : 10월 22~29일
6차 : 12월 17~24일

인터뷰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행사기획 경험에서 '7박8일'의 묘안 찾아

"현대인들의 명상과 수행에 대한 욕구는 늘고 있으나 마음내면 언제든지 정진할 수 있는 도량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일반인을 위한 참선 전문 수행도량 조성을 발원한 금강 스님(사진)은 5년 전 미황사 주지를 맡으면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불사를 펼쳤다.

수행관인 세심당이 건립되고, 템플스테이가 성황을 이루자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 새해 들어 '특별수행 참사람의 향기'를 시작했다.

"일주일 단위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 하루가 추가되면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7박8일은 시간을 잊고 수행에 전념 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입니다."

7년 전, 백양사에서 펼친 참사람 수행결사를 맡았던 금강 스님은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4박5일 사찰수련회에서 하루를 늘리면 효과가 두배 이상 급상승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처럼 풍부한 수련회 경험을 바탕으로 내놓은 것이 이번 특별수행 프로그램이다.

더구나 달마산 미황사는 주 5일 근무제와 땅끝 해남이라는 공간적 거리감으로 국내 최고의 수행처로 부상하고 있던 중이다.

사찰 벤치마킹의 대명사로 불리는 미황사는 그동안 '한문학당' '산사음악회' '괘불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산중사찰의 모델로 꼽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련의 행사는 "'참사람의 향기'를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스님의 설명.

일반인을 위한 참선 특별정진을 기획하고 준비, 진행까지 맡고 있는 금강 스님은 "수행은 평생을 두고 가야 하는 길이다"며 "미황사에 오면 누구나 참선의 진면목을 체득해서 갈 것이다"고 말했다.

미황사에서 펼쳐지는 특별정진은 두 달에 한번씩 진행되고, 내년부터 매월 1회씩 정례화된다.

무기와 번뇌의 마음을 무념과 반야로 바꾸는 수행방법과 수행단계

서울 법기불교대학 제4기 모집

바른수행과 바른깨침의 길을 제시하는 서울 법기불교대학이 제4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자예절, 기초교리에서부터 불교의 핵심인 참선수행에 이르기까지를 강의와 수행지도, 점검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법기불교대학 제4기 과정에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법기불교대학 강의일정]

차례	강 의 내 용
1강	입재, 불교바로보기 / 사찰의례 (삼귀의, 사홍서원, 전각·법당, 사찰예절, 합장, 절하는법, 예불문), 108배
2강	중생의 마음 (무기·번뇌, 가아·진아) / 친목의 시간
3강	수행방법 (관법과 염법) / 법담 나누기
4강	요처수행(산행)
5강	기초교리 (4성제8정도, 3법인, 5온, 12처18계, 연기법) / 호흡점검
6강	삼매와 삼매관성, 경계와 법, 업장소멸의 원리 / 선배의 수행경험담
7강	**[토요일]** 철야정진 / 상기의 극복(멜로디), 지식호흡과 반지식호흡
8강	수행자의 건강관리 / 반별 법담 (도반의 수행담)
9강	좌선과 행선 (1시간) / 수행단계와 수행방법
10강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돈오, 무념, 반야, 삼신불) / 이근관, 안근관, 호흡점검
11강	봉사활동
12강	기복불교, 북방불교, 남방불교의 비교분석 / 멜로디 연습
13강	불교상식 바로 알기 / 설문조사, 발원(정근)
14강	수료식 / 선지식 법문

[개강]
· 주간반 : 2005년 3월 4일(금요일) (오후 2:00 - 4:00)
· 야간반 : 2005년 3월 5일(토요일) (오후 7:00 -9:00)

[접수]
· 서울법기선원 (T.02-854-1848)
· www.bubkisa.or.kr (한글도메인 '법기사')

[수강료]
· 총 95,000원 (교재비 포함)

* 강의 내용은 선원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BUBKI BUDDHIST TEMPLE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 기 선 원

안양불교대학교 신입생모집

2005년 기초반 8기, 경전반 6기



본 지장선원은 부처님 정법을 매월 기도와 참회로써 인간 내면의 어둠을 밝혀 올바른 생활과 양질의 삶을 위하여 부처님 교법을 배워 실천수행하기 위하여 대덕 큰스님과 훌륭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교 수 진
- 前 동국대학교 총장, 현 가산불교문화원장, 조계종 원로위원 - 지관 큰스님
- 前 해인사 주지, 서울 수안사 주지, 지장선원 회주 - 세민 큰스님
- 동국대학교 교수, 前 동국대 정각원장 - 법산 큰스님
- 동국대학교 교수, 한국 선학회 회장 - 현각 큰스님
- 중앙승가대학 교수 - 태원 큰스님
- 해인사 해인총림 율원장 - 혜능 스님
-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주지 - 현호 스님
- 前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장 - 권기종 교수님
- "불교방송 108가요" 진행자, 불자 가수겸 탤런트 - 최영준 거사님

강의 일정표
- 입 학 식 : **2005년 3월 11일 예정**
- 강의내용 : 기초반 강의 - 기초교리, 불교학개론, 천수경
  경전반 강의 - 금강경 (권기종 교수님 강의)
- 강의시간 : 기초반 -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 ~ 4시
  경전반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야간반 - (안양시청 공무원 불자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9시
- 접 수 처 : 본 대학 사무실
- 접수마감 : 2005년 3월 5일
- 전화 : 031)444-5935, 5936
  팩스 : 031)444-5655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 · 안양불교대학

최근 명상은 수련의 의미를 뛰어넘어 정신치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약물에 의존하는 치료법을 넘어서 환자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자기변화를 이끌어내는 치유요법이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1950년대부터 요가나 명상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한 데 이어, 90년대 이후부터는 검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치료에 명상을 본격적으로 응용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신경정신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명상으로 질병을 다스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명상과 정신의학'을 주제로 포럼을 연 이후 명상치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명상과 치료를 접목해 정신과 치료에 대안을 모색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을 소개한다.


최훈동 전현수 이정호 최영희 김경승 김경식

명상으로 질병 다스리는 정신과 의사들

정신의학과 명상 '행복한 만남'

명상치료 모임통해 모델 제시

최훈동 원장=한별정신병원 최훈동 원장은 국내의 명상치료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다. 그는 불교명상과 정신치료의 관계에 주목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명상치유의 가능성과 그 효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매주 두 차례씩 목동의 한별심리연구소 선방에서 심리치료사, 의사, 정신과 간호사 등과 함께 심리치료와 명상을 연구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특히 최 원장은 한별정신병원에서 명상치료 모임을 꾸리며 한국사회에서의 명상치료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명상이 정신질환 치유에 있어 약물요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요법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사념처 수행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02)2168-3114

단기출가 경험살려 불교적 접근

전현수 원장=미국 메사츄세츠 의과대학 부속병원 존 카밧진 교수가 10년 이상 5000명이 넘는 환자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고안한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이완 프로그램'. 불교(정념명상 · mindfullness)에 바탕을 둔 이 프로그램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200여개 이상의 병원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선보인 것은 전현수(전현수 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이 처음이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한별정신병원 최훈동 원장이 환자에게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전 원장은 미얀마에서의 출가수행, 일승보살회에서의 불교 공부 등을 바탕으로 불교-정신치료의 접점을 찾아왔다. 2004년 7~8월 불교상담개발원의 상담 전문가 집단에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서울 불광사와 구룡사에서 각각 8주간 두 차례에 걸쳐 강좌를 진행했다. 스님과 일반 신도, 경증의 신경증환자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 원장의 '명상과 자기치유'의 강좌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3차 과정(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구룡사)에 이어 앞으로 구룡사의 영구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계획이다. (02)400-2911

10여년 환자 · 가족 함께 치료

이정호 교수=10년 이상 명상을 통해 환자들 마음의 병을 치유해 온 이정호(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무료 집단 명상치료를 벌이며 100여명의 환자들을 완치시킨 바 있다.

그는 네팔에서 오쇼 라즈니쉬 명상을 접한 이후, 그 가운데 정화의 명상법인 '쿤달리니 명상'을 지도하는 명상치료 교실을 시작했다. 명상치료 자체에 대한 강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도덕경 강의도 마련했다. 치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명상이 신경증 환자들의 인지와 정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02)950-1906

'자기변화' 대신 '자기수용' 이끌어

최영희 원장=인지행동치료의 권위자로 꼽히는 최영희(메타크리닉) 원장은 존 카밧진 교수의 MBSR(Mindfullness-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을 치료에 도입했다.

그는 "인지행동치료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사고의 변화'지만 치료자의 30%정도는 내적인 변화가 어렵다"며 "'자기 변화'가 어려운 이들은 '자기 수용'으로써 치료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것의 가장 적합한 방법은 명상"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현재 MBSR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년간의 준비 기간을 마무리짓고 있으며, 오는 6월경 병원 내에 명상센터가 오픈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02)549-8871

알코올 중독 환자에 맞춤 명상

김경승 원장=고담의료재단 마야병원의 김경승 원장 역시 존 카밧진 교수의 MBSR 프로그램을 환자 치유에 응용하고 있다. 그는 특히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대상으로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에게 4주간의 명상 프로그램 등을 틈틈이 제시해 왔다.

김 원장은 MBSR 프로그램의 정형화된 틀을 깨고 환자 증상별로 가장 적합한 명상 케이스를 개발하는 데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또한 내년 도심가에 위치한 울산병원 오픈에 맞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깨어있는 삶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054)336-3311

주 5일 하루 14시간 트레이닝

김경식 원장=가람신경정신과의원 김경식 원장은 특별한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환자들 증상에 따라 '명상' 처방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 원장의 오랜 명상수행 경력을 녹여 정형화된 틀을 벗어난 명상 해법이 제시된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명상 프로그램은 여타 프로그램과는 달리 강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김 원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4시 반~ 오후 7시 동안 이어지는 하드트레이닝을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할 의지가 있는 환자에 한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02)859-8500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7> 목욕탕에서 법력 시험받은 신수와 혜안

오조홍인 스님의 제자들 중에 이른 바 방계(傍系)로 불리는 인물들이 <전등록(傳燈錄)>속에 여럿 나온다.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신수대사와 혜안국사일 것이다. 아시다시피 신수는 <육조단경> 속에 등장하는 까닭에 이미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혜안국사는 128세로 입적했는데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후인들이 노안(老安)이라고도 불렀다. 120세를 사신 조주선사를 능가하고 있다. 현대에도 종교인이 가장 오래사는 '직업군'으로 분류해 놓은 통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예나 지금이나 마음을 다스리고 사는 덕에 스트레스를 비교적 덜 받아 장수할 수 있었나 보다.

이 두 큰스님 사이에 느닷없이 측천무후라는 희대의 여걸이 등장한다. 측천무후의 신심이야 이미 불교집안에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역사가들의 정치적인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신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 때문일 것이다. 정치와 종교는 서로를 위해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정치의 발전역사 자체가 어찌 보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시녀들 목욕시중 들게한 측천무후 탕 들어가도 수위 변함 없었던 혜안을 국사로

하지만 측천무후의 신앙적 순수성을 인정한 관점에서 문제를 본다면 덕높은 스승을 국사로 모셔서 사심없는 지혜의 안목으로 선정을 펴고자 함이었다.

당나라 당시 신수와 혜안은 그 법력을 중원 천하에 떨치고 있었다. 신수대사는 무후의 초청으로 머물고 있던 옥천사에서 장안의 내도량(內道場)에 들게된다. 당시 신수대사는 장안과 낙양을 오가며 왕공과 고관대작 사이에 교화를 펴고있는 중이었다.

반면에 혜안선사는 백애산에서 40여년 동안 동구불출(洞口不出)하면서 오로지 수도에만 전념했다. 하지만 무후가 3번이나 사신을 보내서 간청하므로 어쩔 수 없이 산에서 내려와야만 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근데 측천은 누가 더 법력이 높은지 시험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스스로 별로 공부한게 없어 법거량으로 누가 더 도인인줄 알아내는 것은 애초부터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궁리 끝에 그녀다운 방법을 찾아냈다.

두분에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녀들을 시켜서 목욕시중을 들도록 하여 '쇠로 만든 부처님이라고 할지라도 땀이 날' 상황을 연출했다. 먼저 신수가 물에 들어갔다. 즉시 목욕물이 넘쳤다. 다음으로 혜안이 들어갔다. 물이 그대로였다. 그렇게 목욕이 끝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시녀들이 설명을 하자 측천은 이렇게 찬탄했다.

"물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진짜도인을 알게 되었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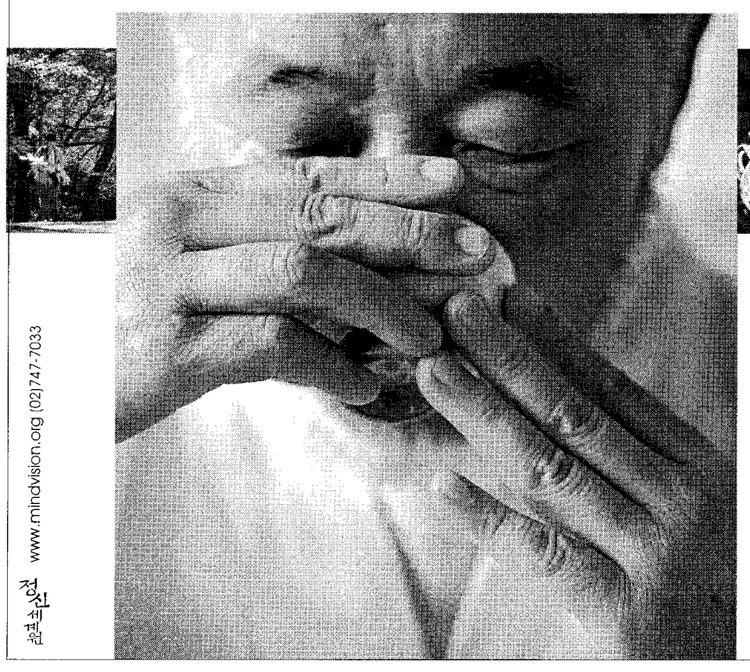
그리하여 미인을 보고도 몸에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은 부동심(不動心)의 혜안을 국사로 모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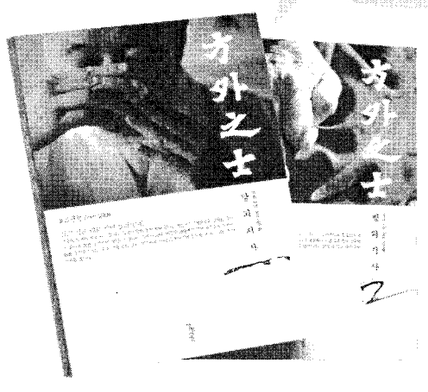
희랍의 아르키메데스는 욕조에 들어가자 자기 몸의 양만큼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는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골짜기에서 묻혀있던 산승인 혜안은 목욕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당시 유명한 고승인 신수보다 더 법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 과학적 진리 발견과 종교적 법거량은 이렇게 목욕탕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곳곳이 모두 진리의 도량인 것이다.

하기야 시험당하는줄 알았으면 신수대사도 얼마든지 물 한방울 넘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텐데 매사를 일상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임하다 보니까 무후의 피상적인 눈에는 도가 덜 닦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었으리라. 측천보살이 자기잣대로 고승의 법력을 저울질한 것도 기발하기는 한데 더 깊은 곳을 보지못한 한계는 어쩔 수 없다.

그렇기에 요즘, 아무나 와서 법거량을 하려고 달려드는 통에 문을 걸어 잠그는 선지식이 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方外之士!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인생에 정답은 없다, 나만의 길이 있을뿐 …
직장에 얽매여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만 하다가 한 세상 끝나는 것인가? 갑갑한 삶의 틀에서 빠져나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은 과연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 백수의 제왕에서 무림고수까지 고정관념과 경계선 너머의 인생을 사는 13인 방외지사들에게서 진짜 잘 사는 법을 찾는다.
MBC 뉴스에 방영된 화제의 책
출간 즉시 교보, 예스24, 알라딘 베스트 진입



방외지사 1·2
조용헌 지음 (강호동양학자,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조용헌의 사주명리학 이야기〉 지자. 현재 조선일보에 '조용헌 살롱' 연재 중)
김홍희 사진 / 각 권9,000원
방외로 뛰쳐나가 행복을 찾은 우리 시대 삶의 고수 13인 이야기
* 20년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집을 수목원으로 일구는 시원 박태후의 귀거래사
* 뗏목 타고 서해 바다를 탐험하는 장보고의 후예 윤명철 교수의 대담무쌍한 도전 정신
* 백수의 제왕 강기욱의 "눈 먼 새도 날아다니면 먹을 것이 입에 들어온다"는 백수 철학
* 교사 출신으로 중국 제 1의 도교 문파인 화산파 23대 장문인이 된 곽중인의 여자 신선의 길
* 할리 데이비슨 타고 팔도를 돌아다니는 전직 기자 출신 시인 이원규의 지리산 생존법
* 역술계의 이종격투기장인 부산에서 입신양명한 박청화의 진기한 역술 공부 이야기
* 서울 이태원에서 계룡산으로 삶의 무대를 옮긴 산중무예 기천문 문주 박사규의 인생 역정
* 50년 세월 동안 한라산에서 화두를 잡고 초절의 삶을 사는 비구니 대각심 이야기
* 전국의 강을 두 발로 걸어다닌 신정일의 "걷다보면 길이 보인다"는 뚜벅이 인생
* 의사는 부업, 주업은 도학으로 평생 스승을 찾아다닌 내과의사 이동호의 구도 역정기
* 차 잎 냄새만 맡아도 원산지를 맞추는 품명가 손성구가 들려주는 인생 최고의 맛
* 실상사 앞에서 70 평생 발우를 만들며 살아온 지리산 터줏대감 김을생의 자연주의 인생론
* 늙어갈수록 아름답다는 나무의 철학을 깨치며 전통의 혼맥을 이어가는 소목장 이정곤의 삶
"인생에 정답은 없다, 나만의 길이 있을 뿐…." 오늘의 한국 땅에 사는 행복한 아웃사이더들의 인생행로를 저자의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낸 책. -「조선일보」 박해현 기자
정신세계원 www.mindvision.org (02)747-7033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34)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법

불교는 지구적 화두인 생태학에 친화적입니다. 그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요. 둘 사이의 연관은 분명해 보이는데, 아직 본격 체계화는 되어있지 않아서, 불교생태학(Buddhist Ecology)은 아직 걸음마에 있습니다. 동국대가 여기 착안하여, 에코 포럼을 창안했습니다. 과학과 철학, 이론과 실천이 교류하는 이 잔치의 마당에 저도 토론자로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불교생태학과 에코포럼

저번 2월 12일이군요. 발제는 고영섭 교수가 하셨는데, 그분은 생태학의 위기와 그 불교적 해법을 붓다의 사성제의 틀에 빗대 인상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요약해 드리자면, 1) 고: 무엇이 문제인가. "푸른 대리석 구슬-하늘 위에서 본 지구를 가리킵니다- 이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혼란과 파괴가 심화되고 있다." 2) 집: 왜 그렇게 되었는가. "법계(法界)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무지로 하여 그리되었다." 3) 멸: 이 상황은 개선될 수 있는가. "연기(緣起), 즉 사물들의 상호의존과 상호연관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해결의 관건이다." 4) 도: 그럼 어떤 구체적 조치가 필요한가. "잊혀진 팔정도를 삶의 길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은 이 진단과 해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제에 대해 토론을 맡으신 구승회 교수께서는 "과연 그런가?"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물의 상호의존과 상호연관을 통찰하는 것만으로 지구 생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너무 순진하고 상투적인데다 순환논법의 딜레마에 걸려 있지 않은가."

다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물음은 아주 중차대합니다. 불교생태학뿐만 아니라, 불교 구원론의 근본 테제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그동안 들은 제 강의를 참조하고, 이 문제를 깊이 성찰한 다음,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오늘은 제 토론을 두고 오간 얘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고 교수께서는 생태의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예의 불교적 해법인 '욕망의 억제와 최소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욕망은 억제되지 않는다. 최소화도 글쎄… 누구나 욕망을 추구하며, 자신의 존재를 극대화하려 한다. 해법은 욕망의 성찰과 대치에 있지 않을까." 저는 다이어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다이어트의 비결도 음식의 종류를 바꾸거나 양을 줄이는데 있지 않다. 관건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있다!"

당신 뱃살이나 빼고 하는 소리요?

그러자 저 뒤편에서 어느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엉터리없는 소리를…. 정말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소? 성공했다면 어디 증거를 보여주시오."

저는 웃으며 일어나 배를 걷어 올렸습니다.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겠지요. 누드가 아니니 상관없지만…."

입고 있던 바지는 한 2인치 이상은 헐렁해서, 주먹이 드나들 정도입니다. 말이 난 김에, 오늘은 먹는 얘기에, 제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옛적 원시인들은 한번 식사에 물경 30킬로그램을 먹어치웠습니다.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고 며칠을 잠만 잤다는데, 언제 다시 먹게 될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의 공포는 인류의 오랜 무의식적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악덕이란 기독교나 유교의 설명과는 달리, 아직 적응 안 된 옛 습관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천지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데, 아직도 원시의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우걱대며 먹습니다. 간판 가운데 둘에 하나는 음식점이고, 내놓은 음식들도 상다리가 휠 지경입니다. 걸판지게 먹고도 상에는 남은 반찬이 낭자합니다. 밀려드는 손님에 급히 상을 치우는 소리가 가슴에 짜안히 맺힙니다. 아깝다! 하는 탄식이 절로 입에 맺힙니다. 대부분 싸 달라기 상그러운 것들입니다.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경고하는 성인병이나 암의 위험 등은 질리게 들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이 둔해집니다. 많이 먹으면 피가 위장으로 몰려 머리가 맑아지지 않고, 그 결과 집중력과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과식이 습관화되면, 감각의 기능이 떨어지고, 사물에 대한 생생한 접촉이 둔화됩니다. 꽃이 피는지, 바람이 부는지, 사람이 웃는지 우는지, 술이 무슨 맛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 흐릿함에 취하다 보면, 아니 그래도 조는 인생에, 우리는 확실히 꿈속에서 살다 가게 됩니다. 좀, 억울하겠지요.

퇴계와 더불어 영남의 좌우를 갈랐던 큰 선비 남명 조식(南冥 曺植, 1501~1571)은 찾아온 고위 관리와 식사를 하다 말고,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등줄기'로 먹지 않고, '목구멍'으로 먹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음식은 역시 등줄기로 먹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살기 위한, 요즘 말로 웰빙의 바탕입니다. 이 기본 없이는 어떤 요가도 수련도, 장식도 성형도 모래 위의 누각입니다.

몸짱-위태로운 신화

사람들도 음식 먹는 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열풍입니다. 이미 불어버린 몸을 줄이고, 그 몸을 새로 '만들기' 위해, 헬스클럽을 찾고 있습니다. 지지난해 겨울, 하버드 대학의 학회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호텔 텔레비전 채널 중 여섯 개가 다이어트와 피트니스를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가리는 법을 설명하고 워킹 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는 진풍경을 두고 혀를 끌끌 찼더니, 어느 미국인 여교수가 "그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제 느낌과 판단을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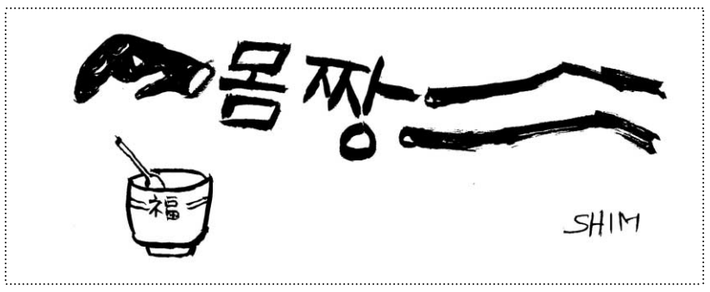
퇴계 어르신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는 정신(理)과 신체(氣)가 있다. 정신은 귀하고, 몸은 천하다. 정신을 존중하면(踐理) 몸이 자연스럽게 길러지나(養氣), 몸만들기에 치중하면, 정신이 황폐해진다." 요컨대, 음식만 줄인다고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헬스를 열심히 다닌다고 정말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몸의 물신화는 지금 위험 수위에 와 있습니다. '몸짱'이 전국을 달구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강도건 흉악범이건, 아줌마건 할아버지건 10대의 슬림한 몸매를 갖는 것이, 그리고 탤런트의 얼굴을 모방해 갖는 것이 선망을 넘어 신화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퇴계 어르신의 경고대로, 몸만들기(養氣)에만 치중하여 자기 자신을 잃고(賤性)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몸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도도한 '몸'의 시대에,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쌍팔년도의 철지난 확성기 소리 같아 보이지만, 잘 살고 싶다면, 그러나, 웃지 않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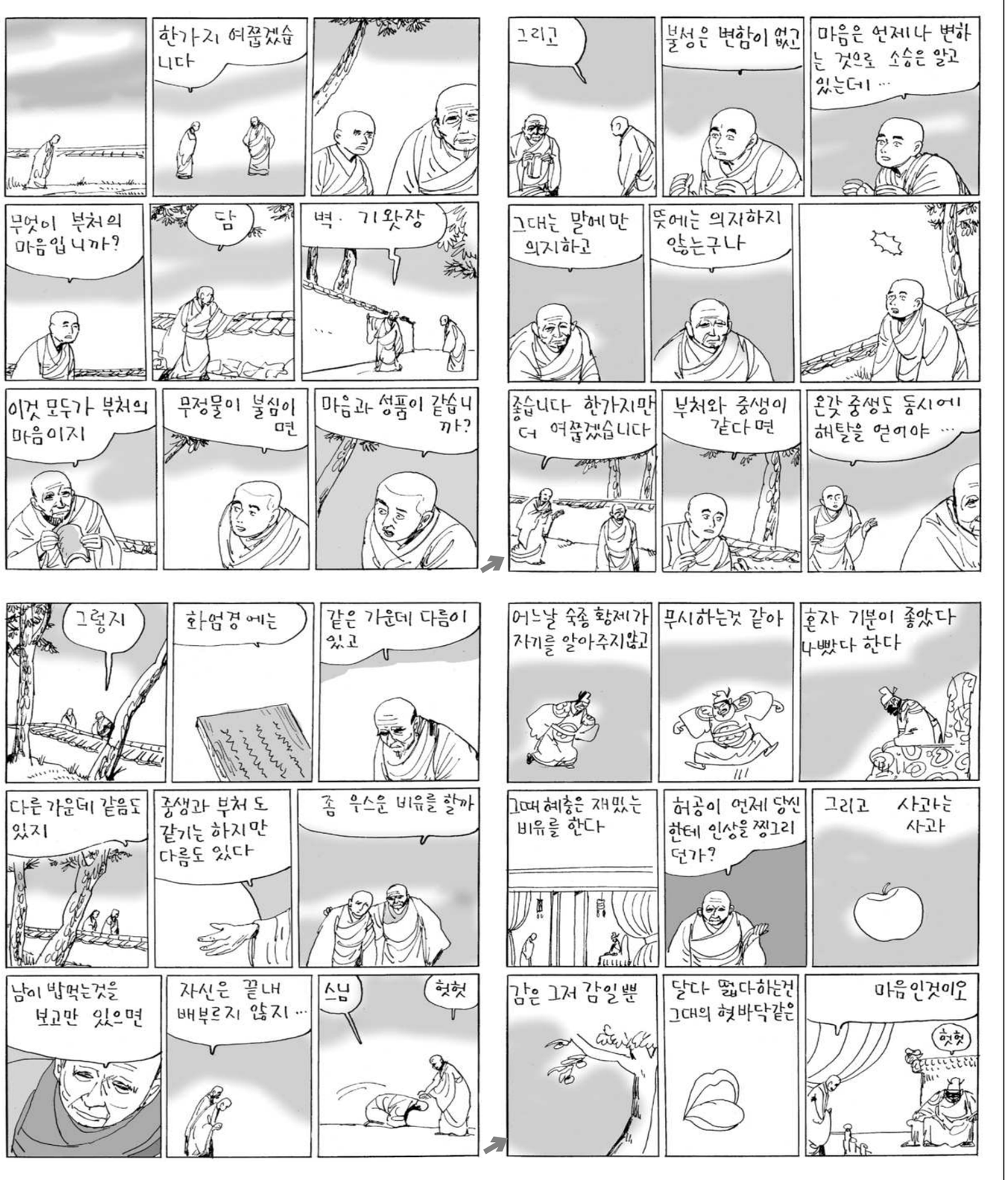
건강의 비결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 또한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에코 포럼에서 만나 저녁을 함께 한 어느 음식-마음 전문가께서는 그 이치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잘못된 음식 습관은 주로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 그것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다이어트와 건강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음식은 목구멍 아닌 등줄기로 먹어야



주장자따라… ⑰ 혜충 선사의 '허공'

조태호



남양혜충(?~775): 당대선사. 절강성 소흥부 출생. 6조 혜능에게 배우고 법을 이음. 남양 백애산에서 40년 수행. 숙종이 국사로 모셨다.

네티즌 교리문답

"대승과 소승의 차이는?"

문 소승, 대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로 구분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승과 소승이 같은 것이겠지만,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승의 완성이 곧 대승으로 이어진다고도 하는데, 대승의 경계에 오른 사람은 뭐가 다른가요? 〈태극〉

답 1 : 대승이나 소승이나 다 같은 이름뿐이지만, 굳이 분별해 구분한다면 소승이란 이승 즉 성문·연각으로 이들은 해탈이 있다고 허망하게 헤아리고 집착하는 사람들인데, 이는 〈능가경〉에서 "수다원은 열반을 향한 탐욕을 버리지 않는다. 아라한은 마음을 의지하는 허물이 있다"라고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대승이란 그것이 있는 것 같은 없는 것임을 터득해 모양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참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진여성이 아니다"라고 했고, 〈반야심경〉에서는 "무명도 없고, 육근·육경이 없으며, 의식계까지 없으므로 고집멸도가 없다"라고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신론〉에서는 "수행자가 경계를 그치는 수행을 할 때는 보고 듣고 깨닫는 앎에 의하지 말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개울)

답 2 : 대승은 큰 배를 탄다는 뜻입니다만, 대승의 경계에 오른 사람은 남과 나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를 동일 시 합니다. 혹시 〈금강경〉을 보신 적이 있나요? '무주상보시'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보시한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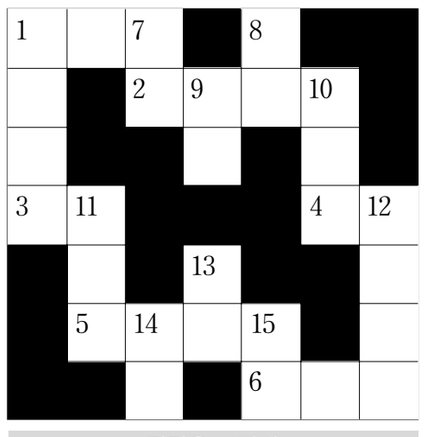
불교의 용어 하나 몰라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대승입니다. 작은 옹달샘(소승)의 물이 수많은 곳에 존재하지만, 그 물이 옹달샘이라는 울타리에 연연하지 않고 흐른다면 큰 바다(대승)에 다다르게 되지요. 열심히 대승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설)

답 3 : 소승에서의 경계는 보통 사과(四果)라 합니다.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등인데, 아라한은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라한은 성인에 속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소승의 아라한은 대승에서 말하는 견성과 다릅니다. 소승의 견성은 견도(見道)라 해 '도의 이치에 이르러 영통(靈通)이 생긴다'는 의미이고, 대승의 견성은 '확철대오를 해야 얻어져 신통(神通)이 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학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일 2. 전투나 군사상의 공무 준에 상처를 입은 군인 3. 평강공주와 바보○○ 4.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 5.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나타내는 한자성어 6. 봇짐장수와 등짐장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세로 1. '삼일은 춥고 사흘은 따뜻하다'는 겨울철 날씨를 표현한 말 7. 신라시대의 고승으로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함 8. 불도를 방해하는 '온갖 번뇌나 악사(惡事)'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10. 예술에서 인상주의를 좇는 한 갈래 11. 습기가 많은 때에 나와 이끼를 갉아 먹거나 풀 위에 올라가 어린잎 등을 먹고 삶('산와'라고도 불림) 12.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한자성어 13. 동력을 쓰지 않고 손으로 움직임 14. 지난해의 마지막 달 15. 산성 밖에 임시로 구축한 소규모의 요새

天·地·人으로 본 우리절 22곳

민속학자 조용헌 교수가 18년간 발품 팔아 꼽은 풍광 수려하고 호젓하며 고승 많이 머무른 곳



조용헌의 사찰기행 조용헌 지음 | 이가서 펴냄 | 1만6900원

사찰은 번뇌를 없애고 '본래부처'를 찾기 위한 수행 장소이다. 그곳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의 사상이 녹아 있다. 사찰은 종교적 영험을 배제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또 사찰은 선지식이 깨달음을 얻었다고도 알려져 수행자들이 구름같이 몰리기도 한다.

사찰에는 수천 년이 넘게 이어져 오던 우리 조상들의 민속 신앙도 숨어 있다. 산신이 있고, 칠성이 있고, 용왕이 있다. 천 년이 넘는 고찰마다 그 절의 독특한 역사가 들어 있다.

이 책은 조용헌 교수(원광대 대학원)가 지난 18년 동안 발품을 팔아다닌 우리나라의 사찰 22곳을 소개하고 있다. 선운산 선운사, 모악산 금산사, 두승산 유선사, 금강산 건봉사, 북한산 승가사, 미륵산 사자사, 연암산 천장사, 오대산 상원사, 수봉산 홍련암 등.

이 책에 등장하는 22곳 사찰에는 천문(天文), 지리(地理), 인사(人事) 즉 삼재(三才)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서 최초로 사주명리학을 강의하는 지은이 특유의 시선이 담겨 있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 책은 불교를 매개로 해서 아직까지 살아 숨쉬는 한국의 민속신앙이 사찰이라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녹아 흐르는지를 불교민속학자의 시각으로 조명한 일종의 사찰 기행문집이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사찰의 3대 조건은 호젓하고, 고승이 많이 머무른 곳이어야 하며, 주변 풍광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김제 만경 평야의 아스라한 지평선 끝자락에서 서해를 마주보고 있는 망해사를 가리켜 3대 조건을 충족시킨 사찰이라고 선뜻 꼽는다. 그래서 그는 "월급쟁이들이여, 한탄만 하지 말고 해질 무렵 장엄하게 붉은 빛이 감도는 바닷물을 보러 오라. 그 노을빛에 마음을 던져보라"고 속삭인다.

지은이에 따르면 스님들은 수행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사찰을 찾거나 짓는다고 한다. 도선 국사는 불령산에 올라 목적지도 이정표도 없이 능선과 계곡을 탔다. 그리고 마침내 상서로운 기운을 느끼며 7일동안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다는 곳이 바로 청암사 수도암이다. 또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가 1년간 보림했다는 연암산 천장암도 명당중의 하나로 꼽힌다.

절터의 기운이 센 곳만을 좋아했다는 만해 스님이 한때 머물렀던 금강산 건봉사는 풍운아 같은 만해 스님의 기질을 닮았다고 지은이는 소개한다. 건봉사가 대체적으로 골기가 어린 암산의 절이라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바위 투성이의 센 터에 자리잡은 금강산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건봉사는 전문수행자나 기가 센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찰의 터가 때론 민간신앙 역할을 할 때도 있다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대표적인 흔적이 연못 자리에 절을 지은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가 민간신앙으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숭배해온 용(龍)에 있다는 것이다.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이고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인데, 가뭄에 비를 내려주는 것은 상상의 동물인 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미륵신앙의 발원지인 익산 미륵사를 비롯해 김제 금산사, 경주 황룡사, 치악산 구룡사, 장흥의 보림사터 등 수많은 사찰들이 연못 자리에 지어졌다.

지은이는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도량도 소개한다. 임랑 묘관음사, 동리산 태안사 등이 바로 그것들인데 바다에 절이 위치한 것은 주변이 확 터져 마음이 트이며, 만물을 포용하는 포용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행의 방법인 해조음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한다. 타성에 젖을 때는 소리에 집중하는 수행이 효과적인데 그 소리들 중에서 파도소리(해조음)가 좋다는 <능엄경>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주로 불상이나 탑 등의 미술사적 입장에서 바깥에 드러난 성보문화재들을 소개한 사찰기행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절을 다니던 우리 조상들이 보던 풍수, 민속신앙 등이 내재된 내부적 시각의 사찰 소개서라는데서 이색적으로 다가온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산중 사찰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바닷가 사찰 김제 망해사 마당은 드넓은 서해로 이어진다. 사진제공= '이가서' 출판사

전문가 서평



참 아름다운 도전1·2
이병철 엮음 | 명상 펴냄 | 각권 1만2천원

미완의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 여성 정치세력화의 기수 에바 페론, 피임시대를 연 선각자 마거릿 생어, 현대무용 창시자 이사도라 던컨, 편견에 희생된 천재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 등 20세기를 빛낸 35명 여성들의 치열한 열정과 당당한 삶의 태도를 보여준 책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단 한 순간도 타협이란 것을 용납하지 않고 격동의 20세기를 도전과 변신을 거듭하며 온몸으로 살아낸 그들의 삶을 단지 여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평가하지 않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즉 기존의 틀을 과감히 부수고 변혁의 꿈을 이루려는 강한 의지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35명의 여성들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순간의 이야기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통쾌하다.

1권의 부제는 '세상을 뒤바꾼 여성들'. '시대를 앞선 눈'으로 헤쳐나간 숱한 사연을 만날 수 있다. 로자 룩셈부르크 등 낯익은 이름도 많지만 낯선 인물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2차대전 중 스

20세기를 바꾼 빛나는 여성들

탈린을 앵글로 첫 포착하는 등 30~50년대 지구촌 주요 현장을 누빈 사진기자 마거릿 바크화이트, 베트남전선의 첫 여성 종군기자 오리아나 팔라치, 레닌을 감탄시켰지만 혁명이후에는 레닌과 치열한 논쟁을 벌인 볼세비키 이론가 알레산드라 콜론타이 등의 생애는 그 동안 많이 드러나지 않은 불꽃같은 삶이다.

2권은 '여자가 못할 일이 무엇인가!'로서 탐험과 모험에 나선 삶을 다룬다. 좀 거칠게 구분할때 1권이 사상·예술·페미니즘 등 투쟁의 열기가 넘치는 정신의 영역이라면, 2권은 몸을 매개로 한 스포츠의 세계로 흥미롭게 읽힌다.

남자의 고유 영역이었던 스포츠에서 남자가 무색할만한 기록을 남긴 여성들의 발자취를 더듬고 있다. 에베레스트에 오르고, 남극점까지 혼자 걸어가고, 59세에 6,768m의 고봉을 등반한 당찬 여인들의 삶이 이어진다.

이밖에도 '참 아름다운 도전'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삶을 연대기별로 정리한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곁들여 감동을 더한다. 최초의 여성 에베레스트 정복자인 일본의 다베이 준코를 제외하곤 모두 서양인이라는 게 걸린다. 물론 나혜석, 김활란, 모윤숙 등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위대한 여성들은 얼마든지 많다.

책에서 잠시 눈을 떼어 우리 현실을 돌아보자. 여성을 억누르는 관행과 제도들이 도처에 수두룩하다. 여성계에서 꼽는 호주제의 존재가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이렇게 어둠과 싸우는 이들에게 케이트 밀레트가 저서 <성의 정치학>에서 "가정(가부장제)을 파괴하라"고 외친 대목은 큰 힘이 될 것이다.

굳이 이런 각론이 아니라도 '참 아름다운 도전'을 시도했던 여성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호주제가 상징하는 악습들의 수명이 거의 다했다는 느낌을 준다.

■**김태연**(강릉대 여성학 강사)

생활상담, 최면-전생상담, 빙의치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심리상담전문가이지 최면-전생치료전문가가 직접 상담과 교육을 해드립니다.

- 불안증
- 우울증
-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 각종 알레르기 문제
- 비만문제
- 홧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 빙의 문제

• 상담지도전문가 -



설기문 박사 : 교육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최면 및 전생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치료"과 같은 다수의 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마인드피트니스 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1062-2번지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mindcoach@naver.com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정 원 : 24명~30명 내외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축 하 합 니 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지정

임석환 선생님의 단청장 지정을 축하드립니다
문 하 일 동

깊이 더 깊이 읽는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이범교 옮김 | 민족사
전2권 | 각권 2만5천원



연구 논문 2천여편 참조
학계 다양한 학설 각주

행간에 숨은 은유와 상징
새로운 시각서 입체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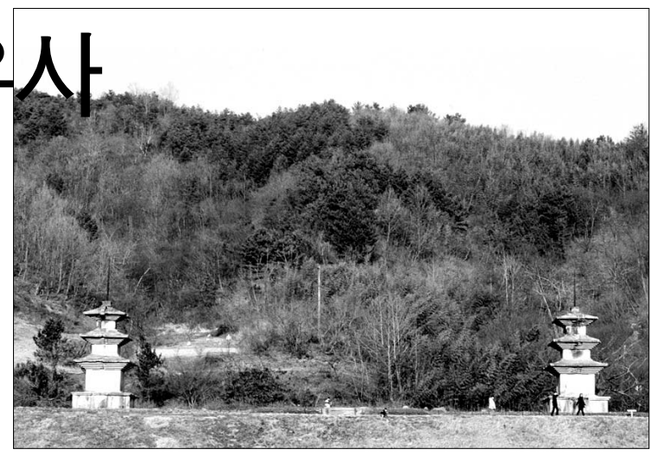
최근 서울대가 발표한 '대학생이 읽어야 할 권장도서 100선'과 실제 지난해 서울대 중앙도서관 인기 대출도서 목록 20선 사이의 공통 서적이 박경리의 <토지> 단 1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고전'이 존재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준다.

'민족 제일의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삼국유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려 충렬왕 때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이 저술한 이 책 제목은 줄줄 꿰고 있지만, 정작 그 책을 한 번이라도 펼쳐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몇 페이지만 읽다보면 어려운 한자투성이에 수시로 귀신이 등장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의 나열이라는 생각에 책장을 덮어버리기 쉽다.

신라문화원 이범교(53) 전문위원은 이러한 <삼국유사> 읽기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사학자나 전문 번역가도 아닌 그가 최근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을 펴낸 이유는 상징과 함축에 담긴 의미를 현대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삼국유사> 관련 서적들에서 '결핍감'을 느낀 것도 바로 행간에 숨겨진 은유와 상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신이사(神異事)는 단순한 귀신의 이야기나 허무맹랑한 설화가 아니라 신라인들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며, 인간성의 모든 면을 투영한 것이며, 우리 민족이 획득한 지혜를 나타낸 것이다."

1천100여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삼국유사>를 종합적으로 재해석한 이 책의 장점은 수많은 기존 학설들을 비교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은이는 <삼국유사> 번역을 위해 국회 도서관에서 관련 연구논문 2,000여 편을 복사해 참고했고 원문의 구두점은 최남선의 <증보삼국유사>를, 대본의 오탈자는 <이병도역주본>과 <리상호역주본>, <삼국유사고증본>을 비롯해 10종에 가까운 판본을 일일이 대조했다. 또한 219개의 도표와 143개의 지도 및 그림, 332장의 사진을 실음으로써 <삼국유사>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경주 감은사지 전경.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문무왕은 죽어서도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감은사를 지었다고 전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책에서는 우선 <삼국유사>의 전체적인 구성과 각 편의 체제를 분석한다. <삼국유사> 9개편의 구성과 이를 통해 일연 스님이 '불국토구현(佛國土具現)'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를 찾아본다. 예를 들어 삼국의 역사 변천과정과 불교의 전파 과정을 나란히 둠으로써 불교의 흥망과 국가의 흥망이 일치한다는 의미가 함축되도록 엮었다는 것 등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단군신화 주몽신화 혁거세신화 연오랑세오녀 처용랑 등의 설화에서는 그 속에 숨겨진 상징의 원형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은이는 머리말에서 "<삼국유사>를 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나침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펴냈다"며 "자료취합의 한계나 오류 등을 함께 짚어가며 <삼국유사>를 이해하는 유용한 자료집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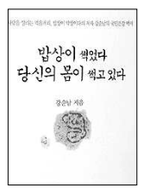
■ **<허공의 북>**(시광 스님 글/그림, 이화문화출판사, 1만원)="들린다 듣는다/ 저 추위를 뚫는 울림/ 산골짝 막힌 돌문 여는 소리/ 겨울 잠에서 덜 깬 철 소녀/ 푸시시 일어나 생명의/ 근원으로 살며시 미소지으며/ 서서히 다가온다" ('입춘' 전문) 강원도 원주시 부처동에서 수행 중인 시광 스님의 시화집. 사계절을 주제로 '사원의 아침' '푸른 바닷가' '차공양' 등의 시와 그림을 묶었다.



■ **<앙코르와트·월남가다>**(김용옥 지음, 통나무, 전2권, 각권9천8백원)=철학자 도올 김용옥이 지난해 6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여행하고 쓴 일기를 묶은 책이다. 지은이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똑같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전혀 다른 세계관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캄보디아는 인도 문명의 압도적 영향 아래 자신의 문화를 꽃피워 브라만교와 불교의 '신화적' 세계를 구현한 반면, 베트남은 중국 문명의 지속적 유입으로 유교 문화를 체화함으로써 현실주의에 입각한 '인문적' 세계를 펼쳤다는 것이다.



■ **<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강순남 지음, 소금나무, 1만2천원)=자연식 연구가 강순남씨가 제안하는 '건강 밥상'. 강씨는 동물성 지방과 '5백(白) 식품'으로 불리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흰조미료, 흰소금의 섭취를 줄이고 제철에 나는 과일과 야채를 껍질째 먹는 식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중포교의 큰 별 광덕 스님 육성법어집

정법광명이 영원하여 지이다
광덕 스님 지음
불광사회과학연구원



광덕 스님 법어를 모은 CD '호법편'(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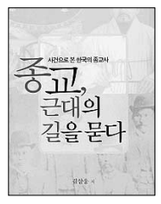
"모든 사람은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성되고 더불어 이 사회를 지킬 수 있는 진리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호법(護法)이 이 일을 해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불교 대중포교에 한 획을 그은 금하당 광덕 스님(1927~1999)이 평소 강조한 말이다. 스님의 열반 6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어총람' 첫권이 발간됐다. '법어총람'은 광덕 스님의 가르침을 호법·행사·일반·강의·기타편으로 나누어 출간되며 이번에 그 첫 번째로 '호법편' <정법광명이 영원하여 지이다>가 나온 것이다. 불광사회과학연구원(원장 지성)은 불광법회에서 스님이 설했던 법문을 녹음한 테이프를 일일이 녹취해 원고로 정리, 책으로 펴내는 한편, 스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CD로도 발매한다.

한편 2월 20일 서울 불광사 보광당에서 봉행된 6주기 추모법회에서는 대각회 상임이사 홍교 스님, 불광사 前 주지 지정 스님,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을 비롯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 <정법광명이 영원하여 지이다>와 '광덕 스님 육성법어 CD 호법편' 봉정식도 함께 열렸다. 광덕 스님의 맏상좌인 지정 스님은 봉정사에서 "광덕 큰스님은 대중 속에서 불법을 홍포하기 위해 한평생 정진하셨다"며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전 사부대중이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 포교하자"고 말했다. (02)413-6060

우리 종교의 부끄러운 근대사

종교, 근대의 길을 묻다 김삼웅 지음 | 인물과사상사 | 9천원



1922년 3월 26일, 서울 종로 거리에서 한 스님이 '불교계 대악마 강대련 명고축출'이라는 깃발을 들고 거리를 왕복했다. 불교유신회 회원들이 불교 개혁에 반대하고 친일매불에 앞장 선 수원 용주사 주지인 강대련에게 '명고축출(鳴鼓逐出,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쓴 북을 치며 돌아다니도록 하는 것)'이라는 벌을 내린 것이다.

'대한매일' 주필과 성균관대 교수를 역임한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이 감춰지거나 잊혀졌던 근대 종교의 행적을 수면 위로 떠올렸다. 지난 2년 동안 '종교신문'에 연재했던 내용을 묶은 이 책에서는 국내외 혼란기였던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종교계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의 이면사와 친일, 배교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해 싣고 있다.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의 항일운동과 친일 행적뿐 아니라 증산교와 대종교, 원불교 등의 민족종교의 탄생, '천자(天子)'를 자처하며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보천교 등의 사교(邪敎)까지 천태만상의 종교를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종교가 마주한 그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짚어 봄으로써 종교의 참 의미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작을수록 나누자, 숨통이 트인다

'현대 사찰건축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 복도를 지나 여러 번 발길을 꺾고서야 도착하는 향적당의 선방에는 좁은 모서리 창 이외에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없다.

"어차피 선방이면 벽을 보나 창을 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선방에서 보는 것은 결국 풍경이 아니라 내면의 자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건물을 설계한 이가 바로 건축가 이일훈이다. 천주교 '자비의 침묵 수도원'과 '하늘담은 성당' 등의 종교 건축을 설계하기도 한 그는 "종교 건축은 항상 '여기'라고 하는 장소성과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성을 통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시대정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형 속을 걷다>는 사무실을 이전하며 엄청난 분량의 건축 모형을 부순 후 '생각의 집'인 모형에 담긴 자신의 건축관과 건축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이다.



1990년대 지은이가 국내 건축계에 던져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설계방법론인 '채 나눔'에 담긴 '불편하게 살자, 밖에서 살자, 늘려 살자'는 건축관을 소개한다.

모형 속을 걷다 이일훈 지음 | 솔 | 9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3	오체투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4	유쾌하게 읽는 불교	고명석	동숭동
5	생활 속의 기도법	우룡 스님	효림
6	입보리행론	샨티데바	하얀연꽃
7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소운 스님	도솔
8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	청화 스님	이른아침
9	숨을 기차게 잘 쉬는 법	청견 스님	붓다의 마을
10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	장휘옥 외	더북컴퍼니

도서 안내:(02)737-0695


선수행 문답집,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억겁 무명의 체증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어줄 선수행에 대한 문답집!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안목으로 통쾌하게 답하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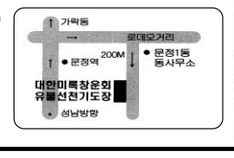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문화원형콘텐츠 총람’ 계기로 본 불교계 현실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첫 ‘문화원형 콘텐츠 총람’을 펴냈다. 2002년부터 시작한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작업과정과 그 응용방안을 담은 자료집이다. 진흥원은 디지털 시대에 창작소재로 활용가능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것에 디지털의 옷을 입힌 작업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총 61개 과제 개발을 완료한데 이어 현재 40여개의 새로운 과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불교를 소재로 한 개발 프로젝트의 수는 채 10개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불교 문화의 원형 복원작업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참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 불교관련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시장에서 벌써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진행돼온 불교관련 디지털콘텐츠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도약을 위한 과제 등을 살펴본다.



(주)여금이 개발한 부석사 무량수전 3D 모델.

시장은 넓다…외면 계속되면 ‘남의 재산’

풍부한 자산 불구 기획 · 재원 · 마인드 모두 부족

‘원소스-멀티유즈’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
교육 · 해외홍보 자료 등 활용 폭 다양
문화재와 상품 사이 갈등 극복 과제로



호법신중 범천, 가섭존자, 16나한 가락가발리타사, (왼쪽부터)의 3D 모델(호남대 정석규 교수팀 개발).

디지털콘텐츠, 개발만 하면 무한 가공 가능

콘텐츠(contents)란 본래 문서 등의 내용이나 목차를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관련 저작물의 내용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하는 용어가 됐다. 불교문화 콘텐츠 역시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유형의 성보문화재를 비롯해 불교교리, 수행법 등 무형의 불교전통문화가 불교문화 콘텐츠일 수 있다.

이처럼 자산은 풍부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사용가능한 불교문화 콘텐츠들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이 아날로그적인 콘텐츠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정보들이 디지털콘텐츠화된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특히 3D나 VR,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한 단계 더 가공될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더 커진다. 불교설화나 교리 등을 녹인 애니메이션으로 교육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3D로 제작된 불교 캐릭터나 문화재 등은 게임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매체의 소재나 배경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즉, 하나의 원천콘텐츠가 다양한 문화산업에 적용되고 무한 가공이 가능한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multi use) 개념이다. 불교문화산업에 미래가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상업적인 활용 이외에 포교의 효과도 크다. 불교문화콘텐츠 사업은 뉴미디어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불교 포교의 수단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문양 · 캐릭터 · 설화 · 승무 등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은 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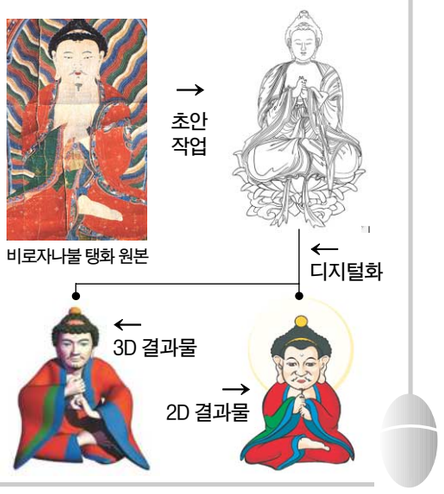
적경 스님(봉인사 주지) 등의 개인이 불교 게임을 고안한 사례도 있지만, 불교관련 디지털콘텐츠 개발은 그 대부분이 진흥원의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억대에 이르는 개발비 때문이다.

호남대학교 인터넷미디어대학 정석규 교수는 2002년 한국불화(탱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2D, 3D, SD 캐릭터로 재창조하고 이들을 이용한 플래쉬 애니메이션을 기획했다. (주)엔알케이는 만봉 스님의 단청문양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주)투알앤디는 불교를 배경으로 행해진 국가의례 ‘팔관회’를 디지털콘텐츠로 재구성 · 복원했다.

초기에 문양이나 캐릭터 중심으로 이어졌던 작업은 2003년부터 한층 다채로워졌다. (주)여금은 실측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국보급 불교사찰들의 디지털 복원을 통해 영상세트 개념에 충실한 ‘디지털 세트’를 개발했다. 이는 게임이나 방송, 전시장 등의 배경세트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한서대학교 애니메이션영상연구센터는 감로탱의 디지털 가공을 통해 문양과 캐릭터를 활용하는 한편, 탱화 자체의 다양한 도상에서 사건 상황 시나리오를 추출했다.

2004년부터 시작돼 현재 개발단계에 있는 모델들은 문화콘텐츠산업 시장에서의 응용가능성이 더욱 크다. 재단법인 전남문화재연구원은 1600여 편의 불교설화를 검토해 100여 편의 시나리오 창작소재 및 시각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전남대학교는 대표적인 10기의 석탑을 선정해 디지털로 가공하고 있다. 교육문화콘텐츠, 관광콘텐츠 등 활용의 폭이 넓다.

불교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례



또한 (주)프리진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국의 춤 디지털콘텐츠를 각각 개발하면서 승무 동작을 디지털로 복원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승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로도 기능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문화 콘텐츠 상품화 전망 밝다

진흥원과 각각의 업체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불교관련 콘텐츠들은 진흥원의 유통사이트(www.culturecontent.com)를 통해 일반에 공개 ·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말 오픈한 사이트를 통해 개발 성과물들이 콘텐츠시장에 본격적으로 선보임에 따라 불교문화 디지털콘텐츠 사업의 가능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주)엔알케이가 추진한 만봉스님의 단청문양 콘텐츠의 경우, (주)누리미디어를 통해서 학교 및 관공서용 E-book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 엔알케이측은 일본판 · 영문판 판매사이트를 올해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정석규 교수가 개발한 불화캐릭터들은 ‘스튜디오 난다’를 통해 애니메이션 ‘수미산 유람기’로 제작돼 방송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주)여금의 사찰 건축 디지털 세트는 전라북도 고건축문화재 리소스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진흥원 문화원형팀 구경민 씨는 “개발된 콘텐츠들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도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불교 관련 콘텐츠들의 활용도는 높은 편”이라며 “불교문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보편화됐기 때문에 소재만 제대로 발굴한다면 콘텐츠 상품화 전망은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무관심…밖에서 더 관심 보여

불교문화 원형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불교계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무관심에 앞서 불교문화의 디지털콘텐츠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어 개발업체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여금의 콘텐츠개발자 도기봉 씨는 “모 사찰의 전각을 3D로 복원하기 위해 촬영을 협조했으나 카메라에 함부로 담을 것이 아니라며 쓴소리만 들었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전남문화재연구원 임승남 이사장은 “포교와 불교문화 진흥을 위해 불교계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 상품가치에만 주목하는 일반 업체에 의해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불교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사찰건축 3D 콘텐츠 하나가 100만원(사찰 건축 디지털 세트 중 ‘도갑사 해탈문’ 기준)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일반 기업체들이 이 같은 콘텐츠 개발을 등한시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주)엔알케이 정명희 사장 역시 “불교계는 불교문화의 상업적 활용가치에 대해 너무 모른다”며 “앞으로는 디지털화된 문화원형을 현대화시키는 작업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신지용 팀장은 “훗날 우리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지급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라며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달라이라마 일본법문 및 사찰순례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일본 가나자와, 음악당에서 2일간 법문을 하십니다.
이번 일본 법문은 인도에서만 친견하던 존자님을 일본에서 뵙고 법문을 듣고, 또한 벚꽃이 만발한 교토,오사카 등 사찰 순례를 하고자 합니다. 인연 있는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좌석 관계로 30분만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출발일 : 4월 15일 ~ 19일(4박 5일) ● 여행경비 : 110만원
- 장 소 : 일본 가나자와와 석천현립음악당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제1일 4/15(금)	인 천 고마츠 가나자와	JL 994	12:25 14:05	인천국제공항 출발 고마츠공항 도착, 가나자와 시내 이동 후 일본 3대명원 겐로쿠엔 관광 후 호텔 투숙 및 휴식(대욕장)
제2일 4/16(토)	가나자와	전용버스		오전 : 묘립사, 일본전통다원 히가시차야 관광 오후 : 석천현립음악당 달라이라마 법문 및 공식행사 참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온천욕)
제3일 4/17(일)	가나자와 야마나카	전용버스		전일 석천현립음악당 달라이라마 법문 및 공식행사 참석 후 야마나카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온천욕)
제4일 4/18(월)	야마나카 교 토	전용버스		야마나카 출발 벚꽃이 만발한 교토 도착 후 금각사, 청수사, 동본원사등 순례 후 호텔 투숙
제5일 4/19(화)	교 토 오사카 인 천	JL 963	15:10 16:55	오사카로 이동, 사천왕사 순례 및 오사카 성, 신사이바시, 도톰보리 등 시내 관광 후 칸사이 공항으로 이동 오사카 출발 인천공항 도착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1>



안거가 끝난 후…

부처님께서 가비라위국 니구율원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 때 신앙심이 깊은 마하남은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비구들이 식당에 모여서 세존을 위해 가사를 짓고 있다. 세존께서 머지않아 석 달 동안의 안거를 마치고 가사가 다 지어지면, 가사를 입고 발우를 들고 인간 세상을 유행하실 것이다."

마하남은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부처님 계신 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온 몸에 힘이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예전에 들었던 가르침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조만간 안거를 마치면 부처님은 비구 스님들이 지은 가사를 입고 세상을 유행하실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헤어지면 저는 언제나 지금처럼 부처님과 친한 스님들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마하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세존을 보거나 세존을 보지 않거나, 친한 비구들을 보거나 보지 않거나 간에 그대는 오직 다섯 가지 법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닦아 익혀야 한다.

마하남아, 바른 믿음을 가져라. 계를 완전하게 갖추어라. 가르침을 열심히 들어라. 항상 베풀어라. 지혜를 완전하게 갖추어라. 이 다섯 가지를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여라.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다섯 가지에 의지하여 여섯 가지 생각하는 법[六念處]을 닦아야 한다.

여섯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여래를 생각하는 일이다. 여래를 생각할 때에는 여래에게 열 가지 이름이 있음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생각하여라. 둘째는 법을 생각하는 일이다. 여래가 가르친 법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생각하여라. 셋째는 승가를 생각하는 일이다. 수행을 충실히 한 수행자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들이 어떤 수행을 하였는지, 그들에게는 어떤 덕목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여라. 넷째는 계를 생각하는 일이다. 생명 있는 자들을 해치지 말고, 주어지지 않은 것은 갖지 말며, 그릇된 욕망에 빠지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 다섯 가지를 언제 어느 때라도 기억하고 생각하여라.

다섯째는 보시를 생각하는 일이다. 보시를 하면 인색함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보시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에게 베푸는 것임을 기억하고 생각하여라. 여섯째는 하늘을 생각하는 일이다. 선업을 짓고 선정을 닦으면 하늘에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여라.

거룩한 제자로서 앞의 다섯 가지와 뒤의 여섯 가지를 잘 이루면 배운 자취가 남아서 결코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잘 알고 볼 수 있으며 잘 결정되어 감로문에 머물 것이다."(잡아함경 제33권(932경))

석 달 동안 마하남은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안거 중인 수행자에게 음식을 베푼다는 것은 참으로 큰 공덕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처님께서 자기 마을에서 안거하셨으니 석 달 동안 부처님은 온통 '자기 차지'가 되어 수시로 법을 묻고 공덕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거가 끝나 부처님이 떠나시면 이제 누구에게 법을 묻고 어떤 수행을 해야 할지… 그의 난감함이 고스란히 전해옵니다. 우리도 이제 막 동안거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종래 안거는 출가 스님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재가불자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스님들의 일과와 거의 다르지 않게 참선을 하는 이들도 많아졌고

스스로를 의지해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잡아함경' 11가지 가르침따라 가행정진을

기도를 올리거나 또는 염불과 절 수행도 하는 등 그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자들의 새로운 신행모습을 만날 수 있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이야 약속한 기간인지라 입승 스님의 매서운 경책도 있고,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 어떻게든 수행을 이어갈 수는 있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석 달 뒤의 나날이 문제입니다. 꽉 짜여진 일정에서 풀려나 자칫 공들여 쌓아온 수행의 탑을 무너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를 예감이라도 하셨는지 종정스님께서는 "결제는 스승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요, 해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이라는 동안거 해제 법어를 베푸셨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이 뭘까 궁금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잡아함경의 가르침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열한 가지 사항들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안내자가 되어 감로문 앞까지 인도해 드릴 것이요, 그렇게 열한 가지를 스승삼아 석 달을 지내다보면 어느 사이 구슬땀 속에서 수행의 참맛을 알게 해 줄 하안거 입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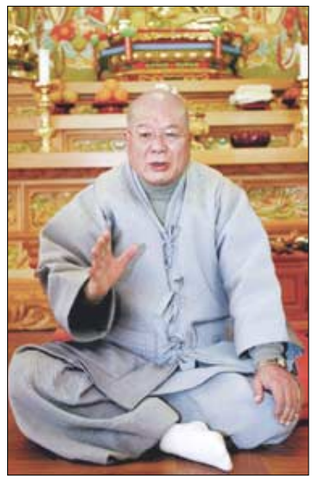
사람만 지구의 주인인가



지상 백고좌

혜경 스님

(양주 화담정사 조실)



<법화경>의 권위자인 혜경 스님.

최근 인류는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지진 해일과 홍수 가뭄 등 이상 기후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이 훼손된 지구에는 해가 갈수록 재앙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중생들은 '인류가 무엇에 의해서 아니 어떻게 하여야만 구제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있지요.

지구문제에 관심 있는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답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불교의 올바른 가르침(正法)에 따른 보살도(菩薩道)의 실천(行)이 그것입니다. 보살도의 실천을 통해 인류를 구하고, 자기도 건질 수 있어요.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살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보살도는 반야(지혜)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란 너와 내가 하나 즉 동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반야는 베푸는 동안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행의 최고 형태를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동체대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보살의 회향은 일체중생이 다같이 행복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원래 이타행(利他行)이 기본인 것입니다.

이타행은 자비심을 발하여 남의 곤란을 덜어주는 행위입니다. 남을 위한 행을 통해 자신의 번뇌망상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은 작지만 조금이라도 나눠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재물이 넉넉해 도와주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사찰에 가면 목어가 있지요. 목어는 눈 뜨고 잠자는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목어를 바로 눈뜨고 잠자는 중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어를 두드리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경책하는 의미가 강하지요.

불자들부터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경책한 뒤 사고를 전환해야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상과 작용이 그대로 '도(道)'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서로 독립 자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이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기는 상호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물이나 무생물까지도 '우주의 대생명'에 의해 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는 근본적으로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보면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상호 공존 공영해야 합니다. 사람만이 지구의 주인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

석가세존이 입멸한 후 약 2500년간 고승대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생들이 우주의 실상을 증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주의 실상을 증득한 고승대덕 마저도 언어와 문자의 부족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던 관계로, 불교는 자연히 민중과 멀어지고 일부계층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기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욱이 근래에는 서양의 신문명이 휩쓸면서 불교의 세계관이 묻혀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은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아 지구를 포함해 모든 생물과 무생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라면 자연을 아무렇게나 이용하고 소비하고 파괴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인간과 자연은 공존의 원칙을 어기고 지배하는 개념을 가지면서 환경오염은 가속화됐고, 서로에게 불행을 안겨준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 생물과 무생물 할 것 없이 서로가 존중하고 깊은 우애를 가지고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공존의 틀속에 우주 전체의 대조화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다른 생물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잘못을 즉시 반성하여 바로잡지 않는 한 지구는 갈수록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질 뿐 절대로 구제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절대 물질의 풍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이 기원정

자연과학 · 인문학 · 예술학 등 두루 해박… 법화경 권위자

혜경 스님은 현재 양주시 화담정사에 머물고 있는 세수 72세의 혜경 스님은 새로운 포교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스님은 "요즘 불교계에 문제가 많다"며 "가장 먼저 불사 개념이 틀렸다"고 일갈했다. 스님은 "전국 곳곳에 절 짓느라 날 새는 줄 모른다"며 "지금 같은 시대에는 있는 절을 '팔아서라도' 포교를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그것이 포교를 본령으로 하는 불교"라고 설명했다.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학을 아우르는 해박함과 정교한 논리로 부처님의 교리를 쉽게 설명해 주는 스님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경전을 가르칠 때도 항상 믿음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실천행을 강조한다.

스님은 '법화천태' 홈페이지를 개편해 내달에 재개통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놓은 저술과 번역 내용을 후학들이 좀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보완을 거듭해 인터넷으로 서비스 하겠다는 것.

수행하며 틈틈이 경전번역에 주력해온 스님은 <법화경 이야기>(범우사), 법구경 입문(범우사), <법화삼부경>(문학예술사), <우리말 법화경>(도서출판 삼양), <법화경 총설>(도서출판 삼양), <관무량수경>(집문당) 등을 펴냈다.

1933년 전남 여수에서 출생한 스님은 56년에 서울대 문리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출가했다. 스님은 법화사에서 혜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혜경(惠耕)이란 법명을, 아옹 스님에게서 회옹(晦翁)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스님은 재단법인 법화종 유지재단 이사장과 법화불교대학 학장을 지냈다.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법화경>의 권위자로서 경전공부모임을 이끌며 그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참옻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山寺 참옻조청 · 약도라지조청

어혈, 노폐물, 피로독소, 적체의 매소 / 손발저림, 몸의 냉증, 다이어트 / 위장, 심장, 신장등 / 오장육부기능 정상화 / 신경조율, 관절염, 항암, 원기회복에 기여

기관지, 천식, 기침의 완화 / 호흡기 질환개선 / 폐기능 강화, 피로회복 / 거담, 배농 작용에 기여

속이 편안하면 오래살고 몸이 따뜻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 山寺 참옻조청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거사님의 비법으로 참옻 나무의 유독성은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옻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山寺 참옻조청은 국내산 좋은 원료만을 사용하여 사찰에서 7일동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솥 고아지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 山寺 약도라지조청은 천연 야생 약도라지에 야생약초를 가미하여 약도라지의 약성을 배가시켜 고농축 시킨 고품격 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 054-372-3166 054-372-5721 금용사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 현순희
(산사 참옻조청과 약도라지 조청은 주문에 의해서만 만듭니다)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초급에서 고급과정까지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임상실습
▶ 개강 : 2005. 3. 2.
수 · 목반 / 금 · 토반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 경로자 우대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장소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의학전문의 이호섭 박사의

석불 사랑 20년

천년의 미소 - 한국석불을 찾아서



이호섭 글/사진
문장출판사
가격 : 9만 5천원

"저마다의 얼굴과 수인(手印)을 가진 우리 석불들에서는 은은하고 고요한 미소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세에 이르러 수많은 石佛은 많이 훼손되기도 하였으나,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유산임이 분명하며 소중한 예술품입니다. 이 귀중한 유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한국석불문화연구회 고문 이호섭 박사가 20여년 간 전국 550여 곳의 석불을 직접 답사하며 찍은 사진과 약도, 조성연대, 특징 등을 정리했다.

구입문의 : 02)2678-3042
이호섭 이비인후과



양주 화담정사에 주석하는 혜경 스님은 불자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 보살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사에 계실 때 집착을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뗏목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집착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비구들아 어떤 나그네가 긴 여행 끝에 바닷가에 이르렀다. 그는 생각하기를 '바다 건너 저쪽은 평화로운 땅이다. 그러나 배가 없으니 어떻게 갈까? 갈대나 나무로 뗏목을 엮어 건너 가야겠군.' 하고 뗏목을 만들어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다. 그는 다시 생각하였다. '이 뗏목이 아니었다면 바다를 건너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뗏목은 내게 큰 은혜가 있으니 메고 가야겠다' 고 마음 먹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뗏목에 대해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야 자기 할 일을 다하게 되겠는가. 그는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뗏목으로 인해 나는 바다를 무사히 건넜다. 다른 사람들도 이 뗏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에 띄워 놓고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그 뗏목에 대해서 할 일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뗏목의 비유로써, 교법(敎法)을 배워 그 뜻을 안 후에는 버려야 할 것이지 결코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였다. 너희들은 이 뗏목처럼 내가 말한 교법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말할 것 있겠느냐'

불교는 깨달음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불자들은 그 깨달음에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깨달음은 팔만대장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쉽게 얘기하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참선삼매에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20% 의식의 세계를 포함해 4차원의 세계인 80% 무의식의 세계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아득한 과거부터 미래까지 두루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새벽에 샛별보고 깨달았다는 것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우주 전체 생명체를 관통시켰다는 뜻이지요. 깨달음은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우주관 인생관을 갖게 될 때 명확해집니다.

부처님은 어떤 형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실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형상은 없지만 성품은 이 세상에 두루하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있다는 것은 힘과 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보면 영혼이 없습니다.

무아(無我) 즉 자성(自性)이 없기 때문에 식(識)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전생의 나와 현생의 내가 동일성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전생과 현생이 한마음이지만 부모의 행위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장소와 공간이 다르면 형제들의 생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면 틀려버립니다.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으로 아는 내증(內證)이라고 하는데, 즉 '자기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간 행위로 보여주셨습니다. 의식은 언어가 있지만 무의식의 세계에는 언어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모두 방편인 것입니다. 하지만 방편도 진실함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상좌부는 절대절명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만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대승부는 부처님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이 중심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난행도(難行道, 자력으로 오랜 시간 수행)와 이행도(易行道, 불보살의 원력에 의지해 생활 속에서 수행)의 차이만 있습니다.

현재 불교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참선입니다. 하지만 참선은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부 계층만 가능한 난행도입니다.

모든것 버려야 해탈의 문 통과

그래서 중생들은 일상에서 부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염불 주력등 이행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염불 주력등 이행도를 하면서도 쉽게 무의식의 세계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아미타불' 만 번, 저녁에 '준제진언(나무 사다남 삼약 삼못다 구치남 옴자례 주례 준제 사바하 부름)' 천 번을 고성(高聲)으로 염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귀로 들어서 정화되고 우주의 파장과 자신의 파장이 일치될 수 있습니다. 염불을 하면서 반드시 덕도 함께 베풀어야 정화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라면가 어떤 일을 회향할 때는 자신의 공덕을 남에게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음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바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남을 위해 수행하십시요. 불교의 이치를 알고 보면 애당초 마음은 비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깨닫겠다는 마음도 결국 집착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복을 얻고 해탈의 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정리= 김원우 기자 · 사진= 고영배 기자



지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만허 스님

한라산엔 눈이 많이 온다. 눈이 많이 오고 겨울이 길다. 제주 한라산엔 그리고 노루가 많다.

긴긴 겨울, 먹이를 찾아 노루들은 이리저리 떼지어 다닌다.

한라산 관음사 마당까지 노루들은 내려와 먹이를 찾아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곤 한다.

만허 스님, 그는 이런 노루들에게 하루 한차례씩 먹이를 나누어 주었다. 시래기와 죽넝쿨 썰어 놓은 것, 동백나무 여린 잎들을 따서 포대자루에 담아놓은 것들을 꺼내 노루들에게 나누어주곤 했다. 마치 어린 자식들에게 모이를 주듯이 그렇게 정성들여 노루들을 보살피곤 했다.

노루들은 만허스님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았다. 겁이 많은 짐승들이지만 경계하지 않고 그의



그림 · 문병성

주위에 몰려들어 손으로 건네 주는 먹이를 받아 먹곤 했다.

양껏 먹이를 받아먹은 노루들은 고맙다는 듯이 만허 스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산중턱 쪽으로 하나 둘씩 올라간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면 어김없이 다시 관음사 마당으로 내려왔다.

노루들과의 은밀한, 친밀한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만허 스님과 노루들과의 깊은 약속은 긴긴 겨울 내내 끊이지 않고 지켜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하나의 무언(無言)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다.

만허 스님은 김장철이 다가오면 이리저리 탐문을 해서 배추와 무, 시래기들을 수집하여 트럭에 가득가득 실어 오곤 했다. 그것들을 정성스레 포대자루에 담아 창고에 보관했다.

긴긴 겨울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노루들을 위한 그의 배려는 가히 눈물겨울 지경이었다. 그것은 실로 보살행이었다. 보살행을 실천하는 만허 스님의 행위는 아주 침착하고 성스러워 보였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 행하는 그의 무뚝뚝하면서도 믿음직스런 보살행은 관음사 여러 대중스님들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자주 들리는 신도 보살님들도 그를 도와 노루들의 먹이를 같이 챙기곤 하였다. 그것은 동행(同行)이었다. 동행, 함께 가는 길. 그리하여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 거기 그들에게 있었고, 여러 일들이 원만해졌다.

누덕누덕 기운 누더기를 걸치고 노루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는 만허 스님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대자 대비한 부처님의 행로(行路)를 만허 스님, 그는 그렇게 몸소 따라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제주 한라산 관음사는 추운 겨울에도 따스했다.

펄펄펄 눈 내리는 한겨울 오후, 노루들과 어울려 있는 만허 스님의 모습은 한 폭의 동양화, 한 폭의 수채화였다.

세상은 견디기 힘든, 견디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하다.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해 절망하고, 어떤 이는 죽음을 결심하기도 한다. 안타까운 일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어나는 이 번다하고 처참한 계절의 언덕받이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김장철마다 시래기 만들어 겨우내 노루들에게 나눠줘

그 와중에서 아직까지 제정신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내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그나마 제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찾아, 자기의 할 일을 찾아 무언(無言)의 보살행을 행하는 우리의 도반 만허 스님 같은 이들이 존재해 있기에 그러하다.

무슨 보상을 바라고, 무슨 내세움을 위해 행하는 것은 진정한 행(行)이라 할 수 없다.

아무런 사심 없이, 스스로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저 어떤 강한 '부름'에 의해 행해지는 행(行)이야 말로 진정한 구도(求道)의 참 모습이다.

'만허', 만가지를 만사(萬事)를 모두 비워버린다는 그의 법명처럼 스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한겨울, 펄펄펄 눈 내리는 제주 한라산 관음사의 마당에서 노루들과 함께 교감(交感)을 나누는 그의 뒷모습은 진실로 아름다웠다. 우리는 그를 일러 우스개 소리처럼 '만허 보살'이라 하였고, 그는 그저 허허로운 표정으로 미소짓곤 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비구의 삶이 산자락에 어리는 저녁노을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무너져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만허 스님, 그와 함께 보낸 몇 해의 세월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이 겨울 저녁에 눈이 내린다. 눈은 내려서 온 산천을 덮고 나뭇가지들을 부러지게 만들고 지나간 일들을 아득하게 만든다.

만허, 만사를 비우고 허허롭게 하는 그의 보살행이 영원하길 바란다. ■ 봉화 청량사 주지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비단등) 팔모조립등 팔모접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봄바람과 함께 그 자태를 드러낸 동백꽃. 고창 선운사 동백꽃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들리세요? 봄이 오는 소리

봄의 전령 동백축제 열리는 남도 사찰과 섬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오히려 남았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은 선운사 동백꽃의 아름다움을 '선운사 동구'라는 시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가수 송창식은 또 선운사의 동백꽃을 "눈물처럼 후두둑 떨어지는 꽃"이라고 노래했다.

미당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동백이 빨간 꽃망울을 터트리며 봄이 옴을 제일 먼저 알리고 있다. 고창 선운사와 강진 백련사, 여수 향일암 등을 찾으면 아름답기로 유명한 사찰을 동백꽃과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말 그대로 꽃도 보고 사찰도 보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수 오동도, 거제 지심도 등도 상춘객(賞春客)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고창 선운사 동백꽃 다른 지역의 동백꽃이 지기 시작할 때 선운사 뒷산에서는 동백꽃이 피기 시작한다. 500년 전에 조성됐다는 천연기념물 동백나무숲. 3000여 그루의 동백 고목이 칡처럼 엉킨 모습이 마치 밀림을 연상시킬 정도다. 동백꽃을 보고 인근에 있는 고인돌 공원이나 고창읍성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축제는 3월말 4월초 예정. 선운사(063)561-1422

●강진 백련사 백련사는 고려후기 이후 8국사를 배출해낸 명찰. 소나무는 없고 동백나무만 가득한 동백꽃 사찰이다. 2001년부터 백련사는 동백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백꽃 축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동백꽃 감상은 3월 중, 하순부터 가능하다. 백련사 인근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초당과 시인 김영랑의 생가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축제는 3월 중순이지만 아직은 미정. 백련사 (061)432-0837

●여수 향일암과 오동도 남해 해돋이 장소 중 최고로 꼽히는 향일암에도 동백꽃은 무성하다. 대웅전 근처 동백꽃은 부처님과 함께 시방세계의 대중들을 내려보고 있는 듯 하다. 오동도 역시 동백꽃의 대명사로 불리는 섬. 섬 전체에 동백꽃 탐방로가 만들어져 있어 가족, 연인 단위로 오는 사람이 많다. 오동도 축제는 3월 12~16일. 동백과 관련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됐다. 향일암 (061)644-4742, 오동도(061)665-4477



바다와 어우러진 오동도 동백꽃.



빨간 꽃망울을 터트린 선운사 동백나무가 작은 터널을 만들었다.

●거제 지심도 섬 전체가 동백이다. 아직 유명세를 타지 않아 인적이 비교적 드물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섬의 모습이 마음 심(心)자를 닮았다고 해서 지심도(只心島)라고 한다. 배가 드나드는 포구부터가 울창한 동백터널을 이루고 있다. 3월초부터 중순까지가 절정. 주변해역에서 나는 전복, 해삼, 멍게, 미역 등의 해산물도 좋다. 거제시청(055)639-3198

●완도 보길도와 충남 서천 마량포 4월까지 생명력을 이어가는 보길도 동백은 송이가 크지는 않지만 단아하다. 나무가 오래되고 키도 크다.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해변, 깎아지른 듯한 해안의 절경이 어우러져 동백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3월 말~4월초 사이에 '동백-주꾸미' 축제가 열리는 마량포의 동백은 남도의 동백과 달리 꽃잎이 한 겹인 홑동백인 것이 특징. 완도군청 (061)550-5224, 서천군청(041)041-950-4017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극장가



코러스 / 드라마 / 95분
개봉예정일: 3월 3일
감독: 크리스토프 바라티에
출연: 제라니 주노, 자크 페랭 등
등급: 전체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프랑스 마르세이유의 작은 기숙사 학교. 면회가 되는 토요일마다 교문 앞에서 하염없이 아빠를 기다리는 전쟁고아 페피노. 역시 아빠의 부재 속에서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을 일으키는 모항주. 이처럼 쓸쓸한 여름방학을 보내는 아이들의 학교에 미완성의 악보를 든 마티유가 임시직 교사로 부임해 오는데….



바이브레이터 / 드라마 / 95분
개봉예정일: 3월 4일
감독: 히로키 류이치
출연: 테라지마 시노부, 오오모리 나오 등
등급: 18세 이상

레이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인 오카베 타카토시가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타고 그와 친해진다. 낯선 남자와 함께 도쿄에서 나카타를 오가는 짧지만 특별한 '항해'가 시작된 것이다. 달리는 트럭 안에서 낯선 남자와의 시간에 우정과 사랑을 키우는 레이.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느 샌가 그녀는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데….

전시

소박하고 담백한 멋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전국 6대 도시 순회



김상만씨의 작품 '담'.

2005년 봄을 아름다운 도자기와 함께 맞아보는 것은 어떨까?

아름다운 도자기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세계도자기엑스포는 제1회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전국 순회전을 2월 2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의 이미지를 살린 것으로 평가되는 도예가 김상만씨의 '담'을 비롯한 작품 81점이 대중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재)세계도자기엑스포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21세기의 한국적 정서를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도자기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잘 계승한 작품들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는 수원과 인천을 시작으로 4월 17일까지 청주, 대전, 서울 등의 도시를 순회하며 계속된다.

유철주 기자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전국순회전시 일정

순회 도시	일정	전시장소	연락처
청주	3. 4 ~ 3. 9	한국공예관	(043)268-0255
대전	3. 10 ~ 3. 15	평송청소년수련원	(042)480-1622
서울	3. 16 ~ 3. 22	인사아트센터	(02)736-1020
광주	3. 23 ~ 3. 31	광주시립민속박물관	(062)525-8633
대구	4. 1~ 4. 10	대구문화예술회관	(053)652-0515
부산	4. 11 ~ 4. 17	부산문화회관	(051)607-6051

전시

진각종 J&B 소울 첫 연주회

3월 19일 아리랑아트홀



군법당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J&B 소울.

진각종 서울청년회 노래전문활동반 J&B 소울(Jingak news buddhist band of sound-hoilc)이 창단 첫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3월 19일 오후 4시 서울 성북구 돈암동 아리랑아트홀에서 열리는 연주회는 진각종 서울교구 스승들을 비롯한 신교도, 종단 유관 불교문화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 그 동안 가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전문 활동반의 활동성과를 대내 · 외에 보고하고 회향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부처님께 바칩니다', '정례올리고', '오늘은 좋은날', '공심공채', '둘이 아닌 노래' 등 찬불가 중창과 대중가요, 댄스, 찬조공연 등으로 90분 동안 다양하게 펼쳐진다.

지난해 8월 22일 창립한 J&B 소울은 음악을 사랑하는 진각종 서울청년회 회원들로 구성,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년포교의 대중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앞으로 종단 찬조공연을 비롯해 복지시설 찬조공연, 육군 신병교육 입소대대 군법당 위문공연 등 다양한 음악포교 활동을 펼쳐왔다. (02)913-0755

김원우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헤드폰 알람시계

알람시간이 되면 두발을 망치가 두드립니다. Snooze/Light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정지 후 5분 후에 다시 벨을 울립니다. 소리를 멈추게 하려면 On/Off 스위치를 Off로 해 주시면 됩니다. 하늘색과 은색 두가지 종류가 있다.

가격은 2만 4000원. (02)732-1520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8일 07:05 아침저널
1일 06:20 새로운 인생
2일 08:55 마음의 향기
3일 01:00 세계음악여행
4일 09:50 도현 스님의 거룩한 만남
5일 23:00 뮤직 N 유영석입니다
6일 07:40 참선이야기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8일 07:50 명상음악산책
1일 12:00 3.1운동과 불교
2일 23:40 한국의 명찰
3일 22:10 달라이라마 법문
4일 09:00 영상니르바나
5일 16:10 부처님경전이야기
6일 17:30 불교TV스페셜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3월 4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영어법문 '디스커버링 부디즘' (3월 4일 오후 09:20~10:00) 티베트에서 수행, 포교를 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의 영어법문을 쉽고 과학적인 접근방식으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불자가 아닌 이들도 관심을 갖고 불교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게시판

컴퓨터 · 미용 무료교육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는 컴퓨터 수리, 전산세무회계, 미용 등의 분야를 배울 무료 국비 지원생을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전산회계 4개월, 미용 6개월 과정이다.(054)456-9494

주부 · 일반인 컴퓨터교실 두손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 사하구내 주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컴퓨터 교실은 3월 7일부터 2주간 운영되며 한글, 인터넷, 파워포인트 등에 관한 강의가 진행된다. 회비는 4만원. (051)265-9471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 통도사 자비원은 3월 20일까지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생을 모집한다(사진). 교육기간은 3월 23일~6월 29일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시까지 3시간에 걸쳐 총 15주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비는 15만원. (055)381-2005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서울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한 '가족단위 홈헬퍼'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홈헬퍼들은 주1~2회씩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락 배달을 비롯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02)929-4633

진각합창단원 모집 진각종 서울교구 진각합창단은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3월 31일까지. (02)913-0751

20면 상식 퍼즐 정답

삼	귀	의		마		
한		상	이	군	인	
사			상		상	
온	달				파	동
	팽		수			가
	이	구	동	성		홍
		랍		보	부	상

(주)야단법석과 함께 할.... 모집합니다

· 수익사업을 생각하는 사찰
· 기금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신도회 불교단체
· 신행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갖고자 하는 불자

야단법석은...

● 문수사업부 -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봉축행사,
산사음악회 기획 연출

● 보현사업부 - 다음 생을 위한 법회, 사십구재보험



스님은 다비와 사십구재,
신도는 시다림과 사십구재

● 관음사업부 - 법회때마다 음향때문에 고생하셨다면……



2005년 음향 임대 사업 시행

● 지장사업부 - 다비는 스님의 마지막 法門입니다.



충남 금산 서대산 일불사,
전북 정읍 용천사 지정 다비장 운영

야단법석 문의 : 050-5244-0108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선 하나만 교체 하여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 야단법석은 불기 2549(2005)년부터 음향시스템 임대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예산 때문에 제대로 된 음향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면 ㈜ 야단법석의 음향시스템을 임대하여 사용하십시오.

▌좋은 제품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면 제품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목돈보다는 월 임대료로…
불사를 하다 보면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음향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여 법당장엄은 잘하고도 싼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여 법회 때마다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관리를 해드립니다.
설치하고 몇 년 지나면 부품이 없어서 A/S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단법석은 책임지고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제3기생 모집

1. 대학설립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임,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화합 불교사상을 널리 펴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2. 교 과 목
● 전통의식반(제공의식 포함) 주 1회 (금요일) / 시간 : 15:00 ~ 19:00
▸ 기초(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제공의식)
▸ 연구(제공의식, 현장실습)

3. 교육기간(6개월)
● 원서접수 : 2005년 2월 14일 ~ 3월 19일 (토요일) ● 개강일시 : 2005년 3월 25일 (금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4. 특 전
본대학은 조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본대학 전통의식과정 졸업자가 지도자과정으로 입학 할 경우 입학전형에 특전부여

5. 교 통 편 : 차량운행

3. 문 의
경기북부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신간안내
- 제 목 : 불교범음의식집 - 저 자 : 백설운 스님
- 출판사 : 이화문화출판사
- 금 액 : 35,000원
- 구입문의 : 031)864-0033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자광스님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영가 천도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두암말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을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람을 놀라게 하기고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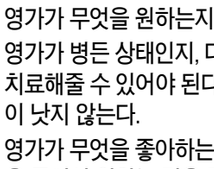
'각종 통증완화' 쑥뜸기 좌훈기 개발 출시

쑥뜸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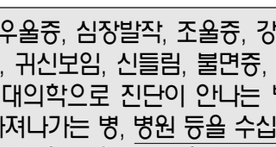
연기가 100% 실외로 배출되고, 쑥뜸시 화상 위험이 없으며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어 편리.
ISO 9001 인증제품 - 쑥뜸기, 좌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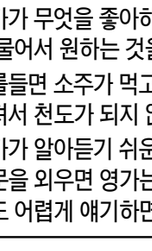
신상품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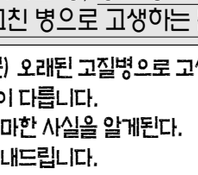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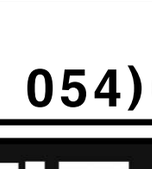
오행 쑥뜸기
적용혈자리 : 중완혈, 신궐혈, 관원혈, 천추혈(2)
기미, 복부비만,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위염, 장염, 변비, 성기능개선, 불면증, 당뇨개선, 고혈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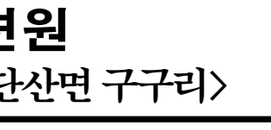


오행 좌훈기
적용혈자리 : 회음혈
변비, 치질, 생리통, 냉대하, 전립선염,신경성과민대장염, 성기능개선, 갱년기 장애





음양 쑥뜸기(무릎관절용)
적용혈자리 : 백회혈, 견정혈, 대추혈, 명문혈, 독비혈, 족삼리
무릎 관절염, 오십견, 요통, 두통



대리점 · 쑥뜸방 모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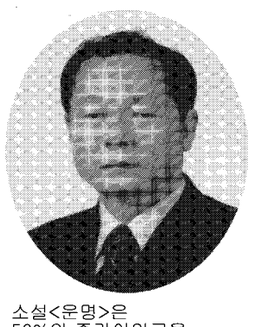
제품 구입시 쑥 한달분 무료 증정

모사포유 www.moxa4u.com
D.M.I산업, 대구한의대 한방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체인점 및 대리점 문의 : (02)521-6353~4
제품구입문의 : (02)598-9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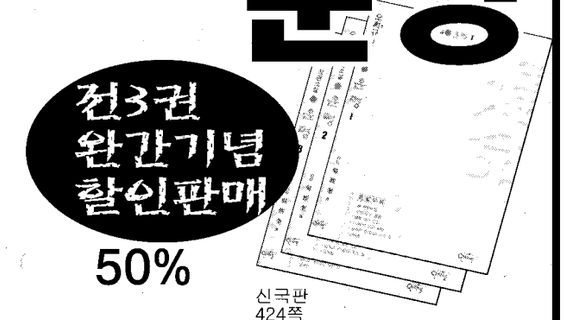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운(大吉運)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건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10,000 원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중국 다예사 자격증' 국내서 딴다

티월드 페스티벌 추진위, '티아카데미' 개설



국내 최초로 중국 다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티아카데미의 '중국 다예사 중급과정'의 수업장면. 사진=박재완 기자

"중국의 차 변천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대 이전에 차는 주로 식용(食用)과 약용(藥用)으로 쓰였고, 당송대를 거치며 음용(飮用)으로서의 차가 등장했으며, 명청시대에는 차의 가공기술이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 다예사(茶禮師)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됐다. 티월드 페스티벌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순)는 최근 '티아카데미'를 마련하고 그 첫 번째 강의로 중국다엽유통협회와 함께 '중국 다예사 중급과정'을 개설했다.

차 개론·다례 표연 등 교육

1992년 설립된 중국다엽유통협회(CTMA, China Tea Marketing Association)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의 연구 · 가공 · 판매 · 유통 등을 총괄하는 단체로,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직업 자격증인 다예사와 차를 감정하는 평차원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이다. 다예사는 중국의 고급 식당이나 다관(茶館)에서 찻잎의 선택과 우리기를 담당하는 차전문가를 말한다.

2월 21일 열린 첫째 날 강의에는 30~50대의 차인 30여 명이 강의실을 채웠다. 최근 중국 다예에 대한 차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신청자는 정원을 훌쩍 넘겼다. 참가자들은 강의기간인 3월 4일까지 12일 동안 매일 8시간씩 이론수업을 비롯해 차의 개론, 다례 기초지식, 다례 표연(表演), 다구감상, 심평(품평) 등을 배우게 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통과하면 '중국 다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입학식에 참석한 중국다엽유통협회 왕건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다예사는 차의 유통과 차문화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처음으로 다예사 강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양국간 차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의 통역을 맡은 박희준 동방차문화연구회장은 "중국에서 다업 종사자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인 강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것은 뜻 깊은 일이다"고 말했다.

강좌의 성격이 전문적인 탓에 신청자 대부분은 차 생활 10~20년을 넘나드는 베테랑이 대부분이었다. 강의에 참석한 불광사 다도반 김혜영 실장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차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차 역사와 다예 등을 배워보고 싶어 강의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한다. 수강료 70만원이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중국 현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인 이유로 쉽지 않는 '주부 차인'들에게는 단시간에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김정순 위원장은 "세계 각국의 차문화를 접함으로써 우리 차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티아카데미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 매년 1~2차례씩 강좌를 마련할 예정이며 지방에서도 강좌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02)6000-2222, www.teanews.com 여수령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인 서울 한설이화원은 차문화경영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차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오프라인서 공부, 온라인서 실습

원광디지털대 평생교육원 '한설 이화원' 개원



'사이버대학'이나 '디지털대학' 등 온라인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허전함은 실습을 통해 배움을 넓힐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직접 차를 우리고 마셔봄으로써 차의 진정한 의미를 배워나가는 차 관련 학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는 이러한 학생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전국 82개 다례원과 연계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자리 잡은 원광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 한설이화원(원장 안혜숙) 역시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원광대 평생교육원 전임교수이기도 한 안혜숙(47 · 사진)원장은 학생들이 직접 차를 대하며 온라인 교육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한설이화원의 문을 열었다. 현재 이곳에서는 원광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교과과정인 전통차예절지도사 과정과 예절교육지도사 과정을 통해 다도 지도사를 배출하고 있다.

"교육원을 찾는 학생들의 연령대나 차를 배우게 된 계기는 각양각색입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 대화하고 부대끼며 차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니며 차를 접했다는 안 원장은 성신여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지역 문화센터에 다도 봉사활동을 다녔다. 그러던 중 원광디지털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교육원을 열게 됐다. 교육원이 마련되자 전국 각지에서 교육생들이 몰려들었다. 그동안 안 원장에게서 차를 배웠던 사람들이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원 교과과정 외에 한설이화원 자체적으로 다도예절 전문반과 전통의례 과정, 청소년 다도예절반, 어린이 서당 등도 운영하다보니 일주일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때문에 안 원장은 다음달 14일, 근처 50여평 규모의 아파트로 교육장을 옮길 계획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원 1주년을 맞는 이날 오픈 기념식에서는 전통 돌상차림과 행다시연 등의 문화행사도 펼칠 예정이다.

안 원장은 "한설이화원이 앞으로 다학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열린 교육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02)455-3507 여수령 기자



이규보 선다일여 기풍 조성, 무신정권에 다방 축소

고려시대 ⑦

고려는 송조의 영향으로 차문화가 크게 융성해 이인로, 김극기 같은 다인이 나오고 불가에도 보조국사 지눌, 진각국사 혜심 같은 이가 배출돼 문학, 종교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백운거사 이규보는 호방한 기품과 청정한 마음으로 차를 아주 즐겨 수많은 다시와 기록을 남겼고, 선다일여(禪茶一如)의 기풍을 조성했다. 그가 이름 붙인 유차(孺茶)는 당시에 매우 고급차였다. 그러나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궁중의 다방도 축소되고 신하들에게 하사하던 차의 양이나 횟수도 격감한다.

중국은 남송대에도 차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아 육유, 범성대 등의 차인이 있었으나 차의 값은 폭락한 반면 말값이 몇 배로 뛰어서 국익에 많은 손실을 보았다.

① 이인로(1152~1220)는 어려서 차를 즐겨 마셨고 다시도 남겼다.

② 김극기는 명종연간의 문인으로 초야에서 지내며 차를 즐겨 다시 여러 편을 남겼다. '용만잡흥'은 차에 대한 심오한 정신세계를 노래했다.

③ 3월에 왕(의종)이 현화사에 행행하자 동서 양승원에서 각각 다정(茶亭)을 설치하고 어가를 맞이했다.

④ 왕이 귀법사에 행차할 때 달령다원(獺嶺茶院)에서 쉬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지방에도 다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규보는 의종 고종 연간의 문인으로 고려의 다사를 빛낸 다인이다. 다시문과 해박한 차정신을 남겼다.

⑥ 무신들이 정권을 잡을 후 차문화가 위축되고 왕의 차 하사가 줄었다.

⑦ 혜심은 차를 사랑한 선시인(禪詩人)으로 '도백운암(到白雲菴)' 등의 다시를 남겼다.

⑧ 지눌은 종휘선사의 선원청규에서 인용한 차에 관한 글이 〈계초심학인문〉에 전한다.

⑨ 장원간: 송대 시인으로 소식의 영향을 받아 다시사(茶詩詞)의 일격(一格)을 이루었다. '완계사(浣溪沙)' '야좌(夜坐)' 등에서 잘 표현되었다.

상장: '여지광보(茹芝廣譜)'와 '속다보(續茶譜)'를 저술했다.

⑩조여려: 송대 다학자로 웅번의 〈선화북원 공다록〉을 보충하여 〈북원별록(北苑別錄)〉을 썼다.

⑪ 육유는 당대의 시인으로 많은 차시를 남겼다.

⑫ 범성대와 양만리, 주운은 송대의 시인으로 차에 관한 많은 시와 글을 남겼다.

시대별 연표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고려시대	2 이인로의 출생 ① @ 김극기의 활동 ② 1159 다정 설치 ③ 1167 왕이 귀법사 행차 ④ 1168 이규보의 출생 ⑤ 1170 무신정권(정중부) ⑥ 1178 다방원 6명 감소, 진각국사 혜심 출생 ⑦ 1186 무관이 내시관과 다방 겸직 @ 보조국사의 활동 ⑧		
송대		@ 장원간(張元幹), 상장(桑莊)의 활동 ⑨ 1140 조여려(趙汝礪) ⑩ @ 육우의 활동 ⑪ @ 범성대, 양만리, 주운 등이 활동 ⑫ 1173 세차(細茶) 수출 1177 말값이 오르고 찻값이 내리다	
헤이안시대			가마구라 1159 평치(平治)의 난 1173 염창(塩倉) 시대 1175 정토종(淨土宗)

UFO와 하나님의 실체

몇 만년에서 몇천년전까지 지구를 찾아온 외계인(UFO)은 하나님으로 군림하며 인간을 지배했었다. 그 기록이 기독교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 성경(에스겔 1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폭풍과 큰 구름속에서 나타난다.
▷ 반짝반짝 빛나는 단쇠(쇠덩이) 같은 것이다.
▷ 날개가 달려 있다.
▷ 다리는 곧고 송아지 발바닥같다.
▷ 바퀴가 달려있다.
▷ 눈이 사방에 달려 있다.(유리창으로 추정)
▷ 이동할 때 번개같이 빠르다.
▷ 수정같은 궁창이 있다.(돔(dome)같은 둥근 유리창으로 추정)
▷ 날을 때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쌕:제트분사)
▷ 궁창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 이상 나열한 모양이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정확하게 UFO이다. 만약 UFO가 아니라면 괴물의 형상임에 틀림없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에 광명이 비친다.



※ 이 그림은 성경의 내용을 그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정가 8,500원
도서출판 대명 TEL.042)623-0829 FAX.042)621-0110

지식인(知識人)일수록 허황한 신(神: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미신에 잘 빠진다.

부시맨이 콜라병을 하나님 선물로 알고 이를 神主모시듯 하는 것처럼 원시시대에 UFO(우주인)을 유일신으로 착각하고 맹신하여 신학(神學)을 연구했다면 그 신학은 궤변과 비과학 비합리 비도덕적 괴리로 뒤범벅이 될 것이다. 기독교 성경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지의 미개한 원주민이 비행기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사람죽이는 하느님을 보았는가? 부처님이 화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 이 책 한권으로서 기독교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100% UFO라고 증명한 책

우리 모두는 21세기 르네상스를 주도할 역군임을 자각합시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이라는 것을---!

※ 광고후원은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에서 하는 것임.
※ 뜻이 있으신 분은 회원에 (054-633-1138, 010-2465-1357) 동참하십시요.

卍 · 心
(만의 위대한 힘)

만 성 지 음

卍의 최초 해설서

卍은 우주에 존재하는 부호중에 가장 많은 진리가 함축된 위대한 힘을 갖춘 종합적 부호이다. 이 책을 읽으면 卍의 위대한 신비를 알 수 있다.

도서출판 대명 정가 7,500원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의 전환운동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족의 깨닫기 운동을 주도하는 모임

회장 김 도 기

회 · 원 · 모 · 집
TEL. 054)633-1138, 010-2465-1357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마음 닦아서 이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야

오늘 따라 비가 와서 상당히 불편하시겠습니다. 하지만 물방울은 가죽 속으로 들어가진 않으니까요. 더군다나 날이 춥지 않아서 마음이 좀 푸근합니다. 덜 송구스럽구요.

스님네들이 부처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처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머나먼 데서 밤을 새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 걸 생각한다면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어차피 머리를 깎고 출가했을 때는 다 버리고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끝없는 길을 걷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래도 행복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부와 자식들과 한 가정을 이루면서도 진짜 수행자가 되겠다고 노력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체 만물만생이 다 이런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갖은 모습으로 갖은 것이 다 돼 보고 나서 사람이 됐던 겁니다. 사람까지 올라와서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고해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는지 그것을 몰라서야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며 어떻게 자유인이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습을 바꿀 때는 하나도 없이, 실오라기 하나 걸칠 게 없이 다 놓고 갑니다.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재물이나 보물은 방에서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집이 아무리 좋아도 대문 안에서 인사를 할 것이고, 친척 부부지간이나 아무리 좋은 친구다 할지라도 동구 바깥에서 인사를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식은 그림자처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업식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그 고초는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 마시고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차원을 높여서 꼭 진실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조그맣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놓을 때에 우리는 진실한 실천궁행이 되도록 이렇게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닦는 법이란 먼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면 바로 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굴려놓을 줄을 안다면 굴려놓고서 다시 끄집어내서 작을 가지고 쥐고 놓질 못해서 다시 쥐고 나오는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지름길입니다. 가정에 어떠한 애고가 닥쳐도 타파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놓고 가는 도리입니다. 지혜롭게 바로 돌려놓는 그 자체 말입니다.

우리가 돌려놓는다 돌려놓는다 하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고, 일이 닥쳐오는 거는 체가 없는 데서부터 체가 있는 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이 꼬여들어가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일이 벌어져가지고 바로 바깥으로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떠한 일이든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마음으로 꼬여진 거니까, 마음에서 모든 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상대가 벌어지고 얽혀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해결을 할 수밖엔 없는 거죠.

그래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마는 만약에 한 가정에 구정물이 닥쳤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돌려놓는데 맑은 물로 돌려놓는다면 맑은 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마음이 밀가루라면 밀가루만 고집하지 마시고 밀가루가 화해서 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수도 될 수 있고 만두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은 원자에서 바로 분자로, 인연에 따라서 가공돼서 하나의 만두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 잡숴라 이 소립니다.

모두가 그냥 어렵다, 아주 괴롭다 이렇게 말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개시해서 바로 실천을 하시는 데에 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발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마음의 발전이 아니라면 극난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만큼 수억겁을 거쳐나오면서 경험을 했고 그 모든 것이 한 마음 바로 근본, 영원한 근본, 그 근본에 종합돼서 재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입력이 돼서 말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은 사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부처님 법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에 바로 쓰고 돌아가는 이 진리가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용도에 따라서 닥쳐오는 그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한두 건입니까? 임신을 한다 하더라도 장애자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그거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어디서부터 오는가? 천차만별의 애고가 다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자기가 지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은 데다가 도로 놓고 굴려놔라 이 소립니다. 한두 건이 아닌 그 유전성,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인과성이나 영계성이나 업보성이나 세균성이나 이 모두가 바로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올 것이고요.

그런데 삼세(三世)를 다 통치하고 일심(一心)으로써 실천궁행하려고 하고 자유인이 되려고 하고 만물의 영장이 되려고 하고 부처가 되려고 하고 법신(法身)이 되려고 하고 관세음, 지장 모든 것이 다 자유스럽게 되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흙물도 맑은 물로 바꿔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체가 다 한군데서, 한군데서 들고 나는 것이니까 한군데로 놓는 작업만 잘하시고, 굴려놓는 작업만 잘하시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이 투철하다면, 그리고 믿는 것이 투철하다면,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믿는 그 마음이 투철하다면 바로 일체 만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타파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모두가 그냥 어렵다 괴롭다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해서 실천하는 데에 묘미가 있어

우리가 법당에서 예배 올리고 음식물을 놓고 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바로 여러분이 계시니까 거기 그 자리에 부처가 계신 겁니다. 법당에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시니까 법당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가정에 있으니까 가정에도 계십니다. 또 바로 여러분 몸이 도량이요, 몸속에 들은 생명들이 바로 중생들이죠. 그러니 부처가 따로 있습니까, 어디? 그러니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가루가 마음이라면 그걸로 별의별 거를 다 먹고 싶은 대로 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밀가루라는 근본을 가졌지마는 가공돼서 국수도 되고 만두도 되고 부침개도 되고 과자도 되고 술도 되고 누룩도 되고 뭐 별거 별거 다 되는 것을, 그것이 아무리 나누어져서 다른 이름을 띠고 나왔다 하더라도 밀가루는 밀가루의 근본이 거기 뚜렷하게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의 근본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리저리 써도 그 마음이라는 것은 떼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광대무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지마는, 서춘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공부를 해서 자유자재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위기가 닥쳤어요. 그때는 참, 지금과 같지 않아서 모두 그 스님을 상당히 귀하게 생각하고 나라에서도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때 중국에서 아주 특이한 보물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거를 내놓지 않는다면 너희 나라를 없애겠다 하니까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서춘보 스님의 자유자재한 능력으로 나라의 위기도 모면하고, 관직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되고, 나라의 위기를 모면케 한 그 공로로 받은 아주 많은 상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서 구제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는가를 잘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재권 말입니다. 얼른 쉽게 말하면 일체 만물만생의 대권입니다. 아까 밀가루 얘기 했듯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했죠? 이 마음 하나로 일체 만법을 다스릴 수가 있는 그런 대권이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이것저것을 어찌 말로 다 하리까.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리까.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의 그 근원, 그 자체를 쥐고 있는 것은 주먹이 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먹을 불쑥 내밀었다. 지혜가 있고 없는 데 따라서 이 주먹은 아주 얕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춘보 스님이 자기 자유껏 자유자재권을 그대로 개시(開示)한 겁니다. 누가 꼭 그렇게 할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올 거니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잘 맞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미리미리 대치를 해서 커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왕지사 말이 났으니 말이지 버스 지나간 뒤에 아무리 버스 보고 여기 와서 서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도, 정히 당당하고 에누리없고 지혜롭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지 허무맹랑하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증을 서거나,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지 말고, 즉 말하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장소도 마련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많이 다니나, 요런 물자는 어느 지점에다 내야 되겠나, 지금 현 사회에서는 어떠한 것이 제일 잘 먹어 들어가나, 어떠한 것을 잘 쓰고 들어가나 이런 거를 다 살펴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해야지, 그것도 보지 않고 아무 데나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돈 꾸고 뭐 해서 그냥 딸깍 망해 가지고 집까지 다 뺏기고, 이런 행동은 없어야 되겠죠. 이것이 모두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한 탓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공부를 하고 다스려나가면 벌써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자동적입니다. 그러니깐 이 마음공부 하고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자기가 마음먹는 데에 따라서 법이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믿고 맡기고 그냥 하지 못하고, 믿고 맡겼다고 하면서도 그거를 다시 불안하니까 끌고 나와서 또 그거를 생각합니다. 놨으면서도 불구하고 맡겼으면 맡긴 대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면 믿고 맡겨야 그걸 받은 사람이 일을 알맞게 충실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맡겼다 다시 뺏고 또 일을 맡겼다 다시 뺏고 이러면 일을 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깐 맡겼던 걸 도로 뺏어들고 나오지 말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잘 집어먹고 잘 듣고 잘 수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때 그 시절의 용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지금 시대 사람들에겐 상당히 어려워서 그걸 뜻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사람은 지금 용어로써 지금 보고 나가고 듣고 나가는 데서 그냥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말로만 듣고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서춘보라는 스님이 그랬듯이 나라에 위기가 닥쳤든, 가정에 위기가 닥쳤든, 어떠한 개인적인 위기가 닥쳤든 그거는 마음먹기에 달렸지 않았겠습니까? 다가오는 걸 타파해나가고 실천을 하려면 지혜롭게 굴려서 자꾸 갈아 써야죠. 갈아놓고 갈아써야죠. 사람도 헐으면 다른 옷을 입으려고 죽습니다. 기계도 녹이 슬고 망가지면 다른 기계를 들여놓습니다. 그러니까 녹이 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내가 이 옷을 갈아입고 싶다 할 때까지 녹이 슬지 않고 입을 수 있게, 빛바래지 않고 녹슬지 않고 그렇게 쓸 수 있게끔. 그걸로 인해서 온 가정이 다 살 수 있는 건데 그 녹이 슬게 하고 빛바래고 잘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가정인들 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놔둘 거라면 기름을 발라서 딱 녹 안 슬게 하듯이, 마음도 역시 그렇게 미리미리 이 세상 세파 속에서 살아나가려면 너무나 닥치는 게 많으니까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모두 닥치지 않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미리 봉을 박아놓는 거죠. 봉을 박아놨어도 앞서에 봉을 박지 못해서 오는 것은, 오고 난 뒤에 박아도 됩니다, 닥치는 대로. 거기다 자꾸 나쁜 것이 돌아올 때 거기다가 글려놓는 겁니다. 자꾸 돌려놓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게 좋게 해서 글려놓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이성계가 꿈을 아주 나쁘게 꾸고도 지혜로운 무학 대사를 찾아가서 그 꿈 얘기를 물었습니다. 무학 대사는 그 꿈 얘기를 듣고서 묵묵히 한참 있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우수수 떨어지는 꿈을 꿨고 그러니 얼마나 언짢습니까? 까마귀가 그냥 울고 가는 꿈을 꿨고, 대문에 허수아비 모가지를 매서 디룽디룽 매달아놓은 걸 봤고, 색경이 걸렸던 것이 그냥 와르르르 떨어져서 깨지는 거를 꿈을 꿨고 그랬으니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언짢은 꿈인가.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비할 수 없이 언짢은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꾸로 다니고 바로 다니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바로 다닌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거꾸로도 되고 때로는 바로도 됩니다. 그러니 꿈조차, 꿈이 고정됨이 있겠습니까? 그건 마음먹기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울고 간 것은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에 들 꿈이고, 가옥가옥이니까. 색경이 와르르 깨진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다는 것이고, 꽃이 우수수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허수아비가 목을 매서 대문 밖에 디룽디룽 매달린 것은 모든 만민이 쳐다본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꿈 해몽을 해줬더랍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임금이 되기도 했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구정물을 새 물로 바꿔서 먹어라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물뿐이 아닙니다. 물은 어디에도 들어갑니다. 물 안 들어가는 데 없지요? 일체가 물 안 들어가는 데가 없지요. 인간도 피가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피도 물이니깐요. 모두가 이 물 안 들어가는 데가 없듯이 우리 마음 이 자체가 바로 굴려서 놓고 바꿔놓는 데 의미가 있고 묘미가 있고 아주 지혜로운 실천이 나옵니다. 놨으면 진짜로 믿고 도로 뺏어가지고 나오진 마십시오.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누굴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또는 무슨 스님네들 고깃덩어릴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끌고다니는 자기 마음의 주인을 진짜로 믿어야죠. 자기 마음의 주인만이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거부터 알아야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도 거기에 한 찰나에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정신계, 마음의 어버이가 된단 말입니다. 정신계의 어버이가 되죠. 구차하게 이 모습을 가지고 또 나오지 않고도 말입니다. 마음의 어버이가 돼서, 정신계의 어버이가 돼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저 마음을 먹기만 하면 그대로 응해주는 그런 법신, 응신, 관세음, 지장, 용신, 지신 뭐 아니 되는 게 없이 다 되시면서 그렇게 응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 벗어날 길은 이 길밖엔 없는데 좌천이냐 승진이냐는 겁니다. 인간은 중세계에 지금 살고 있으니깐요.

제일 바빠야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여러분 사는 것이, 지금 살 양으로 재산, 돈, 옷 좋은 거, 집 좋은 거 전부 이런 거 허무맹랑하게 찾는 것이 급한 게 아닙니다.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꾸러 가지 않고, 그저 굶지 않고, 옷 헐벗지 않고, 길거리에서 자지 않으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자기 몸뚱이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거 쓰다듬고 매일같이 세수하고 수염 깎고 모두 했

☞30면으로 계속

자기를 끌고다니는 자기 주인을 진짜로 믿어야

☞29면에서 계속

던 거를 그냥 몽땅 다 버리고 갑니다. 하이구! 그 이뻐하고 미워하고 했던 거를 말입니다. 이 정 저 정 다 들은 거를 다 버리고 가요. 아니, 그렇게 해 놓구선 뭐 가질 게 있습니까?

역시 마음 닦아서 내가 이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야 내가 자유롭게 일체 만물만생이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자리 아님이 없고 정신계의 흑성이나 어떠한 별성이든지 그 속에 들어가면 나 아님이 없고 내가 아니 되는 게 없고, 태양에 들어가도 내가 태양이 되고, 내가 은하계에 들어가면 내가 은하계가 되고, 달에 들어가면 달이 되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어떤 사람이 응해달라면, 돼지가 응해달래도 돼지 속으로 들어가면 돼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시키는 바로 정신계의 어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름해서 부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상하가 없이 모두, 스님들끼리 살 때는 스님이 높고, 상인들끼리 살 때는 상인이 높고, 뱃사공은 뱃사공대로 높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높고, 제 가끔들 가난하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그 집안에서는 다 높은 분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못났어도 내 가정에선 내 남편으로서 제일 높죠.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선 내 자식으로서 제일 높고, 내 부인으로서 제일 높고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그래서 부처다 이겁니다.

부처라는 것이 '나는 깨우쳤다. 내가 제일 높다.' 하는 그런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높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뜻에서 부처라고 이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하시는 데 뭘 수 있으면 거기다 맡겨 놓고 도로 쥐고 나오지 마시고, 맡겼다가 도로 들고 나오면, 서류를 도로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몇 사람 말고는 전부 들고 나와요, 도로. 그러고는 안되느니 되느니 하고 야단이에요. 왜 맡겼는데도 안되느냐 이거죠. 아, 잘 맡겠으면 그럴 리가 있겠나요? 못 맡겠으니깐 그렇죠.

이제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 참선곡에 경허 큰스님이 말씀하신 '돌장승이 아이 낳으면 그때 말하리라.' 하는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스님: 설명으로 될 일도 아니에요. 설명으로 될 일이 아니라 마음공부를 잘하면 바로 돌장승이 우는 소리, 애기 낳는 소리, 눈물을 흘리는 소리 그런 것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모든 거를 한군데로 몰아서 놓고 한군데서 몰아서 나와도 줄지 않고 늘지 않느니라 했습니다. 그 도리를 알면 바로 돌장승이 애기 낳는 도리도 알고 모두 그렇습니다.

▲질문자2: 원효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자 했던 말씀과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들려주시는 주인공 자리에다 되돌려 맡기시라는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 '귀의심원 요익중생(歸依心源 饒益衆生)' 즉, 뜻으로 이해하면 일심의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 봉사하고 유익되게 하라. 둘째, '무리지 지리, 불연지 대연(無理之 至理, 不然之大然)' 역시 뜻으로 이해하면 이치 없는 것은 지극한 이치요, 그러지 아니한 것이 크게 그러하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스님: 얼른 쉽게 말하면 모든 마음을 한데 모아 원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한데 한마음으로 모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가지고 들이고 낸다면 바로 이익이 될 것이로다 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이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또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 말은 거기 그렇게 써 있지마는, 한 군데다 놓고 한군데로 들이고 내니 그 하나로 돌아가는데 모두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모든 거를 거기다 놓고 둘로 보지 말라. 둘로 보지 말고 어떠한 잘못이 됐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둘로 보지 말고 부드럽게 말해줘라 했습니다.

모든 생물들에도 '보시하라' 이렇게 했었죠. 지금은 '돌봐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내 아픔 아님이 하나도 없다 이런다면, 그냥 몰아서 다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면서 이것이 근본자리로 들고 나는 것이 '보시'입니다. 그때 시절의 용어로는 그랬겠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으니만큼 말이 좀 달라야 알아듣기 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요, 우리가 안과 바깥이 따로 없겠죠? 안이다 해도 아니 되고, 바깥이다 해도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 들어오는 분도 여기 안이 아니고 그 안도 바깥으로 나가려면 바깥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마당에서 바깥이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따진다면 크게 이룰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니다 그렇다 하는 그 가운데서 들어와도 나가야 되고 나가도 들어와야 하듯이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야 옳다, 나가야 옳다'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가 되면 들어오고 나갈 때가 되면 나가고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이것도 따질 수 없고 저것도 따질 수 없으니 이게 바깥이다 안이다, 없다 있다 하질 말라. 없다 있다 하질 말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쓰고 행하고 말하고 가는 것이 그대로 법이다 하는 뜻입니다.

▲질문자2: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아까도 이성계 꿈 이야길 해주셨는데요, 꿈이란 것을 통해 나의 행동을 참고하고 살아도 좋은가, 아니면 단순히 무시하고 지나가도 좋은가 하는 점에서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누구나 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꿈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시켰다가 도리어 후회를 하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을 나의 행동의 참고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스님: 지금 생시에 생각하는 것도 꿈이에요. 우리가 요렇게 요렇게 하겠다 하는 것도 꿈이거든요. 그런데 자면서 꿈을 꾸는 것도 꿈이거든요. 그러니 꿈 아닌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꿈 잘 꿔라 이러지요. 잘돼라 하는 것도 꿈 잘 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깐 꿈을 꾸고 안 꾸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쁜 꿈을 꾸었으니깐 이건 나쁘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되죠. 그러니깐 나쁜 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바꿔서 이거는 나를 가르치는 꿈이다라든가, 좋은 꿈이다라든가, 나를 이끌어주는 꿈이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맡겨 놔라 이 소립니다.

또 생시에도 그렇습니다. 생시에도 무슨 생각이 들었으면 '아, 이것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사방을 딱 둘러보고 이것이 해야 할 자린가 하고 한번 검토해보고 결단을 내리는 것도 법입니다. 그것도 꿈이고요. 그것이 꿈 해몽의 실천입니다.

▲질문자3: 제가 이 법을 배우기 전에는 제가 저지른 죄의 대가인지 세상에서 저한테 돌아온 화살을 그대로 다 받아갖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관하는 도리를 스님께 배운 뒤로는 나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무심(無心)으로 받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거의 괴로움에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어느 선지식께 "당신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식처(識處)를 떠나서 무소유처(無所有處)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음 선지식께 "당신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난 식처를 떠나서, 무소유처 착을 떠나서 비유상비무상(非有想非無想)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그걸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스님께 지도를 계속 받으면서 그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잘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스님: 이거 봐. 공부가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놓고, 되는 것도 감사하게 거기다 놓고 이러고 돌아가요. 그리고 안 보이는 데를 보고, 들리지 않는 데서 들었고, 움죽거리지 않는 데서 움죽거리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데서 보았고, 들리지 않는 데서 들었고, 움죽거리지 않는 데서 움죽거림을 알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의 세계, 즉 정신세계를 지금 물질세계와 이렇게 동시에 같이 작용을 하는 도리를 알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알려고 애를 쓰지 말고 뜻으로 알려고 하세요.

그러니 책을 보는 것도 책이 보게 하지 말고, 책을 보지 말고 보십시오. 말에만 끄달려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를 알더라도 실천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상시의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됩니다. 생활이 그대로 도입니다. 이 도리를 꼭 증득하십시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5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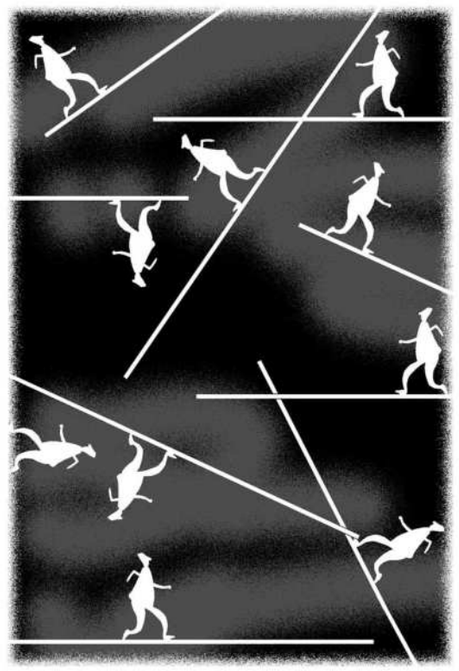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의 발전이 아니라면
극난한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끌고다니는
자기 마음의 주인을 진짜로 믿어야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모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등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모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 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 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겸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장어리 북장어리 황금장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출근 시간이면 지하철 역 앞 토스트가게에 회사원들이 몰린다. 아침을 미처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베지밀에 계란토스트를 먹거나, 김밥을 한줄 씩 사가는 광경은 이제 익숙하다. 편의점에는 아침에 데워먹는 레토르 식품들이 즐비하고 집까지 국과 밥을 배달해주는 아침밥 배달 업체들이 인터넷만 검색해도 수두룩하게 나온다. 아무리 바빠도 건강을 생각해 아침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다. 동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광근 교수는 "아침밥이 밤새 비워놓은 위(胃)에 음식물을 넣음으로써 내장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또 "아침밥은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며 "두뇌를 많이 쓰는 수험생, 직장인들은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제 아침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지만 바쁜 아침시간에 밥을 챙겨먹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가정에서 간편한 노력만으로 아침을 챙겨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건강도 챙기고 시간도 단축하는 아침식사거리를 소개한다.

간편한 아침식사 준비하세요

간단한 아침식사로 건강·시간 챙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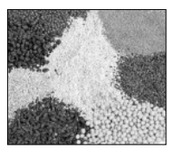
산사에 스님들이 모여 참선하는 선방에서는 아침에 무엇을 공양할까? 정답은 '죽'이다. 소화하기 쉽고 위의 부담 없이 뇌의 활동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죽식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죽'을 먹으려면 오랫동안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부담스럽겠지만, 단 시간에 죽을 끓이는 방법이 있다. 전날 자기 전에 쌀을 물에 담가 다음날 아침까지 불린다. 불린 쌀은 아침에 분쇄기로 적당히 간 후 냄비에 끓인다. 땅콩이나 잣, 야채, 버섯, 쇠고기 등 원하는 재료를 넣어서 20분 정도 더 끓이면 죽이 완성된다. 재료를 다듬을 시간조차 없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곡물가루를 한 컵 넣고 물 3컵과 함께 끓이거나 통조림 재료를 이용해도 된다. 여분의 죽을 미리 만들어 놓고 두고두고 먹을 거라면 소금이나 간장간은 먹기 직전에 하는 것이 좋다. 만들 때 간을 하면 죽이 금방 삭기 때문이다.



떡 "아침을 안 먹던 게 습관이 되서 그런지,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속이 아파서 못 먹겠어요."

주로 갑자기 아침밥 습관을 들이려는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고민거리다. 특히 위장장애로 인해 늘 속이 더부룩한 사람은 공복에 밥부터 먹으면 '속에서 안 받는다'고 호소한다.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윤숙자 소장은 "예부터 속이 쓰릴 때면 찹쌀떡을 먹어 위벽을 보호했다"며 "밥이 부담스럽다면 아침대용식으로 찹쌀떡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떡집에서 찹쌀떡을 미리 사놓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냉동해 두었다가 전날 저녁이나 2시간 전에 꺼내 두면 딱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된다.

가끔은 샐러드를 떡 사이에 끼운 떡 샌드위치를 만들어 영양학적으로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좋다. 최근에는 햇반이나 캔에 담긴 죽처럼 레토르트로 만들어진 떡도 개발돼 바쁜 아침시간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선식 선식은 불필요한 조리공정을 최소화 시켜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아침시간에 알맞은 먹거리다. 현미, 찹쌀, 보리, 율무, 콩, 팥, 옥수수, 참깨, 검정깨, 호박씨, 잣, 땅콩, 호두 등의 곡물가루를 조금씩 준비해 놓고 바꿔가며 먹으면 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밥상에 道가 있다>의 저자 정세채 씨는 "선식은 소식을 유도하고 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대변배설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돕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식품영양학 전문가들은 "선식 하나만 먹어서는 단백질과 칼슘 등 필요한 영양분을 다 채울 수 없다"며 "탄수화물이 주된 영양분이므로 우유나 과일을 같이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또한 뇌를 깨우는 역할이 중요한 아침 식사인 만큼, 곡물가루를 음료에 타 마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조금씩 나눠 씹어 먹을 것을 권장한다. 음식을 씹으면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침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야채·과일 젊은 여성들은 미용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종종 신선한 야채와 제철과일로 아침식사를 대신하곤 한다. 주로 그대로 먹거나 갈아 마시는데, 과일산 때문에 속이 쓰리다면 당근을 같이 갈아먹는다. 당근의 식물성 섬유가 장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바나나는 다른 과일에 비해 지방과 탄수화물이 많은 과일로 구워먹거나 갈아 먹으면 맛있다. 단호박이나 감자, 고구마 등를 쪄서 우유와 함께 갈아 마셔도 든든하다. 이은비 기자

내장 기관 활성 · 뇌 영양 공급에 큰 역할

아침식사 소개한 요리책

도서명	저자	출판사
내몸의 독소를 없애는 아침식사	이승남, 최신애 지음	랜덤하우스 중앙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한 참 좋은 아침식사	이양지 지음	청림출판
건강을 지키는 아침식사	허갑범, 김경분 지음	리스컴
아침식사를 한 상 차려야 한다면	최주영 지음	시공사
2000원으로 아침상 차리기	김미경 지음	그리고책
좋은아침 국 죽 스프	백지원 지음	효성출판사
간편 아침식사	서울문화사 펴냄	

아침식사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이름	주소
미즈네	http://cook.miz.naver.com/
뉴스타트 새생활 건강요리	http://members.tripod.com ~kkchung/health/
델리쿡	http://www.delicook.com/
아라의 엄청 간단한 요리법	http://www.alacook.com/
메뉴판닷컴	http://www.menupan.com/
나만의 요리천국	http://hohos.wo.to/
맛있는요리hoo	http://hooo.com.ne.kr/
조이투푸드	http://www.joy2food.com/



활발한 교류로 통합 의학체계 형성

7세기 콩포에 최초의 티베트의과대학 설립
1979년 이후 중국에 의해 수많은 진료소 개설

최근 1985년 동 티베트에서 본교 고의서 사본이 발견되고 이어 1993년에는 고문자가 새겨진 돌 유물이 잇따라 발견되었다. 그 유물들에 의하면 벌써 기원전 3000~5000년 사이에 문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훗날 사가들에 의해 좀 더 명확한 진실이 밝혀질 일이나 분명한 사실은 티베트의학의 역사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길다는 것이다. 당시 의학연구는 <소릭 붐시(gSo-rig Bhoom-Shi)>라는 본교 사부의서에 기초하고 있었다. 티베트의학사에서 이 기간은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후 7세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7세기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여 다른 인접 문화권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의학지식들이 티베트 전통의학을 중심으로 한층 세련된 의학체계의 틀을 갖추게 된다. 특히 32대 송첸감뽀(Songsten Gampo)왕 치세(617~650)에 불교와 불교문화는 그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크게 융성하게 된다. 그는 불교신자인 당나라 문성공주와 네팔 티춘공주를 왕비로 맞아 각각 라모체와 투르낭 사원을 건립하고 불교를 널리 유포시켰다. 티베트인들은 문성공주와 티춘공주를 초록 따라와 백색 따라의 화현으로 믿고 있다. 따라는 모든 불보살의 자비의 여성적 표상으로 자비의 보살인 관세음보살의 권솔이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티베트의 수호불로 달라이라마로 화현하신 것이다. 백색 따라는 보호, 평안 그리고 장수를 보증하시고 초록 따라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모든 유정물을 위험에서 구해주는 일을 주관하신다. 송첸감뽀왕은 토미 삼보타같은 대학자를 인도에 보내 티베트 문자를 창제하도록 하였고 티베트의학에 일대 중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는 티베트의학에 대한 첫 국제회의를 티베트의 삼예 승원에서 개최하였다. 그 국제회의에 송첸감뽀왕은 페르시아, 인도 및 중국과 같은 인접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의학자들을 초청했다. 그 때 초청된 의학자 가운데는 페르시아로부터 초청된 갈레노(Galeno)란 의사도 기록되어 있는데, 시대는 다소 일치하지 않으나 고대 그리스의 그 유명한 갈렌(갈레누스)과 동일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삼예 승원에서의 국제회의를 계기로 여러 전통의 대표적인 의학 논저와 의서들이 새로 창제된 티베트어로 처음 번역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같은 의서의 번역은 티송데첸(Trisong Detsen)왕의 후원아래 다음 세기에도 계속되었다. 8세기에는 티송데첸왕 제위기간동안 본교이던 티베트 국교가 불교로 대체되었다. 그로 인해 티베트에서는 본교의 종교, 문화 및 의학 지식이 억압받게 되었다.

762 년에는 티송데첸왕의 어의 유톡 용텐 곤포(후대 유톡과 비교하여 선대 유톡이라고 부름)가 약초의 골짜기인 콩포에 티베트역사상 최초의 티베트의과대학을 설립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소릭붐시>를 한 문장에 아홉 소절로 개편하고 옛 본교식 제명과 용어들을 불교식으로 바꾸었다. 이 시기 그는 인도와 중국 같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의학 지식을 적극 수용한다. 약사여래가 설하셨다는 <사부의전> 산스크리트 원전이 티베트어로 번역된 시기도 바로 티송데첸왕 제위기간이다. 그때 티베트어로 옮겨진 사부의전은 오랜 동안 삼예 승원의 한 기둥 속에 숨겨져 오다 11 세기에 이르러서야 모습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사부의전 <귀시(rGyud-bzhi)>의 찬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톡 용텐 곤포는 후대 유톡과 더불어 티베트사람들에게 약사여래의 화현으로 믿어지고 있다.

티베트의학이 전적으로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기술한 책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티베트는 수 천년동안 자체의 의학지식을 지녀왔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본교 시대와 불교 시대는 서로 다른 티베트의 두 역사적 구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12세기에는 후대 유톡이 더 많은 연구를 하여 귀지(rGyud-bzhi)를 편찬하였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티베트의학의 표준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의서로 남아 있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불교의식(범음 · 범패 · 작법) 학인모집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1학기** 범패 · 소리과정 :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 (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2학기** 작법 · 무용과정 :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 **강 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 - 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 천 수 륙 재 보유자 **박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05년 3월 8일(화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 목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04년 12월 20일 ~ 2005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태평소 호적반 모집(매주 1회 금요일 오후 3~5시) 강사 : 중요무형문화재 피리 정악 이수자 이거희

※ **특전 : 본교 졸업시 그 기능이 인정되면 무형문화재 수륙재 및 범패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
※ **본원은 초정파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 **전화 : 032) 529-6708 / 전송 : 032) 529-6709**
■ 홈페이지 :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http://www.bumpae.org ■ 한글인터넷 : www.수륙재 www.범패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분 한 신 고 공 고

재단법인 대한불교 관음종은 종정예하의 유시 및 제 42차 중앙종회 의결을 거쳐 종단 소속 각 사암 승려에 대하여 분한신고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본 종단 각 사암의 주지 스님 및 승려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총무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신고기간 :** 2005. 3 .1~ 2005. 3. 31
2. **신고서류 :** 주지(창건주)이력서, 서약서, 사찰전경사진(법당사진), 주지(창건주)여권용 사진 3매.
※ 종단 홈페이지 board(게시판) 참조 (www.kwanum.or.kr)
3. **접 수 :** 분한신고 비용 5만원
4. **신고방법 :** 총무원 방문 또는 등기우편발송 (전화번호 기재요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으로 문의바람. **(02-763-0054)**

불기 2549년(2005). 2. 22

재단법인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이 홍 파
종회의장 정 법 륜

개국 10주년
불교TV

불자 여러분과 함께한 10년...

세찬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장명등(長明燈)의 정신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지혜와 복덕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10년 동안 사랑해 주신 불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www.btn.co.kr